

#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Jeju Women & Family Life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Jeju Women & Family Life

## CONTENTS



### I 인구와 가족

|        |    |
|--------|----|
| 성별 인구  | 08 |
| 연령별 인구 | 14 |
| 출생과 사망 | 17 |
| 인구이동   | 20 |
| 가족구성   | 22 |
| 가족형성   | 25 |
| 가족생활   | 29 |
| 가족가치관  | 31 |

### IV 건강과 복지

|            |    |
|------------|----|
| 건강상태       | 60 |
| 건강행태       | 63 |
| 출산, 유병, 사망 | 66 |
| 건강증진서비스    | 68 |
| 사회보험       | 71 |
| 공공부조       | 74 |
| 사회복지서비스    | 76 |

## Ⅱ 보육과 교육

|      |    |
|------|----|
| 보육현황 | 36 |
| 보육지원 | 40 |
| 교육기회 | 41 |
| 교육여건 | 45 |
| 교육효과 | 47 |

## Ⅲ 경제활동

|         |    |
|---------|----|
| 경제활동 인구 | 50 |
| 경력단절 여성 | 52 |
| 취업현황    | 54 |
| 근로조건    | 56 |
| 사업체     | 57 |

## Ⅴ 사회참여와 문화

|           |    |
|-----------|----|
| 정치참여      | 80 |
| 행정참여      | 82 |
| 사회참여      | 85 |
| 문화 및 여가활동 | 89 |
| 정보화       | 91 |

## Ⅵ 안전과 환경

|      |     |
|------|-----|
| 안전인식 | 96  |
| 안전실태 | 99  |
| 환경   | 101 |



# 일러두기

## 01

이 책의 각종 통계와 지표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부 각 기관과 기타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 ▣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발행연도)
- 발행연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제목에 표기된 연도가 발행연도임

###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한 경우

- 자료 : 통계청, 「자료명」

### ▣ 관련기관에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자료를 받은 경우

- 자료 : 관련기관 내부자료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서비스하는 「성인지통계」 웹 시스템에서 자료를 활용한 경우

-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에서 재인용)

### ▣ 원자료를 재분석한 경우

- 자료 : 자료생산기관, 「자료명」 원자료 분석(조사 당해년도 등)

## 02

모든 자료수치 및 비율은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03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 미상 및 해당 없음
- 0 또는 0.0 : 단위 미만

## 04

지표에 따라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표기하였음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I 인구와 가족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이

## 인구와 가족

###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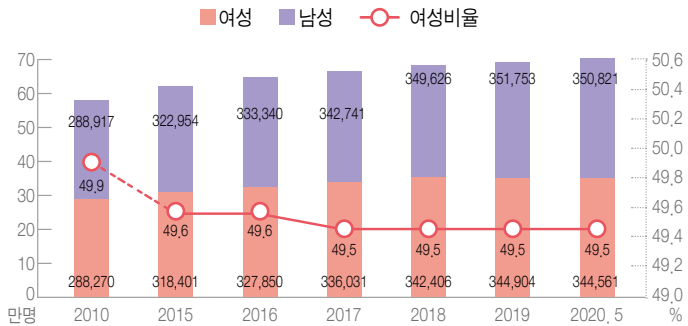
## 여성인구 344,561명, 여성비율 49.5%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총인구 중 여성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2020년 5월 기준) 총인구는 여성 344,561명, 남성 350,821명으로 총 695,382명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49.5%를 차지함
-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총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폭이 점차 감소해 오다 2020년 5월 총인구는 2019년보다 1,275명 감소함
- 여성인구비율은 2017년 이후 4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1

총인구  
2010, 2015  
~2020. 5



(단위 : 명, %)

표 1-1

총인구  
2010~2020. 5

| 구분     | 총인구     |         |         |      | 외국인 인구 |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 2010   | 577,187 | 288,270 | 288,917 | 49.9 | 5,932  | 2,597  | 3,335  | 43.8 |
| 2011   | 583,284 | 290,971 | 292,313 | 49.9 | 7,128  | 2,967  | 4,161  | 41.6 |
| 2012   | 592,449 | 295,105 | 297,344 | 49.8 | 8,736  | 3,605  | 5,131  | 41.3 |
| 2013   | 604,670 | 300,855 | 303,815 | 49.8 | 10,864 | 4,553  | 6,311  | 41.9 |
| 2014   | 621,550 | 308,849 | 312,701 | 49.7 | 14,204 | 6,159  | 8,045  | 43.4 |
| 2015   | 641,355 | 318,401 | 322,954 | 49.6 | 16,960 | 7,434  | 9,526  | 43.8 |
| 2016   | 661,190 | 327,850 | 333,340 | 49.6 | 19,593 | 8,798  | 10,795 | 44.9 |
| 2017   | 678,772 | 336,031 | 342,741 | 49.5 | 21,689 | 9,771  | 11,918 | 45.1 |
| 2018   | 692,032 | 342,406 | 349,626 | 49.5 | 24,841 | 10,934 | 13,907 | 44.0 |
| 2019   | 696,657 | 344,904 | 351,753 | 49.5 | 25,668 | 11,260 | 14,408 | 43.9 |
| 2020.5 | 695,382 | 344,561 | 350,821 | 49.5 | 24,589 | 10,879 | 13,710 | 4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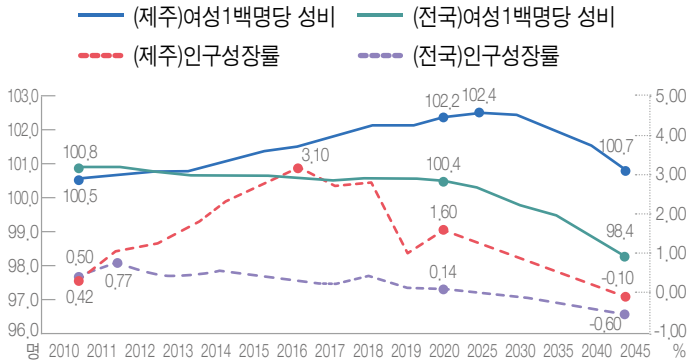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인구성장률 감소, 당분간 성비 격차 증가 전망

인구성장률은 감소하고, 당분간 성비격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성장률은 2020년 기준 1.60%로 전국(0.14%)보다 높게 나타남. 2020년 이후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1백명당 성비는 2020년 기준 102.2명으로 전국(100.4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2025년경까지 증가 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단위: %, 명/여성1백명당)

| 구분   | 인구성장률 † |         | 성비 ‡  |         |
|------|---------|---------|-------|---------|
|      | 전국      | 제주특별자치도 | 전국    | 제주특별자치도 |
| 2010 | 0.50    | 0.42    | 100.8 | 100.5   |
| 2011 | 0.77    | 1.08    | 100.8 | 100.6   |
| 2012 | 0.53    | 1.25    | 100.7 | 100.7   |
| 2013 | 0.46    | 1.63    | 100.6 | 100.7   |
| 2014 | 0.63    | 2.31    | 100.6 | 101.0   |
| 2015 | 0.53    | 2.69    | 100.6 | 101.3   |
| 2016 | 0.40    | 3.10    | 100.5 | 101.4   |
| 2017 | 0.28    | 2.68    | 100.4 | 101.8   |
| 2018 | 0.48    | 2.76    | 100.5 | 102.0   |
| 2019 | 0.20    | 1.04    | 100.5 | 102.0   |
| 2020 | 0.14    | 1.60    | 100.4 | 102.2   |
| 2025 | 0.03    | 1.17    | 100.2 | 102.4   |
| 2030 | -0.03   | 0.84    | 99.8  | 102.3   |
| 2035 | -0.18   | 0.50    | 99.5  | 101.9   |
| 2040 | -0.38   | 0.18    | 98.9  | 101.4   |
| 2045 | -0.60   | -0.10   | 98.4  | 100.7   |

# 이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그림 1-2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1년 단위)  
2025~2045 5년 단위)

표 1-2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1년 단위)  
2025~2045 5년 단위)

주

1) 2019년 6월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자료임

2)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이며, 2017년까지는 확정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 될 수 있음

3)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 인구성장률(%)=(비교연도인구/기준연도인구)비교기간×100

‡ 성비=남성인구/여성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01

## 인구와 가족

###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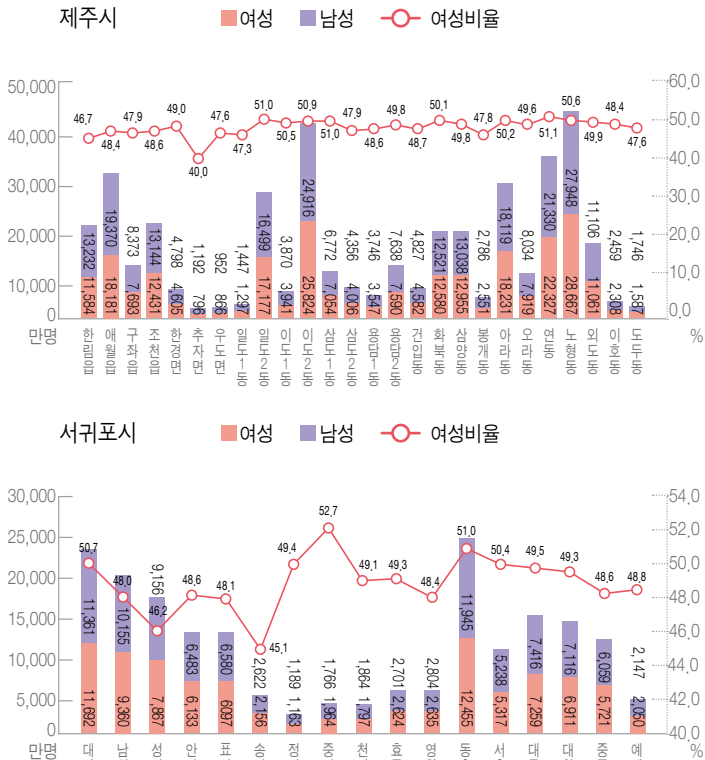
## 여성인구 제주시 251,360명(49.7%), 서귀포시 93,201명(49.1%)

(2020년 5월 기준) 행정시별 총인구는 제주시 505,579명, 서귀포시 189,803명이며, 여성 비율은 각각 49.7%, 49.1%로 제주시의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제주시의 읍면동 인구는 노형동이 56,615명으로 가장 많고 우도면이 1,818명으로 가장 적음. 서귀포시는 동홍동이 24,400명으로 가장 많고 정방동이 2,352명으로 가장 적음
-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읍면동은 제주시 8개동(일도2동 51.0%, 이도1동 50.5%, 이도2동 50.9%, 삼도1동 51.0%, 화북동 50.1%, 아라동 50.2%, 연동 51.1%, 노형동 50.6%), 서귀포시 3개동 1개읍(중앙동 52.7%, 동홍동 51.0%, 서홍동 50.4%, 대정읍 50.7%)임

그림 1-3

행정시별 총인구  
(2020.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이

## 인구와 가족

### 성별 인구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
| 제주시  | 505,579 | 251,360 | 254,219 | 50.3 | 서귀포시 | 189,803 | 93,201 | 96,602 | 50.9 |
| 한림읍  | 24,816  | 11,584  | 13,232  | 46.7 | 대정읍  | 23,053  | 11,692 | 11,361 | 50.7 |
| 애월읍  | 37,551  | 18,181  | 19,370  | 48.4 | 남원읍  | 19,515  | 9,360  | 10,155 | 48.0 |
| 구좌읍  | 16,066  | 7,693   | 8,373   | 47.9 | 성산읍  | 17,023  | 7,867  | 9,156  | 46.2 |
| 조천읍  | 25,575  | 12,431  | 13,144  | 48.6 | 안덕면  | 12,616  | 6,133  | 6,483  | 48.6 |
| 한경면  | 9,403   | 4,605   | 4,798   | 49.0 | 표선면  | 12,677  | 6,097  | 6,580  | 48.1 |
| 추자면  | 1,988   | 796     | 1,192   | 40.0 | 송산동  | 4,778   | 2,156  | 2,622  | 45.1 |
| 우도면  | 1,818   | 866     | 952     | 47.6 | 정방동  | 2,352   | 1,163  | 1,189  | 49.4 |
| 일도1동 | 2,744   | 1,297   | 1,447   | 47.3 | 중앙동  | 3,730   | 1,964  | 1,766  | 52.7 |
| 일도2동 | 33,676  | 17,177  | 16,499  | 51.0 | 천지동  | 3,661   | 1,797  | 1,864  | 49.1 |
| 이도1동 | 7,811   | 3,941   | 3,870   | 50.5 | 효돈동  | 5,325   | 2,624  | 2,701  | 49.3 |
| 이도2동 | 50,740  | 25,824  | 24,916  | 50.9 | 영천동  | 5,439   | 2,635  | 2,804  | 48.4 |
| 삼도1동 | 13,826  | 7,054   | 6,772   | 51.0 | 동홍동  | 24,400  | 12,455 | 11,945 | 51.0 |
| 삼도2동 | 8,362   | 4,006   | 4,356   | 47.9 | 서홍동  | 10,555  | 5,317  | 5,238  | 50.4 |
| 용담1동 | 7,293   | 3,547   | 3,746   | 48.6 | 대륜동  | 14,675  | 7,259  | 7,416  | 49.5 |
| 용담2동 | 15,228  | 7,590   | 7,638   | 49.8 | 대천동  | 14,027  | 6,911  | 7,116  | 49.3 |
| 건입동  | 9,409   | 4,582   | 4,827   | 48.7 | 중문동  | 11,780  | 5,721  | 6,059  | 48.6 |
| 화북동  | 25,101  | 12,580  | 12,521  | 50.1 | 애래동  | 4,197   | 2,050  | 2,147  | 48.8 |
| 삼양동  | 25,993  | 12,955  | 13,038  | 49.8 |      |         |        |        |      |
| 봉개동  | 5,337   | 2,551   | 2,786   | 47.8 |      |         |        |        |      |
| 아라동  | 36,350  | 18,231  | 18,119  | 50.2 |      |         |        |        |      |
| 오라동  | 15,953  | 7,919   | 8,034   | 49.6 |      |         |        |        |      |
| 연동   | 43,657  | 22,327  | 21,330  | 51.1 |      |         |        |        |      |
| 노형동  | 56,615  | 28,667  | 27,948  | 50.6 |      |         |        |        |      |
| 외도동  | 22,167  | 11,061  | 11,106  | 49.9 |      |         |        |        |      |
| 이호동  | 4,767   | 2,308   | 2,459   | 48.4 |      |         |        |        |      |
| 도두동  | 3,333   | 1,587   | 1,746   | 47.6 |      |         |        |        |      |

표 1-3

행정시별 총인구  
2020. 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01

## 인구와 가족

###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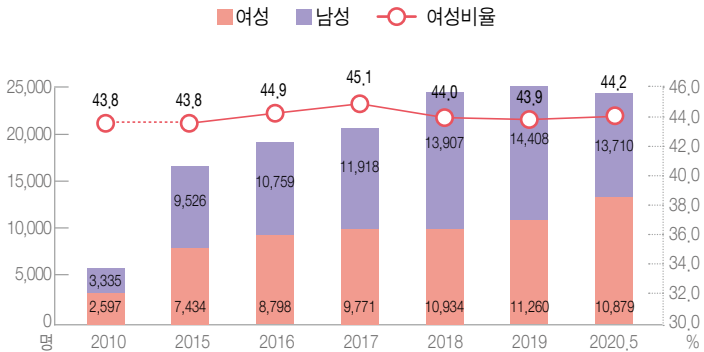
외국인 인구 24,589명(총 인구의 3.5%)  
외국인 여성 10,879명(여성 비율 44.2%)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 인구는 2019년보다 감소하였고,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함

- (2020년 5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24,589명으로 총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보다 1,079명 감소함
- 외국인의 성별 인구는 여성 10,879명(여성 인구의 3.2%), 남성 13,710명(남성 인구의 3.9%)으로 외국인 인구 중 여성 비율은 44.2%이며,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2019년보다 증가함

그림 1-4

외국인 인구  
2010,  
2015~ 2020.5



농가인구 83,133명(여성 비율 49.4%)  
어가인구 9,123명(여성 비율 53.9%)

농가와 어가 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은 어가에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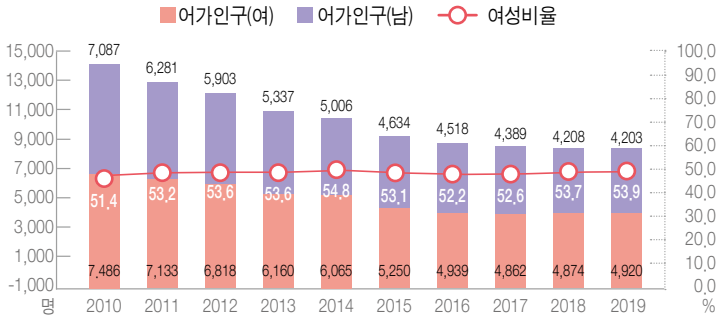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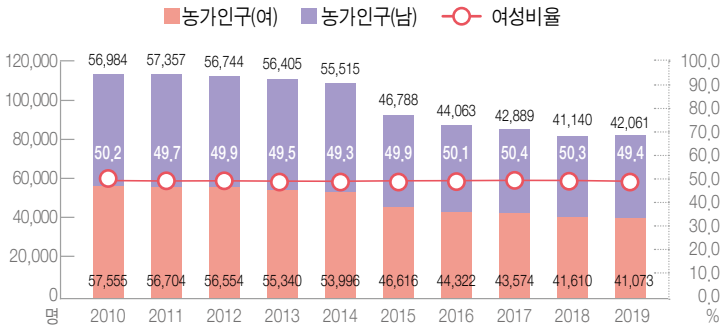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농가인구는 여성 41,073명, 남성 42,061명으로 총 83,133명이며, 여성 비율은 49.4%임. 어가인구는 여성 4,920명, 남성 4,203명으로 총 9,123명이며, 여성 비율은 53.9%임
- 여성비율은 농가보다 어가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대비 여성 농가 인구는 28.6%, 여성 어가인구는 34.3% 감소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 이 인구와 가족 성별 인구

그림 1-5

농가 및 어가 인구  
2010~2019



(단위 : 명, %)

| 구분   | 농가인구   |        |      | 어가인구  |       |      |
|------|--------|--------|------|-------|-------|------|
|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 2010 | 57,555 | 56,984 | 50.2 | 7,486 | 7,087 | 51.4 |
| 2011 | 56,704 | 57,357 | 49.7 | 7,133 | 6,281 | 53.2 |
| 2012 | 56,554 | 56,744 | 49.9 | 6,818 | 5,903 | 53.6 |
| 2013 | 55,340 | 56,405 | 49.5 | 6,160 | 5,337 | 53.6 |
| 2014 | 53,996 | 55,515 | 49.3 | 6,065 | 5,006 | 54.8 |
| 2015 | 46,616 | 46,788 | 49.9 | 5,250 | 4,634 | 53.1 |
| 2016 | 44,322 | 44,063 | 50.1 | 4,939 | 4,518 | 52.2 |
| 2017 | 43,574 | 42,889 | 50.4 | 4,862 | 4,389 | 52.6 |
| 2018 | 41,610 | 41,140 | 50.3 | 4,874 | 4,208 | 53.7 |
| 2019 | 41,073 | 42,061 | 49.4 | 4,920 | 4,203 | 53.9 |

표 1-4

농가 및 어가 인구  
2010~201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02

## 인구와 가족

### 연령별 인구

## 40대 인구 최다, 60세 이후 여성 비율 증가

연령별 인구는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후부터 여성인구가 더 많음

- (2020년 6월 기준) 연령별 인구는 40대(여성 54,459, 남성 58,202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여성 53,497명, 남성 58,076명)가 많음
- 연령별 여성인구 비율은 50대 이전까지는 남성이 더 많고, 연령별 인구가 급감하는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더 많음

그림 1-6

연령별 인구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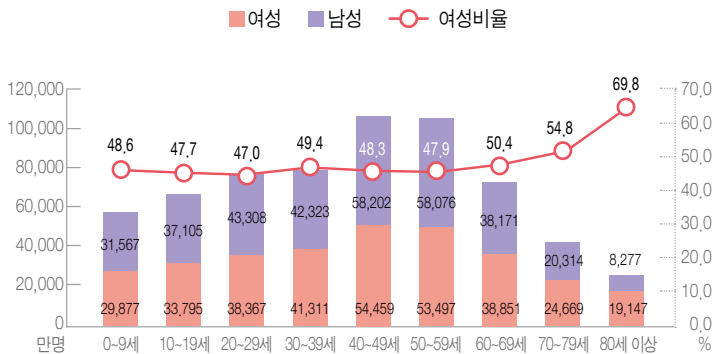


표 1-5

연령별 인구  
2020. 6

(단위: 명, %)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
| 계      | 671,316 | 333,973 | 337,343 | 49.7 |
| 0~9세   | 61,444  | 29,877  | 31,567  | 48.6 |
| 10~19세 | 70,900  | 33,795  | 37,105  | 47.7 |
| 20~29세 | 81,675  | 38,367  | 43,308  | 47.0 |
| 30~39세 | 83,634  | 41,311  | 42,323  | 49.4 |
| 40~49세 | 112,661 | 54,459  | 58,202  | 48.3 |
| 50~59세 | 111,573 | 53,497  | 58,076  | 47.9 |
| 60~69세 | 77,022  | 38,851  | 38,171  | 50.4 |
| 70~79세 | 44,983  | 24,669  | 20,314  | 54.8 |
| 80세이상  | 27,424  | 19,147  | 8,277   | 69.8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노령인구 15.4%(여성 17.9%, 남성 12.9%)

제주사회는 노령인구 15.4%의 고령사회이며, 여성 노령인구가 더 많지만 지난 2010년 대비 노령인구 증가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유년인구(14세 이하)는 2010년 18.1%(103,551명)에서 2020년 6월 말 14.3%(96,206명)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노령인구(65세 이상)는 12.2%(69,641명)에서 15.4%(103,485명)로 증가함
- (2020년 6월 기준) 노령인구는 15.4%이며, 성별로는 여성 17.9%, 남성 12.9%로 여성의 노령인구 비율이 더 높음. 하지만 성별 노령인구 2010년 대비 여성은 38.0%(43,346명 → 59,812명), 남성은 66.1%(26,295명 → 43,673명) 증가하여 남성 노령인구가 더 많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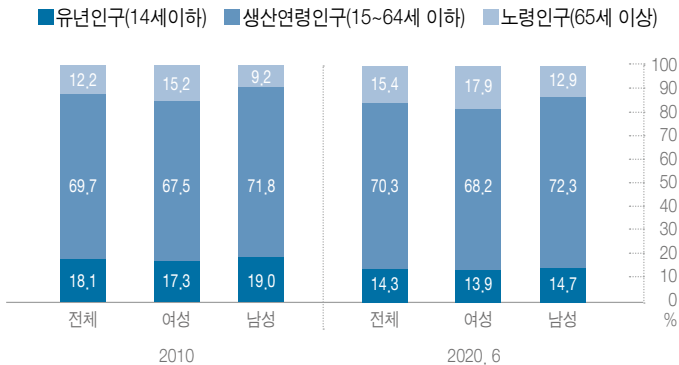


그림 1-7

연령 3계층별 비율  
2010, 2020. 6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02

## 인구와 가족

### 연령별 인구

# 유년부양비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노령화지수 107.6%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의 여파로 유년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유년부양비는 2010년 26.0%에서 2020년 6월말 2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는 17.5%에서 21.9%로, 노령화지수는 67.3%에서 10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1-8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0~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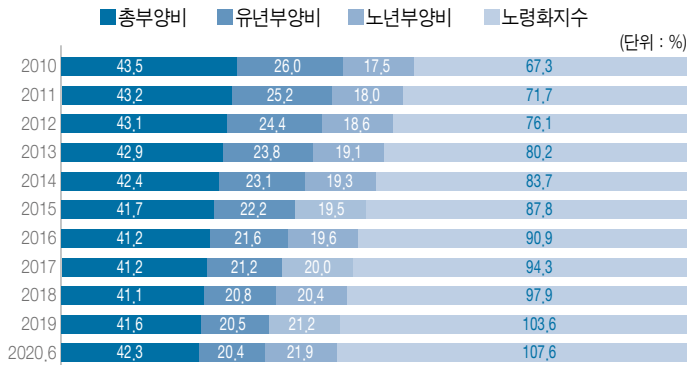


표 1-6

연령 3계층별  
인구비율,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0~2020.6

| 구분     | 계       | %   | 유년인구<br>(14세이하) |      | 생산연령인구<br>(15~64세) |      | 노령인구<br>(65세이상) |      | 총<br>부양비 | 유소년<br>부양비 | 노년<br>부양비 | 노령화<br>지수 |
|--------|---------|-----|-----------------|------|--------------------|------|-----------------|------|----------|------------|-----------|-----------|
|        |         |     | 명               | %    | 명                  | %    | 명               | %    |          |            |           |           |
| 2010   | 571,255 | 100 | 103,551         | 18.1 | 398,063            | 69.7 | 69,641          | 12.2 | 43.5     | 26.0       | 17.5      | 67.3      |
| 2011   | 576,156 | 100 | 101,220         | 17.6 | 402,356            | 69.8 | 72,580          | 12.6 | 43.2     | 25.2       | 18.0      | 71.7      |
| 2012   | 583,713 | 100 | 99,758          | 17.1 | 408,030            | 69.9 | 75,925          | 13.0 | 43.1     | 24.4       | 18.6      | 76.1      |
| 2013   | 593,806 | 100 | 98,936          | 16.7 | 415,565            | 70.0 | 79,305          | 13.4 | 42.9     | 23.8       | 19.1      | 80.2      |
| 2014   | 607,346 | 100 | 98,461          | 16.2 | 426,474            | 70.2 | 82,411          | 13.6 | 42.4     | 23.1       | 19.3      | 83.7      |
| 2015   | 624,395 | 100 | 97,811          | 15.7 | 440,691            | 70.6 | 85,893          | 13.8 | 41.7     | 22.2       | 19.5      | 87.8      |
| 2016   | 641,597 | 100 | 98,117          | 15.3 | 454,291            | 70.8 | 89,189          | 13.9 | 41.2     | 21.6       | 19.6      | 90.9      |
| 2017   | 657,083 | 100 | 98,727          | 15.0 | 465,239            | 70.8 | 93,117          | 14.2 | 41.2     | 21.2       | 20.0      | 94.3      |
| 2018   | 667,191 | 100 | 98,261          | 14.7 | 472,723            | 70.9 | 96,207          | 14.4 | 41.1     | 20.8       | 20.4      | 97.9      |
| 2019   | 670,989 | 100 | 96,889          | 14.4 | 473,703            | 70.6 | 100,397         | 15.0 | 41.6     | 20.5       | 21.2      | 103.6     |
| 2020.6 | 671,316 | 100 | 96,206          | 14.3 | 471,625            | 70.3 | 103,485         | 15.4 | 42.3     | 20.4       | 21.9      | 10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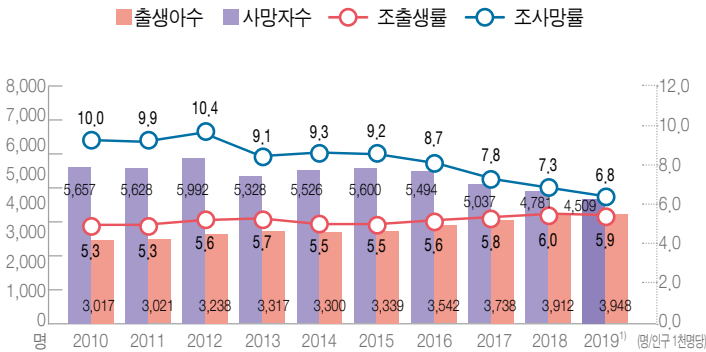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 1천명당 조출생률 6.8명, 조사망률 5.9명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감소함

- (2019년 기준) 출생아 수는 4,509명, 사망자수는 3,948명이며, 2010년 대비 출생아 수는 20.3%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는 30.9% 증가함
- (201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조출생률은 6.8명, 조사망률은 5.9명으로 지난 2010년 보다 조출생률은 3.2명 감소한 반면 조사망률은 0.6명 증가함
- 출생과 사망 간 격차의 감소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인구증가 및 감소의 원인은 외부 유입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



(단위 : 명, 명/인구 1천명당)

| 구분                 | 출생건수  | 조출생률 | 사망건수  | 조사망률 |
|--------------------|-------|------|-------|------|
| 2010               | 5,657 | 10.0 | 3,017 | 5.3  |
| 2011               | 5,628 | 9.9  | 3,021 | 5.3  |
| 2012               | 5,992 | 10.4 | 3,238 | 5.6  |
| 2013               | 5,328 | 9.1  | 3,317 | 5.7  |
| 2014               | 5,526 | 9.3  | 3,300 | 5.5  |
| 2015               | 5,600 | 9.2  | 3,339 | 5.5  |
| 2016               | 5,494 | 8.7  | 3,542 | 5.6  |
| 2017               | 5,037 | 7.8  | 3,738 | 5.8  |
| 2018               | 4,781 | 7.3  | 3,912 | 6.0  |
| 2019 <sup>1)</sup> | 4,509 | 6.8  | 3,948 | 5.9  |

# 03

## 인구와 가족 출생과 사망

그림 1-9

### 출생과 사망 2010~2019

표 1-7

### 출생과 사망 2010~2019

주

1)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03

## 인구와 가족

### 출생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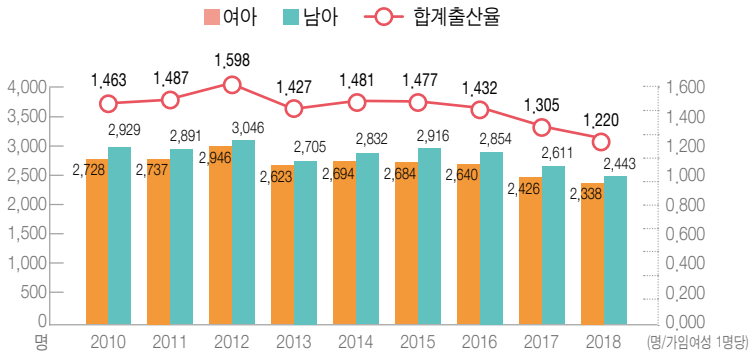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1.220명 여아 2,338명, 남아 2,443명 출생

최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초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출생아 수는 여아 2,338명, 남아 2,443명으로 남아가 105명 더 많고, 출생성비 역시 지속적으로 남아가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220명으로 2010년보다 0.243명 감소하였고, 최근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았던 2012년(1.598명) 보다 0.378명 감소함
- 등락을 반복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최근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10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2010~2018



(단위 : 명, 명/가임여성 1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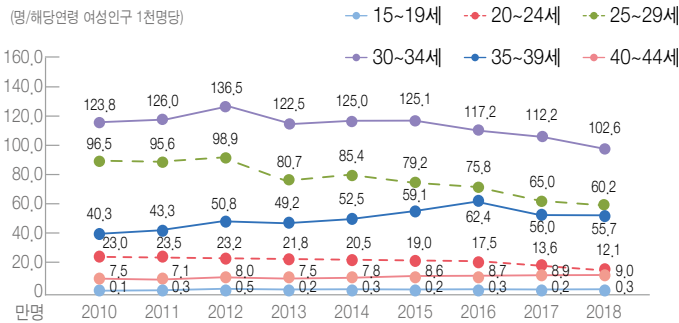
| 구분   | 계     | 여아    | 남아    | 합계출산율 |
|------|-------|-------|-------|-------|
| 2010 | 5,657 | 2,728 | 2,929 | 1.463 |
| 2011 | 5,628 | 2,737 | 2,891 | 1.487 |
| 2012 | 5,992 | 2,946 | 3,046 | 1.598 |
| 2013 | 5,328 | 2,623 | 2,705 | 1.427 |
| 2014 | 5,526 | 2,694 | 2,832 | 1.481 |
| 2015 | 5,600 | 2,684 | 2,916 | 1.477 |
| 2016 | 5,494 | 2,640 | 2,854 | 1.432 |
| 2017 | 5,037 | 2,426 | 2,611 | 1.305 |
| 2018 | 4,781 | 2,338 | 2,443 | 1.220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30대 초반 출산율 최다(102.6명) 2010년 대비 고령출산(35~44세) 증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가장 높지만 2010년 대비 해당 구간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18년 기준)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102.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29세가 60.2명, 35~39세가 5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34세와 25~29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지만 최근 이 연령대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음. 2010년 대비 35~39세(38.2% 증가)와 40~44세(20.0% 증가)의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35세 미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명/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 구분   | 모의 연령  |        |        |        |        |        |        |
|------|--------|--------|--------|--------|--------|--------|--------|
|      | 15-19세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49세 |
| 2010 | 2.6    | 23.0   | 96.5   | 123.8  | 40.3   | 7.5    | 0.1    |
| 2011 | 2.1    | 23.5   | 95.6   | 126.0  | 43.3   | 7.1    | 0.3    |
| 2012 | 2.5    | 23.2   | 98.9   | 136.5  | 50.8   | 8.0    | 0.5    |
| 2013 | 2.6    | 21.8   | 80.7   | 122.5  | 49.2   | 7.5    | 0.2    |
| 2014 | 2.7    | 20.5   | 85.4   | 125.0  | 52.5   | 7.8    | 0.3    |
| 2015 | 2.7    | 19.0   | 79.2   | 125.1  | 59.1   | 8.6    | 0.2    |
| 2016 | 2.3    | 17.5   | 75.8   | 117.2  | 62.4   | 8.7    | 0.3    |
| 2017 | 1.6    | 13.6   | 65.0   | 112.2  | 56.0   | 8.9    | 0.2    |
| 2018 | 1.1    | 12.1   | 60.2   | 102.6  | 55.7   | 9.0    | 0.3    |

# 03 인구와 가족 출생과 사망

그림 1-11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18

표 1-9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04

## 인구와 가족

###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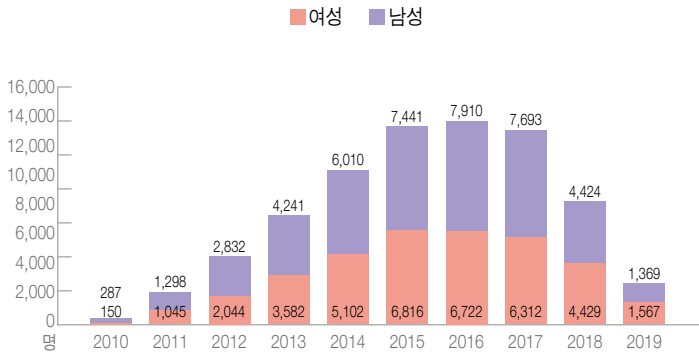
## 2016년 이후 순이동 인구 감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 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대비 5,917명 감소하여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함

- (2019년 기준) 순이동 인구는 2,936명(여성 1,567명, 남성 1,369명)이며, 순이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비해 11,696명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 인구는 지난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전년대비 감소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627명 감소, 2018년에는 5,152명, 2019년에는 5,917명 감소함

그림 1-12

순이동 인구  
2010~201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단위 : 명)

| 구분   | 성별 | 총전입     | 총전출    | 시도내<br>이동<br>-시군구내 | 시도내<br>이동<br>-시군구간<br>전입 | 시도내<br>이동<br>-시군구간<br>전출 | 시도간<br>전입 | 시도간<br>전출 | 순이동    |
|------|----|---------|--------|--------------------|--------------------------|--------------------------|-----------|-----------|--------|
| 2010 | 계  | 77,224  | 76,787 | 47,076             | 8,431                    | 8,431                    | 21,717    | 21,280    | 437    |
|      | 여성 | 38,281  | 38,131 | 23,830             | 4,231                    | 4,231                    | 10,220    | 10,070    | 150    |
|      | 남성 | 38,943  | 38,656 | 23,246             | 4,200                    | 4,200                    | 11,497    | 11,210    | 287    |
| 2011 | 계  | 82,708  | 80,365 | 51,183             | 8,663                    | 8,663                    | 22,862    | 20,519    | 2,343  |
|      | 여성 | 41,311  | 40,266 | 26,188             | 4,324                    | 4,324                    | 10,799    | 9,754     | 1,045  |
|      | 남성 | 41,397  | 40,099 | 24,995             | 4,339                    | 4,339                    | 12,063    | 10,765    | 1,298  |
| 2012 | 계  | 79,501  | 74,625 | 46,142             | 8,138                    | 8,138                    | 25,221    | 20,345    | 4,876  |
|      | 여성 | 39,262  | 37,218 | 23,388             | 4,157                    | 4,157                    | 11,717    | 9,673     | 2,044  |
|      | 남성 | 40,239  | 37,407 | 22,754             | 3,981                    | 3,981                    | 13,504    | 10,672    | 2,832  |
| 2013 | 계  | 88,851  | 81,028 | 52,950             | 7,657                    | 7,657                    | 28,244    | 20,421    | 7,823  |
|      | 여성 | 43,961  | 40,379 | 26,968             | 3,812                    | 3,812                    | 13,181    | 9,599     | 3,582  |
|      | 남성 | 44,890  | 40,649 | 25,982             | 3,845                    | 3,845                    | 15,063    | 10,822    | 4,241  |
| 2014 | 계  | 92,508  | 81,396 | 51,091             | 8,582                    | 8,582                    | 32,835    | 21,723    | 11,112 |
|      | 여성 | 45,346  | 40,244 | 25,787             | 4,244                    | 4,244                    | 15,315    | 10,213    | 5,102  |
|      | 남성 | 47,162  | 41,152 | 25,304             | 4,338                    | 4,338                    | 17,520    | 11,510    | 6,010  |
| 2015 | 계  | 97,580  | 83,323 | 50,522             | 8,514                    | 8,514                    | 38,544    | 24,287    | 14,257 |
|      | 여성 | 47,608  | 40,792 | 25,226             | 4,070                    | 4,070                    | 18,312    | 11,496    | 6,816  |
|      | 남성 | 49,972  | 42,531 | 25,296             | 4,444                    | 4,444                    | 20,232    | 12,791    | 7,441  |
| 2016 | 계  | 106,825 | 92,193 | 57,293             | 9,151                    | 9,151                    | 40,381    | 25,749    | 14,632 |
|      | 여성 | 51,773  | 45,051 | 28,512             | 4,472                    | 4,472                    | 18,789    | 12,067    | 6,722  |
|      | 남성 | 55,052  | 47,142 | 28,781             | 4,679                    | 4,679                    | 21,592    | 13,682    | 7,910  |
| 2017 | 계  | 105,027 | 91,022 | 53,590             | 9,685                    | 9,685                    | 41,752    | 27,747    | 14,005 |
|      | 여성 | 50,299  | 43,987 | 26,360             | 4,660                    | 4,660                    | 19,279    | 12,967    | 6,312  |
|      | 남성 | 54,728  | 47,035 | 27,230             | 5,025                    | 5,025                    | 22,473    | 14,780    | 7,693  |
| 2018 | 계  | 104,202 | 95,349 | 55,390             | 9,623                    | 9,623                    | 39,189    | 30,336    | 8,853  |
|      | 여성 | 50,679  | 46,250 | 27,386             | 4,645                    | 4,645                    | 18,648    | 14,219    | 4,429  |
|      | 남성 | 53,523  | 49,099 | 28,004             | 4,978                    | 4,978                    | 20,541    | 16,117    | 4,424  |
| 2019 | 계  | 94,966  | 92,030 | 50,739             | 9,069                    | 9,069                    | 35,158    | 32,222    | 2,936  |
|      | 여성 | 45,842  | 44,275 | 24,698             | 4,293                    | 4,293                    | 16,851    | 15,284    | 1,567  |
|      | 남성 | 49,124  | 47,755 | 26,041             | 4,776                    | 4,776                    | 18,307    | 16,938    | 1,369  |

표 1-10

순이동 인구  
2010~2019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05

## 인구와 가족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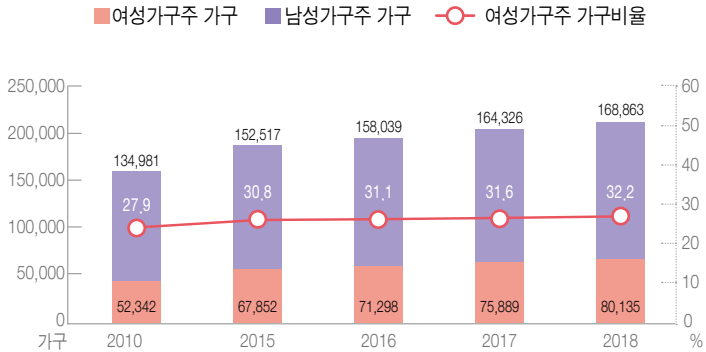
### 여성 가구주 80,135 가구(32.2%), 연평균 5.5% 성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가구주 가구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총 248,998가구 중 여성 가구주 80,135가구, 남성 가구주 168,863가구로 여성 가구주 비율은 32.2%임
- 여전히 남성 가구주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2010년 이후 여성 가구주는 연평균 5.5%, 남성 가구주는 연평균 2.8% 성장하여 여성가구주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림 1-13

가구주 가구  
2010, 2015~2018



(단위 : 가구, %)

| 구분   | 총 가구 수  | 여성가구주 가구 | 남성가구주 가구 |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
|------|---------|----------|----------|------------|
| 2010 | 187,323 | 52,342   | 134,981  | 27.9       |
| 2015 | 220,369 | 67,852   | 152,517  | 30.8       |
| 2016 | 229,337 | 71,298   | 158,039  | 31.1       |
| 2017 | 240,215 | 75,889   | 164,326  | 31.6       |
| 2018 | 248,998 | 80,135   | 168,863  | 32.2       |

표 1-11

가구주 가구  
2010,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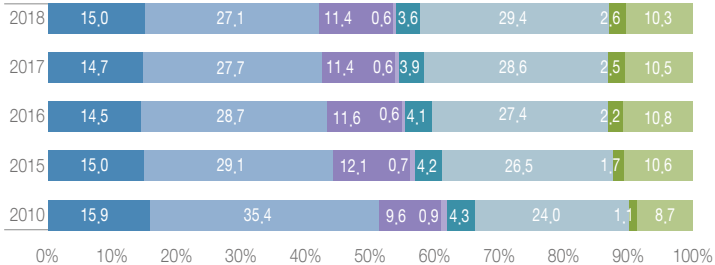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주류적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1인 가구 29.4%

부부+자녀 형태 감소와 함께 1인 가구가 주류적 형태로 자리잡았으며, 비혈연, 한부모, 기타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2018 기준) 1인 가구 29.4%, 부부+자녀 가구 27.1%, 부부 가구 15.0%, 한부모 가구 11.4% 등의 순으로 1인 가구형태가 주류적 형태로 부상함
- 2010년 대비 조손가구는 16.3% 감소하였고, 부부+자녀 가구는 1.7% 증가에 그친 반면 1인 가구는 62.8%, 비친족 가구 212.5%, 기타 가구는 58.0% 증가함
- 부부+자녀 형태의 가족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 ■ 조손 ■ 부부+부모+(자녀) ■ 1인가구 ■ 비혈연 ■ 기타



(단위 : 가구, %)

| 구분         | 2010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
|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가구수     | 비율    |
| 계          | 187,323 | 100.0 | 220,369 | 100.0 | 229,337 | 100  | 240,215 | 100  | 248,998 | 100.0 |
| 부부 가구      | 29,762  | 15.9  | 33,157  | 15.0  | 33,259  | 14.5 | 35,430  | 14.7 | 37,407  | 15.0  |
| 부부+자녀 가구   | 66,338  | 35.4  | 64,163  | 29.1  | 65,758  | 28.7 | 66,531  | 27.7 | 67,466  | 27.1  |
| 한부모 가구     | 18,048  | 9.6   | 26,689  | 12.1  | 26,709  | 11.6 | 27,426  | 11.4 | 28,280  | 11.4  |
| 모+자녀       | 13,591  | 7.3   | 18,924  | 8.6   | 19,031  | 8.3  | 19,583  | 8.2  | 20,269  | 8.1   |
| 부+자녀       | 4,457   | 2.4   | 7,765   | 3.5   | 7,678   | 3.3  | 7,843   | 3.3  | 8,011   | 3.2   |
| 조부모+손자녀 가구 | 1,721   | 0.9   | 1,513   | 0.7   | 1,381   | 0.6  | 1,399   | 0.6  | 1,440   | 0.6   |
| 부부+부모+(자녀) | 8,145   | 4.3   | 9,248   | 4.2   | 9,508   | 4.1  | 9,350   | 3.9  | 8,956   | 3.6   |
| 부부+부모      | 1,587   | 0.8   | 1,675   | 0.8   | 1,796   | 0.8  | 1,785   | 0.7  | 1,845   | 0.7   |
| 부부+자녀+부모   | 6,558   | 3.5   | 7,573   | 3.4   | 7,712   | 3.4  | 7,565   | 3.1  | 7,111   | 2.9   |
| 1인 가구      | 44,996  | 24    | 58,446  | 26.5  | 62,841  | 27.4 | 68,738  | 28.6 | 73,250  | 29.4  |
| 비혈연 가구     | 2,108   | 1.1   | 3,721   | 1.7   | 5,101   | 2.2  | 6,075   | 2.5  | 6,588   | 2.6   |
| 기타 가구      | 16,205  | 8.7   | 23,432  | 10.6  | 24,780  | 10.8 | 25,266  | 10.5 | 25,611  | 10.3  |

그림 1-14

가족형태별 가구  
2010, 2015~2018

표 1-12

가족형태별 가구  
2010, 2015~2018

주

- 1) 일반가구 대상 자료임
- 2) 부모에는 양친 또는 편부모만 있는 경우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05

## 인구와 가족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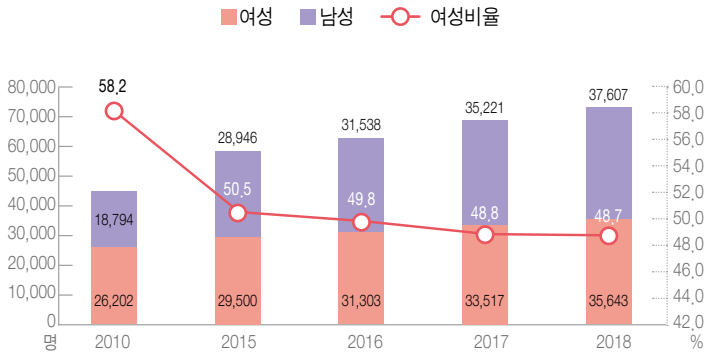
### 1인 가구 중 여성 48.7%, 남성 51.3% 남성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짐

- (2018년 기준) 1인 가구는 여성 35,643 가구, 남성 37,607 가구로 총 73,250 가구이며, 이 중 남성비율은 51.3%임
- 2010년 대비 여성 1인 가구는 36.0%, 남성 1인 가구는 100.1% 증가하여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6년부터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를 앞지름

그림 1-15

1인 가구의  
성별 구성  
2010, 2015~2018



(단위 : 가구, %)

| 구분   | 전체     |     | 여성     |      | 남성     |      |
|------|--------|-----|--------|------|--------|------|
|      | 계      | 비율  | 계      | 비율   | 계      | 비율   |
| 2010 | 44,996 | 100 | 26,202 | 58.2 | 18,794 | 41.8 |
| 2015 | 58,446 | 100 | 29,500 | 50.5 | 28,946 | 49.5 |
| 2016 | 62,841 | 100 | 31,303 | 49.8 | 31,538 | 50.2 |
| 2017 | 68,738 | 100 | 33,517 | 48.8 | 35,221 | 51.2 |
| 2018 | 73,250 | 100 | 35,643 | 48.7 | 37,607 | 51.3 |

표 1-13

1인 가구의  
성별 구성  
2010, 2015~2018

주  
일반가구 가구원 대상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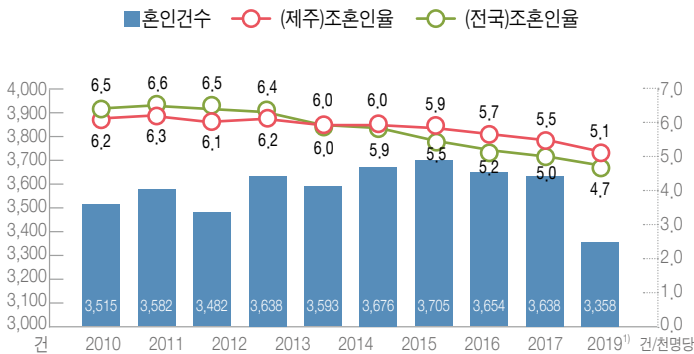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낮아지는 혼인율, 인구 1천명당 5.1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전국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혼인건수는 3,358건으로 전년보다 280건 감소하였으며, 2010년 대비 4.5% 증가함
- (2019년 기준)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5.1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하였지만 전국 수준보다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 감소폭은 전국수준보다 낮아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단위 : 건, 건/인구 1천명당)

| 구분                 | 전국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혼인건수    | 조혼인율 | 혼인건수    | 조혼인율 |
| 2010               | 326,104 | 6.5  | 3,515   | 6.2  |
| 2011               | 329,087 | 6.6  | 3,582   | 6.3  |
| 2012               | 327,073 | 6.5  | 3,482   | 6.1  |
| 2013               | 322,807 | 6.4  | 3,638   | 6.2  |
| 2014               | 305,507 | 6.0  | 3,593   | 6.0  |
| 2015               | 302,828 | 5.9  | 3,676   | 6.0  |
| 2016               | 281,635 | 5.5  | 3,705   | 5.9  |
| 2017               | 264,455 | 5.2  | 3,654   | 5.7  |
| 2018               | 257,622 | 5.0  | 3,638   | 5.5  |
| 2019 <sup>1)</sup> | 239,159 | 4.7  | 3,358   | 5.1  |

그림 1-16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2010~2019

표 1-14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2010~2019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06

## 인구와 가족

### 가족형성

## 결혼지연 현상 지속, 초혼 연령 여성 31세, 남성 34세

제주특별자치도의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연령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보다 결혼지연 현상이 더 두드러짐

- (2019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이 31.0세, 남성이 34.0세로 남성의 초혼연령이 3.1세 더 많고,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초혼시기가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과 비교하여 여성은 1.8세, 남성은 2.0세 증가함. 2014년 이후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결혼지연 현상은 전국보다 더 두드러짐

그림 1-17

평균 초혼연령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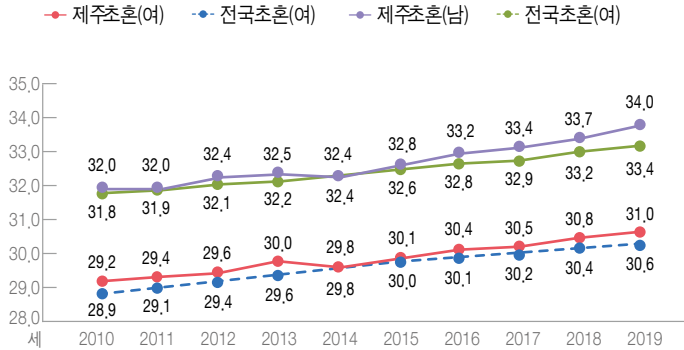


표 1-15

평균 초혼연령  
2010~2019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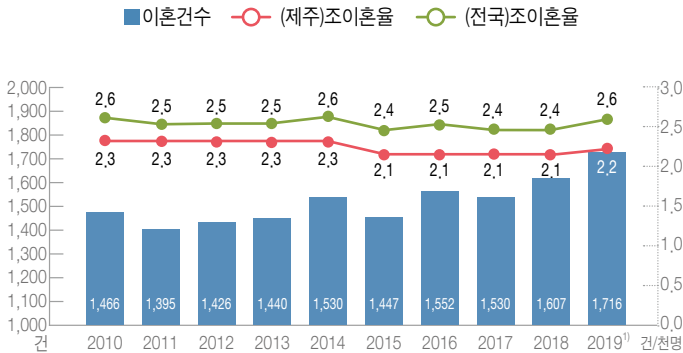
| 구분   | 전국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 2010 | 28.9 | 31.8 | 29.2    | 32.0 |
| 2011 | 29.1 | 31.9 | 29.4    | 32.0 |
| 2012 | 29.4 | 32.1 | 29.6    | 32.4 |
| 2013 | 29.6 | 32.2 | 30.0    | 32.5 |
| 2014 | 29.8 | 32.4 | 29.8    | 32.4 |
| 2015 | 30.0 | 32.6 | 30.1    | 32.8 |
| 2016 | 30.1 | 32.8 | 30.4    | 33.2 |
| 2017 | 30.2 | 32.9 | 30.5    | 33.4 |
| 2018 | 30.4 | 33.2 | 30.8    | 33.7 |
| 2019 | 30.6 | 33.4 | 31.0    | 34.0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전국수준보다 높은 조이혼률, 인구 1천명당 2.6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수준보다 높고, 전년보다 인구 1천명당 0.2건 증가함

- (2019년 기준) 이혼건수는 1,716건으로 전년보다 109건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17.1% 증가함
- 조이혼율은 인구 1천명당 2.6건으로 전년보다 0.2건 늘어 2010년, 2014년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함



(단위 : 건, 건/인구 1천명당)

| 구분                 | 전국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이혼건수    | 조이혼율 | 이혼건수    | 조이혼율 |
| 2010               | 116,858 | 2.3  | 1,466   | 2.6  |
| 2011               | 114,284 | 2.3  | 1,395   | 2.5  |
| 2012               | 114,316 | 2.3  | 1,426   | 2.5  |
| 2013               | 115,292 | 2.3  | 1,440   | 2.5  |
| 2014               | 115,510 | 2.3  | 1,530   | 2.6  |
| 2015               | 109,153 | 2.1  | 1,447   | 2.4  |
| 2016               | 107,328 | 2.1  | 1,552   | 2.5  |
| 2017               | 106,032 | 2.1  | 1,530   | 2.4  |
| 2018               | 108,684 | 2.1  | 1,607   | 2.4  |
| 2019 <sup>1)</sup> | 110,831 | 2.2  | 1,716   | 2.6  |

그림 1-18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2010~2019

표 1-16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2010~2019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06

## 인구와 가족

### 가족형성

# 외국인과의 혼인

## 여성 49건(1.7%), 남성 374건(11.1%)

외국인과의 혼인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남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은 여성 49건(여성 전체혼인 중 1.7%), 남성 374건(남성 전체혼인 중 11.1%)로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 2012년 이후 감소하던 남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여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림 1-19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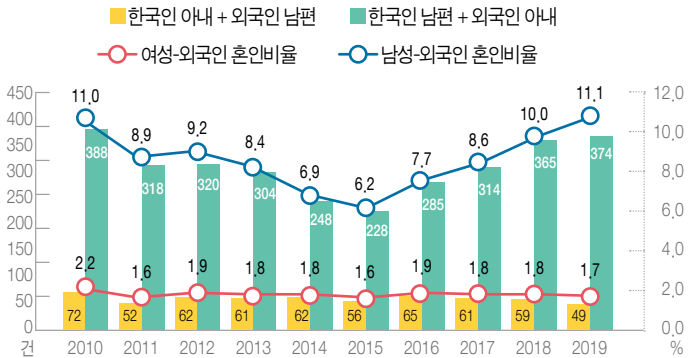


표 1-17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  
2010~2019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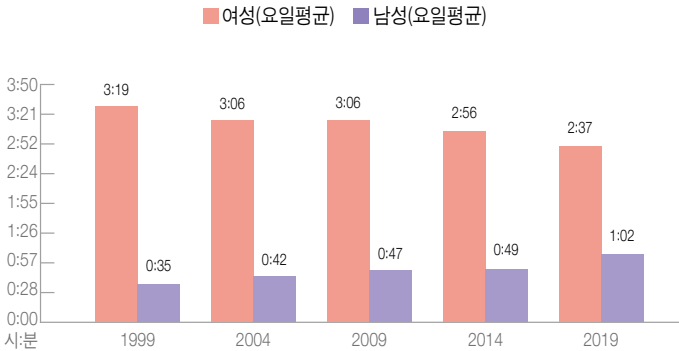
| 구분   | 아내    |                 |             | 남편    |                 |          |
|------|-------|-----------------|-------------|-------|-----------------|----------|
|      | 전체혼인  |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혼인비율 | 전체혼인  |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 외국인 혼인비율 |
| 2010 | 3,253 | 72              | 2.2         | 3,515 | 388             | 11.0     |
| 2011 | 3,323 | 52              | 1.6         | 3,582 | 318             | 8.9      |
| 2012 | 3,273 | 62              | 1.9         | 3,482 | 320             | 9.2      |
| 2013 | 3,450 | 61              | 1.8         | 3,638 | 304             | 8.4      |
| 2014 | 3,388 | 62              | 1.8         | 3,593 | 248             | 6.9      |
| 2015 | 3,395 | 56              | 1.6         | 3,676 | 228             | 6.2      |
| 2016 | 3,343 | 65              | 1.9         | 3,705 | 285             | 7.7      |
| 2017 | 3,325 | 61              | 1.8         | 3,654 | 314             | 8.6      |
| 2018 | 3,220 | 59              | 1.8         | 3,638 | 365             | 10.0     |
| 2019 | 2,937 | 49              | 1.7         | 3,358 | 374             | 11.1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시간 35분 더 많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음

-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3시간 19분에서 2019년 2시간 37분으로 42분 감소하였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99년 35분에서 2019년 1시간 2분으로 27분 증가함
- (2019년 기준) 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1시간 35분으로 성별 참여시간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음



(단위 : 시:분)

| 구분   | 요일평균 전체 |              |      | 여성    |              |      | 남성    |              |      |
|------|---------|--------------|------|-------|--------------|------|-------|--------------|------|
|      | 가정 관리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소계   | 가정 관리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소계   | 가정 관리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 소계   |
| 1999 | 1:31    | 0:28         | 1:59 | 2:36  | 0:43         | 3:19 | 0:23  | 0:12         | 0:35 |
| 2004 | 1:28    | 0:28         | 1:56 | 2:24  | 0:42         | 3:06 | 0:29  | 0:13         | 0:42 |
| 2009 | 1:25    | 0:33         | 1:58 | 2:20  | 0:46         | 3:06 | 0:29  | 0:18         | 0:47 |
| 2014 | 1:29    | 0:25         | 1:54 | 2:18  | 0:38         | 2:56 | 0:37  | 0:12         | 0:49 |
| 2019 | 1:29    | 0:21         | 1:50 | 2:08  | 0:29         | 2:37 | 0:50  | 0:12         | 1:02 |

그림 1-20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  
1999~2019, 5년 주기

표 1-18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  
(1999~2019, 5년 주기)

주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음식 준비, 빨래, 청소 등)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자녀, 배우자, 부모, 동거하지 않는 가족 돌보기 등) 시간의 합이며, 요일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07

## 인구와 가족

### 가족생활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 여성 60.3%, 남성 6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여성 60.3%, 남성 62.0%로 남성이 조금 높고, 지난 2010년에 비해 여성은 6.0%p 증가하였고, 남성은 1.9%p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2018년 기준 여성은 전국(54.4%) 보다 5.9%p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국(59.0%) 보다 3.0%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21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201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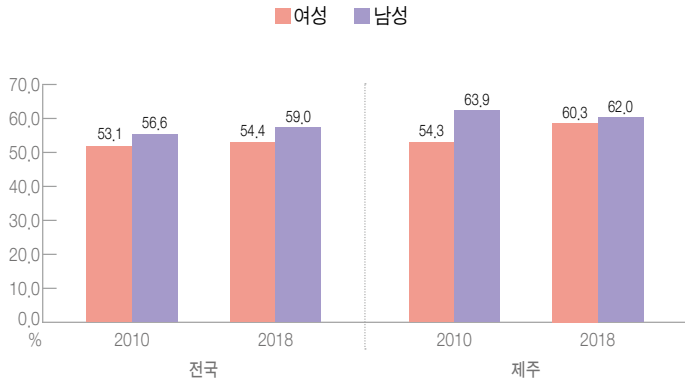


표 1-19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2010~2018, 2년 주기

주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단위: %)

| 구분 |      | 여성   |      |     | 남성   |      |     |
|----|------|------|------|-----|------|------|-----|
|    |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 전국 | 2010 | 53.1 | 42.3 | 4.6 | 56.6 | 39.6 | 3.8 |
|    | 2012 | 54.2 | 41.0 | 4.8 | 58.2 | 37.9 | 3.9 |
|    | 2014 | 53.8 | 41.5 | 4.7 | 56.6 | 39.6 | 3.9 |
|    | 2016 | 54.7 | 41.0 | 4.4 | 58.2 | 37.9 | 3.7 |
|    | 2018 | 54.4 | 42.6 | 3.0 | 59.0 | 38.3 | 2.7 |
| 제주 | 2010 | 54.3 | 41.1 | 4.6 | 63.9 | 34.6 | 1.5 |
|    | 2012 | 63.8 | 32.1 | 4.2 | 63.6 | 33.1 | 3.3 |
|    | 2014 | 54.3 | 42.7 | 3.0 | 58.2 | 38.7 | 3.1 |
|    | 2016 | 57.2 | 38.5 | 3.6 | 57.0 | 38.8 | 3.3 |
|    | 2018 | 60.3 | 37.5 | 2.2 | 62.0 | 36.2 | 1.8 |

## 결혼필요 인식, 여성 46.5% 남성 58.0%

결혼필요 인식은 낮아진 반면 동거와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 (2018년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46.5%, 남성 58.0%,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 60.7%, 남성 64.8%로 결혼에 대한 필요인식은 낮은 반면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52.8%, 남성 53.8%으로 남성의 가족관계 우선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여성 74.7%, 남성 72.3%로 결혼관련 가치관 중 가장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 40.1%, 남성 36.7%,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70.8%, 남성 74.5%로 다른 결혼관련 가치관에 비해 가장 보수적임. 다만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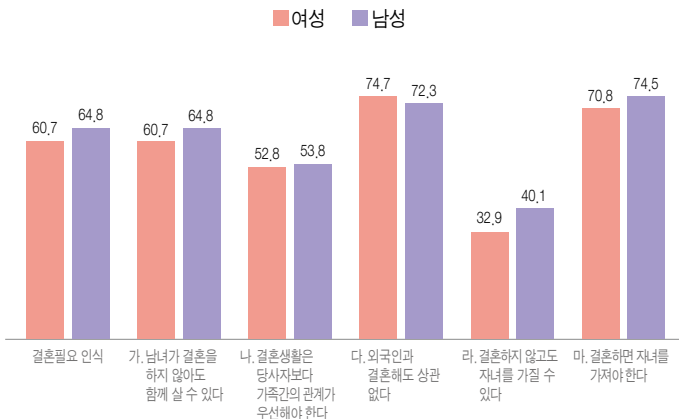


그림 1-22

결혼가치관 비교  
2018

주

- 1) '결혼필요 인식'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 2) 가-마 :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08

## 인구와 가족 가족가치관

표 1-20

결혼가치관 변화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명, %)

| 구분 | 결혼필요 인식 | 가.                       | 나.                            | 다.             | 라.                   | 마.              |      |
|----|---------|--------------------------|-------------------------------|----------------|----------------------|-----------------|------|
|    |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
| 여성 | 2010    | 65,7                     | 46,5                          | 49,3           | 66,7                 | 30,1            | -    |
|    | 2012    | 59,8                     | 52,5                          | 51,4           | 68,5                 | 27,5            | -    |
|    | 2014    | 51,3                     | 49,3                          | 46,0           | 66,4                 | 29,0            | -    |
|    | 2016    | 48,6                     | 54,1                          | 48,3           | 74,5                 | 32,9            | -    |
|    | 2018    | 46,5                     | 60,7                          | 52,8           | 74,7                 | 36,7            | 70,8 |
| 남성 | 2010    | 75,8                     | 50,7                          | 52,3           | 68,0                 | 31,9            | -    |
|    | 2012    | 72,2                     | 57,7                          | 50,3           | 71,3                 | 31,6            | -    |
|    | 2014    | 67,8                     | 57,6                          | 48,5           | 67,8                 | 36,4            | -    |
|    | 2016    | 58,9                     | 59,6                          | 52,0           | 77,3                 | 37,4            | -    |
|    | 2018    | 58,0                     | 64,8                          | 53,8           | 72,3                 | 40,1            | 74,5 |

주

- 1) '결혼필요 인식'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 2) 가-마 :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약간 동의한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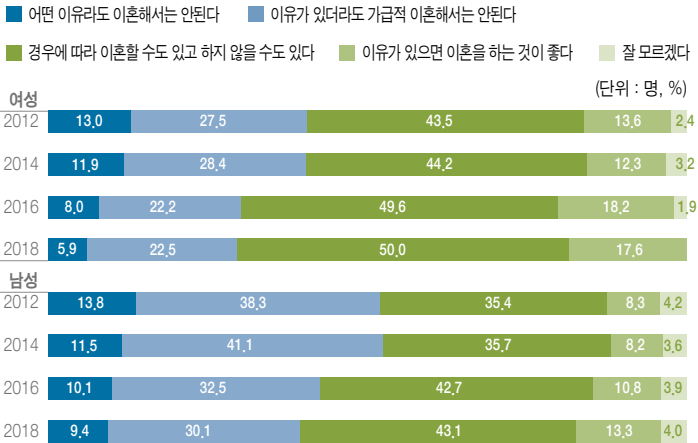
통계청, 「사회조사」



##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 감소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감소하고 있음. 다만 남성이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임

-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남녀 모두 감소(여성 13.0%→5.9%, 남성 13.8%→9.4%)하였고,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남녀 모두 증가(여성 13.6%→17.6%, 남성 8.3%→13.3%)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 구분 |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 이유가 있더라도 기금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 잘 모르겠다 |     |
|----|-------------------|------------------------|------------------------------|----------------------|--------|-----|
| 여성 | 2010              | 17.4                   | 33.1                         | 40.1                 | 8.2    | 1.1 |
|    | 2012              | 13.0                   | 27.5                         | 43.5                 | 13.6   | 2.4 |
|    | 2014              | 11.9                   | 28.4                         | 44.2                 | 12.3   | 3.2 |
|    | 2016              | 8.0                    | 22.2                         | 49.6                 | 18.2   | 1.9 |
|    | 2018              | 5.9                    | 22.5                         | 50.0                 | 17.6   | 4.0 |
| 남성 | 2010              | 22.4                   | 39.0                         | 28.3                 | 6.1    | 4.2 |
|    | 2012              | 13.8                   | 38.3                         | 35.4                 | 8.3    | 4.2 |
|    | 2014              | 11.5                   | 41.1                         | 35.7                 | 8.2    | 3.6 |
|    | 2016              | 10.1                   | 32.5                         | 42.7                 | 10.8   | 3.9 |
|    | 2018              | 9.4                    | 30.1                         | 43.1                 | 13.3   | 4.0 |

그림 1-2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2~2018, 2년 주기

표 1-21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2~2018, 2년 주기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49.5% 가족구성원 중 부모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에게 72.9%

부모 부양책임이 '가족과 정부·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가족 책임이라는 인식은 감소경향을 보인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증가함

- (2018년 기준) 부모 부양책임은 '가족과 정부·사회' 49.5%, '가족' 31.2%, '스스로 해결' 15.4%, '정부·사회' 3.9% 순으로 나타남. 부모부양 책임의 주체 중 '가족'은 지난 2012년(43.6%)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다른 부양주체에 비해 '가족과 정부·사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가족 구성원 중 부모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아들과 딸)'에게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최근 능력있는 자녀의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부모의 부양책임은 '모든 자녀' 72.9%, 능력있는 자식 17.4%, 장남·만며느리 5.3%, 아들·며느리 4.0%, 딸·사위 0.5%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의 부양책임이 모든 자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장남 또는 만며느리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능력있는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1-24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2012~2018, 2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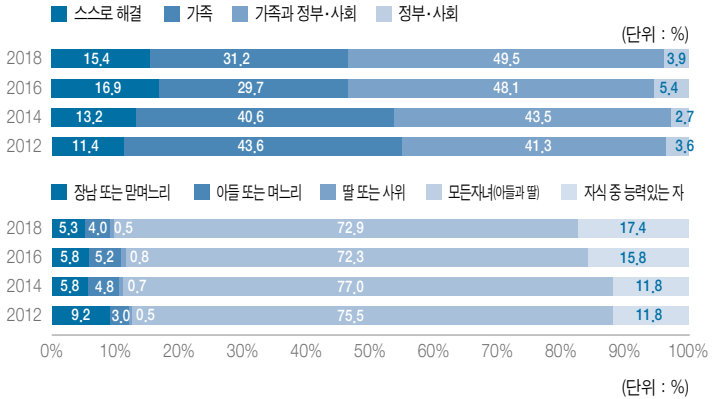


표 1-22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2012~2018, 2년 주기

| 구분       | 계    | 부양책임 주체 |      |           |       |     | 기타  |
|----------|------|---------|------|-----------|-------|-----|-----|
|          |      | 스스로 해결  | 가족   | 가족과 정부·사회 | 정부·사회 | 기타  |     |
| 부모의 부양책임 | 2012 | 100     | 11.4 | 43.6      | 41.3  | 3.6 | -   |
|          | 2014 | 100     | 13.2 | 40.6      | 43.5  | 2.7 | -   |
|          | 2016 | 100     | 16.9 | 29.7      | 48.1  | 5.4 | -   |
|          | 2018 | 100     | 15.4 | 31.2      | 49.5  | 3.9 | 0.1 |

| 구분            | 계    | 부양책임 대상    |           |         |               |             |      |
|---------------|------|------------|-----------|---------|---------------|-------------|------|
|               |      | 장남 또는 만며느리 | 아들 또는 며느리 | 딸 또는 사위 | 모든 자녀 (아들과 딸) | 자식 중 능력있는 자 |      |
| 가족 구성원 중 부양책임 | 2012 | 100        | 9.2       | 3.0     | 0.5           | 75.5        | 11.8 |
|               | 2014 | 100        | 5.8       | 4.8     | 0.7           | 77.0        | 11.8 |
|               | 2016 | 100        | 5.8       | 5.2     | 0.8           | 72.3        | 15.8 |
|               | 2018 | 100        | 5.3       | 4.0     | 0.5           | 72.9        | 17.4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Ⅱ 보육과 교육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이

## 보육과 교육

### 보육현황

## 영유아 인구 4.9%(여아 비율 48.5%)

저출산의 여파로 영유아(0~5세)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4.9%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20년 6월 기준) 0~5세까지의 영유아 인구는 32,712명이며, 이 중 여아는 15,856명으로 영유아 인구의 48.5%를 차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인구비율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9%로 전국(4.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2-1

영유아(0~5세) 인구  
2010, 2015~2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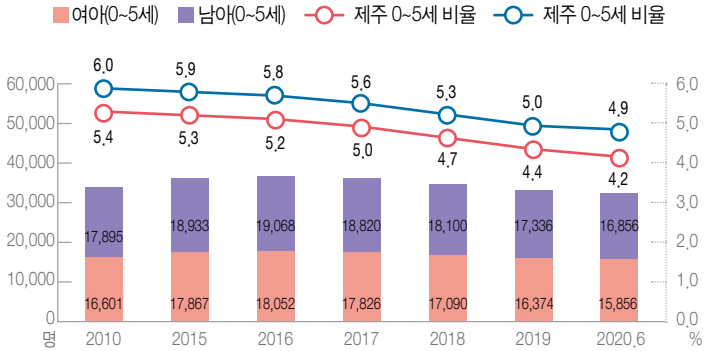


표 2-1

영유아(0~5세) 인구  
2010~2020.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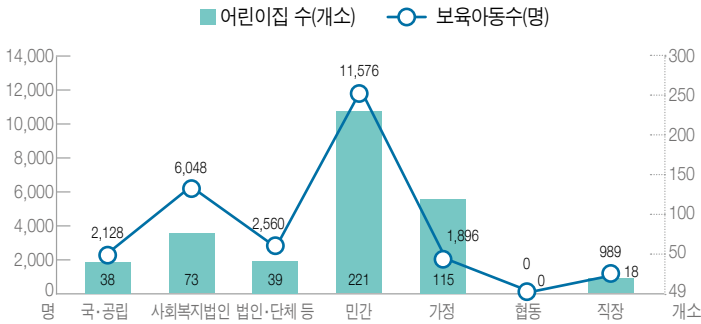
| 구분     | 0~5세   | 여아     | 남아     | 여아성비 | 0~5세 비율 |     |
|--------|--------|--------|--------|------|---------|-----|
|        |        |        |        |      | 제주      | 전국  |
| 2010   | 34,496 | 16,601 | 17,895 | 48.1 | 6.0     | 5.4 |
| 2011   | 34,791 | 16,813 | 17,978 | 48.3 | 6.0     | 5.5 |
| 2012   | 35,433 | 17,255 | 18,178 | 48.7 | 6.1     | 5.5 |
| 2013   | 35,380 | 17,242 | 18,138 | 48.7 | 6.0     | 5.4 |
| 2014   | 35,968 | 17,499 | 18,469 | 48.7 | 5.9     | 5.3 |
| 2015   | 36,800 | 17,867 | 18,933 | 48.6 | 5.9     | 5.3 |
| 2016   | 37,120 | 18,052 | 19,068 | 48.6 | 5.8     | 5.2 |
| 2017   | 36,646 | 17,826 | 18,820 | 48.6 | 5.6     | 5.0 |
| 2018   | 35,190 | 17,090 | 18,100 | 48.6 | 5.3     | 4.7 |
| 2019   | 33,986 | 16,501 | 17,485 | 48.6 | 5.1     | 4.4 |
| 2020.6 | 32,712 | 15,856 | 16,856 | 48.5 | 4.9     | 4.2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인구통계」

## 어린이집 504개소 (민간 221개소 43.8%, 가정 115개소 22.8%)

어린이집은 주로 민간어린이집(43.8%)과 가정어린이집(22.8%)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은 총 504개소로, 민간 221개소(43.8%), 가정 115개소(22.8%), 사회복지법인 73개소(14.5%), 법인·단체 등 39개소(7.7%), 국·공립 38개소(7.5%), 직장 18개소(3.6%)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 수는 민간 11,576명(45.9%), 사회복지법인 6,048명(24.0%), 법인·단체 등 2,560명(10.2%), 가정 1,896명(7.5%), 국·공립 2,128명(8.4%), 직장 989명(3.9%)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서귀포시 정방동임



(단위 :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 가정 어린이집 | 협동 어린이집 | 직장  |
|------|----|--------|-----------|-------------|--------------|---------|---------|---------|-----|
| 어린이집 | 개소 | 504    | 38        | 73          | 39           | 221     | 115     | 0       | 18  |
|      | 비율 | 100.0  | 7.5       | 14.5        | 7.7          | 43.8    | 22.8    | 0.0     | 3.6 |
| 보육아동 | 명  | 25,197 | 2,128     | 6,048       | 2,560        | 11,576  | 1,896   | 0       | 989 |
|      | 비율 | 100.0  | 8.4       | 24          | 10.2         | 45.9    | 7.5     | 0.0     | 3.9 |

# 이

## 보육과 교육 보육현황

그림 2-2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2019

표 2-2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 2019

주  
2019년 12월말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상세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서귀포시 정방동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

# 이 보육과 교육 보육현황

## 특수보육 어린이집 영아전담 15개소, 장애아 전문 3개소

특수보육 유형은 시간연장 유형이 가장 많으며, 장애아 전문과 24시간 유형이 가장 적음

- 특수보육 유형은 영아전담 15개소(3세 미만 영아 295명), 장애아 전문 4개소(장애아동 103명), 장애아통합 48개소(장애아동 126명), 방과후 23개소(방과후 현원 33명), 시간연장 259개소(시간연장 현원 508명), 24시간 2개소(24시간 현원 7명)로 나타남

그림 2-3

###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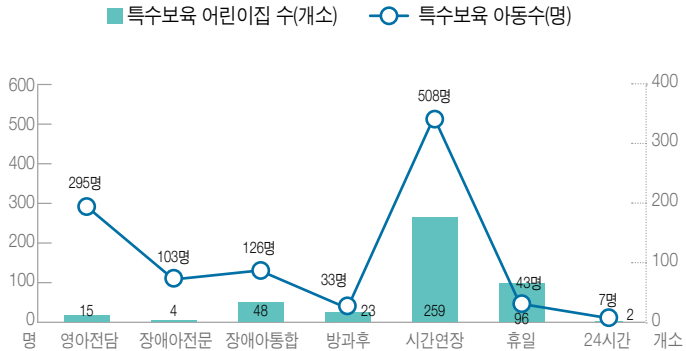


표 2-3

###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 2019

(단위 :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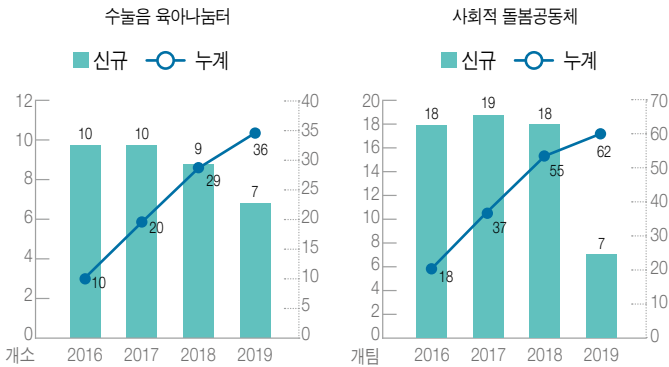
| 구분          |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    | 시간연장    | 휴일    | 24시간    |
|-------------|----------|-------|-------|--------|---------|-------|---------|
| 특수보육 어린이집 수 | 15       | 4     | 48    | 23     | 259     | 96    | 2       |
| 보육아동 현원     | 700      | 152   | 3,150 | 1,881  | 14,174  | 4,587 | 117     |
| 특수보육 아동수    | 3세 미만 영아 | 장애아동  | 장애아동  | 방과후 현원 | 시간연장 현원 | 휴일현원  | 24시간 현원 |
|             | 295      | 103   | 126   | 33     | 508     | 43    | 7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수눔음 육아나눔터 36개소, 돌봄 공동체 62개 팀(399가족)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어린이집,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성과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주형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형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아파트 관리동,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아동을 돌보는 “수눔음 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과 지역주민이 팀을 조성해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자발적 자조모임 형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인 “제주형 사회적 돌봄 공동체” 사업이 있음
- (2019년 기준) 수눔음 육아나눔터는 총 36개소가 운영되었고, 사회적 돌봄 공동체는 62개 팀이 조직되어 399가족이 참여함



(단위 : 개소, 개팀, 가족)

| 구분   | 수눔음 육아나눔터 |    | 사회적 돌봄공동체 |    |      |     |
|------|-----------|----|-----------|----|------|-----|
|      |           |    | 참여팀       |    | 참여가족 |     |
|      | 신규        | 누계 | 신규        | 누계 | 신규   | 누계  |
| 2016 | 10        | 10 | 18        | 18 | 95   | 95  |
| 2017 | 10        | 20 | 19        | 37 | 162  | 257 |
| 2018 | 9         | 29 | 18        | 55 | 108  | 365 |
| 2019 | 7         | 36 | 7         | 62 | 34   | 399 |

# 이

## 보육과 교육 보육현황

그림 2-4

### 제주형 돌봄 공동체 현황 2016~2019

표 2-4

### 제주형 돌봄 공동체 현황 2016~2019

자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내부자료

# 02

## 보육과 교육

### 보육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24,933명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 (2019년 기준) 보육료 지원 아동은 24,933명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6년에는 전년대비 82명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57명 감소, 2018년에는 720명 감소, 2019년에는 1,297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보육료 지원 대상별로는 영아(만 0~2세, 법정포함) 12,387명, 장애아 264명, 다문화 961명, 누리(만 3~5세) 11,317명, 방과후 4명으로 영아와 누리대상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보육료 지원 현황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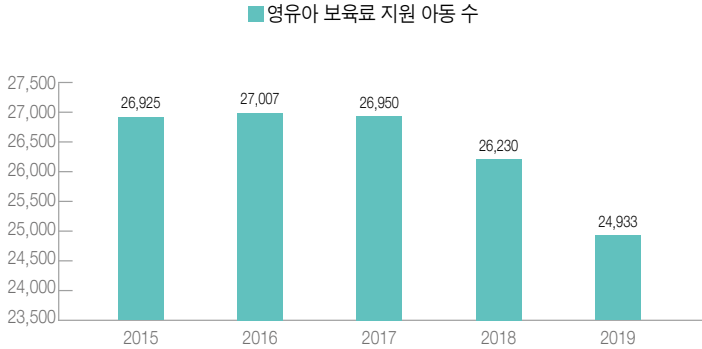


표 2-5

보육료 지원 현황  
2015~2019

(단위 : 명)

| 연도   | 보육료 지원 아동수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단위:명) |     |     |        |     |
|------|------------|-----------------------|-----|-----|--------|-----|
|      |            | 영아                    | 장애아 | 다문화 | 누리     | 방과후 |
| 2015 | 26,925     | 14,060                | 229 | 713 | 11,893 | 30  |
| 2016 | 27,007     | 13,297                | 245 | 907 | 12,537 | 21  |
| 2017 | 26,950     | 13,326                | 234 | 909 | 12,465 | 16  |
| 2018 | 26,230     | 12,918                | 231 | 936 | 12,136 | 9   |
| 2019 | 24,933     | 12,387                | 264 | 961 | 11,317 | 4   |

**주**  
보육료 지원 인원은 각 자격별 아동의 총 수(기분보육료 부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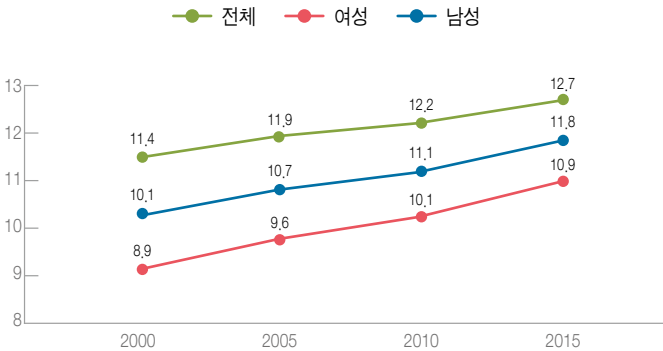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평균 교육년수 11.8년(여성 10.9년, 남성 12.7년)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여전히 적지만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평균 교육년수는 11.8년이며, 성별로는 여성 10.9년, 남성 12.7년으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1.8년 더 적음
- 평균 교육년수는 지난 2000년 보다 여성은 2년, 남성은 1.3년 증가하여 여성의 교육년수가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격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년)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
| 2000 | 10.1 | 8.9  | 11.4 |
| 2005 | 10.7 | 9.6  | 11.9 |
| 2010 | 11.1 | 10.1 | 12.2 |
| 2015 | 11.8 | 10.9 | 12.7 |

그림 2-6

평균 교육년수  
2000~2015,  
5년 주기

표 2-6

평균 교육년수  
2000~2015,  
5년 주기

자료

여성가족부, 「2019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03

## 보육과 교육 교육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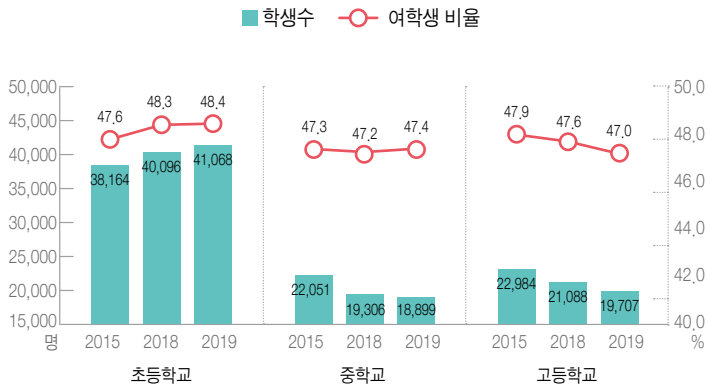
초등학교 41,068명(여성 48.4%),  
중학교 18,899명(여성 47.4%), 고등학생 19,707명(여성 47.0%)

### 초등학생 수는 증가하였지만 중·고등학생 수는 감소함

- (2019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41,068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8.4%로 남학생이 더 많음. 초등학생 수는 2015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이 증가함
- (2019년 기준) 중학생 수는 18,899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7.4%로 남학생이 더 많음. 중학생 수는 2015년 대비 14.3% 감소함
- (2019년 기준) 고등학생 수는 19,707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7.0%로 남학생이 더 많음. 고등학생 수는 2015년 대비 14.3%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이 감소함

그림 2-7

###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2015, 2018~2019



(단위: 명, %)

표 2-7

###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2015~2019

| 구분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
|      | 전체 학생 수 | 여성     | 여성 비율 | 전체 학생 수 | 여성     | 여성 비율 | 전체 학생 수 | 여성     | 여성 비율 |
| 2015 | 38,164  | 18,174 | 47.6  | 22,051  | 10,425 | 47.3  | 22,984  | 10,999 | 47.9  |
| 2016 | 38,272  | 18,280 | 47.8  | 20,629  | 9,663  | 46.8  | 22,936  | 11,072 | 48.3  |
| 2017 | 38,901  | 18,699 | 48.1  | 19,603  | 9,209  | 47.0  | 22,422  | 10,768 | 48.0  |
| 2018 | 40,096  | 19,357 | 48.3  | 19,306  | 9,115  | 47.2  | 21,088  | 10,035 | 47.6  |
| 2019 | 41,068  | 19,895 | 48.4  | 18,899  | 8,963  | 47.4  | 19,707  | 9,267  | 47.0  |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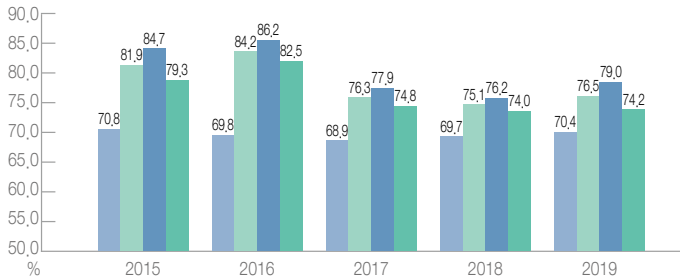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대학진학률 76.5%(여성 79.0%, 남성 74.2%)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더 높았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진학률 차이는 점차 감소해 왔으나 2019년에는 그 차이가 다시 증가함

- (2019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6.5%로 전년보다 1.5%p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79.0%, 남학생 74.2%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4.7%p 더 높음
- 대학진학률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학생의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음. 2015년 이후 감소하던 성별격차는 2019년에 다시 증가함

■ 전국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학생 ■ (제주)남학생



(단위 : 명, %)

| 구분   | 졸업자   |       |       | 진학자   |       |       | 진학률  |      |      |
|------|-------|-------|-------|-------|-------|-------|------|------|------|
|      | 계     | 여학생   | 남학생   | 계     | 여학생   | 남학생   | 계    | 여학생  | 남학생  |
| 2015 | 7,683 | 3,671 | 4,012 | 6,293 | 3,110 | 3,183 | 81.9 | 84.7 | 79.3 |
| 2016 | 6,039 | 2,724 | 3,315 | 5,083 | 2,347 | 2,736 | 84.2 | 86.2 | 82.5 |
| 2017 | 7,458 | 3,590 | 3,868 | 5,691 | 2,797 | 2,894 | 76.3 | 77.9 | 74.8 |
| 2018 | 7,419 | 3,555 | 3,864 | 5,568 | 2,708 | 2,860 | 75.1 | 76.2 | 74.0 |
| 2019 | 7,651 | 3,718 | 3,933 | 5,856 | 2,936 | 2,920 | 76.5 | 79.0 | 74.2 |

그림 2-8

대학교 진학률  
2015~2019

표 2-8

대학교 진학률  
2015~201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년도)」

# 03

## 보육과 교육 교육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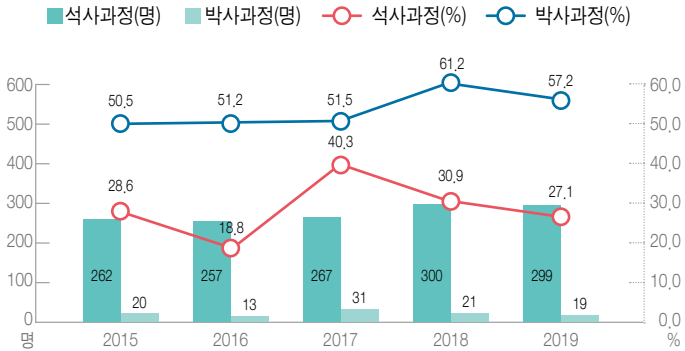
### 여성 졸업자 비율 석사과정 57.2%, 박사과정 27.1%

최근 5년간 여성 석사과정 졸업자는 남성보다 많은 반면 박사과정 졸업자는 여전히 적음

- (2019년 기준) 석사과정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57.2%로 2015년보다 6.7%p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간 남성보다 더 많은 졸업자를 배출함
- (2019년 기준) 박사과정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27.1%로 가장 여성비율이 높았던 2017년보다 13.1%p 감소하였으며, 석사과정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크게 낮음

그림 2-9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  
2015~2019



(단위 : 명, %)

표 2-9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  
2015~2019

| 구분   | 석사과정 |     |      | 박사과정 |    |      |
|------|------|-----|------|------|----|------|
|      | 계    | 여성  | 여성비율 | 계    | 여성 | 여성비율 |
| 2015 | 519  | 262 | 50.5 | 70   | 20 | 28.6 |
| 2016 | 502  | 257 | 51.2 | 69   | 13 | 18.8 |
| 2017 | 518  | 267 | 51.5 | 77   | 31 | 40.3 |
| 2018 | 490  | 300 | 61.2 | 68   | 21 | 30.9 |
| 2019 | 523  | 299 | 57.2 | 70   | 19 | 2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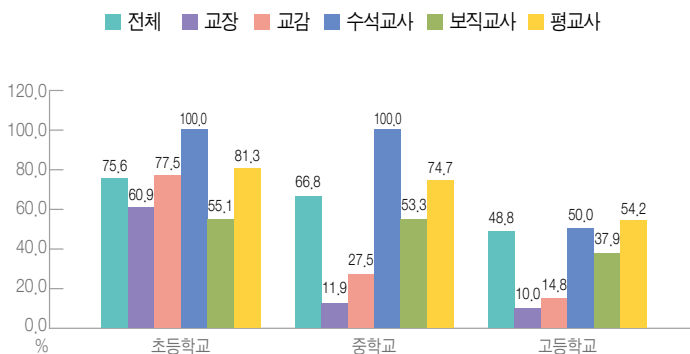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직위 및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성교원의 비율 감소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으며, 교장과 교감의 여성비율은 직급이 높을수록 감소함

- (2019년 기준) 학교급별 여성교원의 비율은 초등학교 75.6%, 중학교 66.8%, 고등학교 48.8%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성교원의 비율이 감소함
- (2019년 기준) 학교급별 교장의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60.9%, 중학교 11.9%, 고등학교 10.0%이며, 교감은 초등학교 77.5%, 중학교 27.5%, 고등학교 14.8%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교원의 비율이 감소함



(단위: 명, %)

| 구분   |      | 교장   | 교감   | 수석교사  | 보직교사 | 평교사   | 계     |
|------|------|------|------|-------|------|-------|-------|
| 초등학교 | 교원수  | 110  | 120  | 8     | 523  | 2,079 | 2,840 |
|      | 여성   | 67   | 93   | 8     | 288  | 1,690 | 2,146 |
|      | 여성비율 | 60.9 | 77.5 | 100.0 | 55.1 | 81.3  | 75.6  |
| 중학교  | 교원수  | 42   | 40   | 5     | 362  | 1,089 | 1,538 |
|      | 여성   | 5    | 11   | 5     | 193  | 814   | 1,028 |
|      | 여성비율 | 11.9 | 27.5 | 100.0 | 53.3 | 74.7  | 66.8  |
| 고등학교 | 교원수  | 30   | 27   | 2     | 383  | 1,147 | 1,589 |
|      | 여성   | 3    | 4    | 1     | 145  | 622   | 775   |
|      | 여성비율 | 10.0 | 14.8 | 50.0  | 37.9 | 54.2  | 48.8  |

# 04

## 보육과 교육 교육여건

### 그림 2-10

####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2019

### 표 2-10

####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2019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 통계연보」

# 04

## 보육과 교육 교육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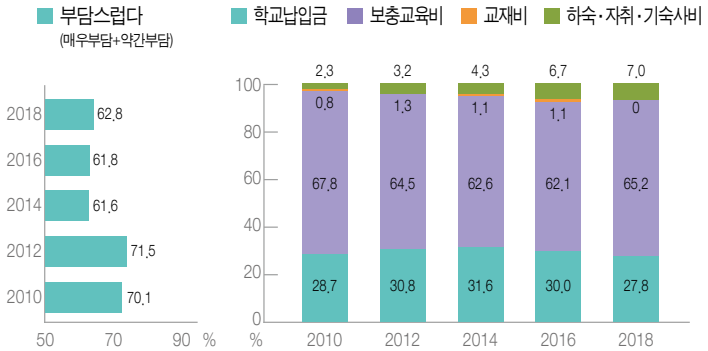
###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62.8% 보충교육비(65.2%) 가장 부담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다소 높고,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보충교육비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교육비 부담인식은 '부담스럽다' 62.8%로 지난 2016년보다 1.0%p 증가했지만 2010년보다는 7.3%p 감소함
- (2018년 기준) 가장 부담이 되는 교육비 요인은 보충교육비 65.2%, 학교납입금 27.8%, 하숙·자취·기숙사비 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1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표 2-11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  
2010~2018,  
2년 주기

| 구분   | 교육비 부담인식 | 부담요인  |        |        |     |            |     |
|------|----------|-------|--------|--------|-----|------------|-----|
|      |          | 계     | 학교 납입금 | 보충 교육비 | 교재비 | 하숙·자취·기숙사비 | 기타  |
| 2010 | 70.1     | 100.0 | 28.7   | 67.8   | 0.8 | 2.3        | 0.4 |
| 2012 | 71.5     | 100.0 | 30.8   | 64.5   | 1.3 | 3.2        | 0.1 |
| 2014 | 61.6     | 100.0 | 31.6   | 62.6   | 1.1 | 4.3        | 0.4 |
| 2016 | 61.8     | 100.0 | 30     | 62.1   | 1.1 | 6.7        | 0.1 |
| 2018 | 62.8     | 100.0 | 27.8   | 65.2   | -   | 7.0        | 0.1 |

주

- 1)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임
- 2) 교육비 부담인식은 "매우 부담"과 "약간 부담" 응답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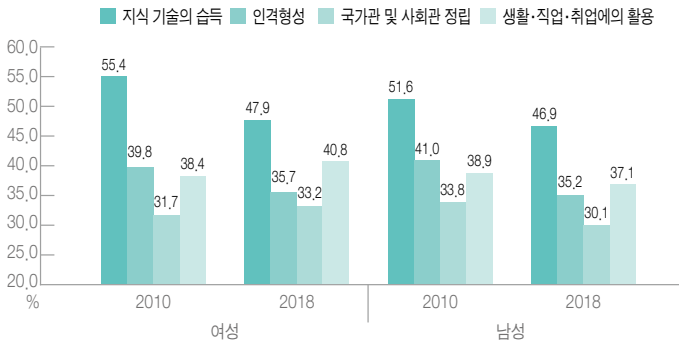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학교교육이 '지식 기술의 습득'에 효과적, 여성 47.9%, 남성 46.9%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식기술의 습득'임

- (2018년 기준)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인식은 '지식기술의 습득' 47.4%(여성 47.9%, 남성 46.9%), '인격형성' 35.4%(여성 35.7%, 남성 35.2%),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39.0%(여성 40.8%, 남성 37.1%),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31.7%(여성 33.2%, 남성 30.1%)로 '지식기술의 습득'에 대한 효과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효과 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2010년에 비해 여성은 '지식기술의 습득', '도덕성 발달 및 인성함양' 분야만 감소한 반면 남성은 모든 분야에서 감소함



(단위: %)

| 구분   | 지식 기술의 습득 | 인격형성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      |
|------|-----------|------|--------------|---------------|------|
| 2010 | 전체        | 53.6 | 40.4         | 32.7          | 38.6 |
|      | 여성        | 55.4 | 39.8         | 31.7          | 38.4 |
|      | 남성        | 51.6 | 41.0         | 33.8          | 38.9 |
| 2012 | 전체        | 46.2 | 34.1         | 27.8          | 36.5 |
|      | 여성        | 49.0 | 38.0         | 29.0          | 37.8 |
|      | 남성        | 43.1 | 30.1         | 26.6          | 35.1 |
| 2014 | 전체        | 49.7 | 38.6         | 32.8          | 42.0 |
|      | 여성        | 49.6 | 38.7         | 33.2          | 42.5 |
|      | 남성        | 49.9 | 38.6         | 32.3          | 41.5 |
| 2016 | 전체        | 46.2 | 35.6         | 33.6          | 34.4 |
|      | 여성        | 47.6 | 34.3         | 33.0          | 34.4 |
|      | 남성        | 44.9 | 36.9         | 34.1          | 34.5 |
| 2018 | 전체        | 47.4 | 35.4         | 31.7          | 39.0 |
|      | 여성        | 47.9 | 35.7         | 33.2          | 40.8 |
|      | 남성        | 46.9 | 35.2         | 30.1          | 37.1 |

# 05

## 보육과 교육 교육효과

### 그림 2-12

#### 교육효과 인식 2010, 2018

### 표 2-12

#### 교육효과 인식 2010~2018, 2년 주기

주

- 1) 2010년 조사는 15세 이상, 2012년 이후 조사는 13세 이상 대상임
- 2) 교육효과는 각 분야에 대한 '매우 효과 있음'과 '약간 효과 있음' 응답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05

## 보육과 교육 교육효과

###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여성 37.9%, 남성 41.7%

#### 전공과 직업의 일치에 관한 평가는 불일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불일치'가 40.0%(여성 37.9%, 남성 41.7%)로 가장 높고, '일치'는 29.3%(여성 32.7%, 남성 26.7%)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공과 직업의 일치 인식은 여성이 더 높고, 불일치 인식은 남성이 더 높음
-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인식은 지난 2010년보다 여성은 15.0%p, 남성은 7.5%p 감소함

그림 2-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1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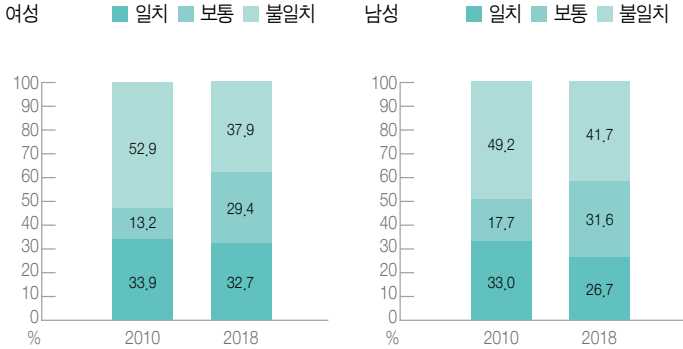


표 2-13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10, 2018, 2년 주기

주

1) 2010년 조사는 15세 이상, 2012년 이후 조사는 13세 이상 대상임

2) 일치 = '매우 일치' + '일치하는 편', 불일치 = '관개없는 편' + '전혀 관계없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구분   |    | 일치   | 보통   | 불일치  | 계     |
|------|----|------|------|------|-------|
| 2010 | 전체 | 33.5 | 15.7 | 50.9 | 100.0 |
|      | 여성 | 33.9 | 13.2 | 52.9 | 100.0 |
|      | 남성 | 33.0 | 17.7 | 49.2 | 100.0 |
| 2012 | 전체 | 34.1 | 25.7 | 40.2 | 100.0 |
|      | 여성 | 37.2 | 28.7 | 34.1 | 100.0 |
|      | 남성 | 31.7 | 23.3 | 45.0 | 100.0 |
| 2014 | 전체 | 32.0 | 28.4 | 39.6 | 100.0 |
|      | 여성 | 32.0 | 26.1 | 41.9 | 100.0 |
|      | 남성 | 31.9 | 30.4 | 37.8 | 100.0 |
| 2016 | 전체 | 26.5 | 21.8 | 51.7 | 100.0 |
|      | 여성 | 31.4 | 19.6 | 49.0 | 100.0 |
|      | 남성 | 22.4 | 23.6 | 54.0 | 100.0 |
| 2018 | 전체 | 29.3 | 30.6 | 40.0 | 100.0 |
|      | 여성 | 32.7 | 29.4 | 37.9 | 100.0 |
|      | 남성 | 26.7 | 31.6 | 41.7 | 100.0 |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Ⅲ 경제활동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01

## 경제활동

### 경제활동 인구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2.9%, 성별격차 여전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성별격차는 여전함

- (2019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39만명(여성 17만7천명, 남성 21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명 감소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3만6천명 더 적음
- (2019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9.9%(여성 62.9%, 남성 77.0%)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14.1%p 더 낮음

그림 3-1

경제활동참가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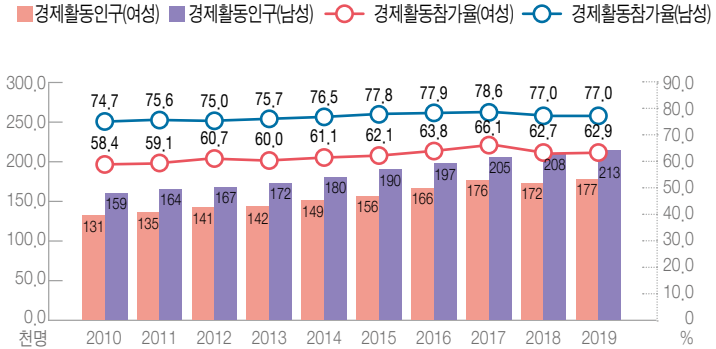


표 3-1

경제활동참가율  
2010~2019

(단위: 천명, %)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전국      |      |      |
|------|---------|-----|-----|---------|------|------|---------|------|------|
|      | 경제활동인구  |     |     |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참가율 |      |      |
|      | 계       | 여성  | 남성  | 계       | 여성   | 남성   | 계       | 여성   | 남성   |
| 2010 | 289     | 131 | 159 | 66.3    | 58.4 | 74.7 | 61.1    | 49.6 | 73.2 |
| 2011 | 299     | 135 | 164 | 67.1    | 59.1 | 75.6 | 61.3    | 49.8 | 73.4 |
| 2012 | 307     | 141 | 167 | 67.7    | 60.7 | 75.0 | 61.6    | 50.1 | 73.5 |
| 2013 | 315     | 142 | 172 | 67.7    | 60.0 | 75.7 | 61.7    | 50.3 | 73.5 |
| 2014 | 329     | 149 | 180 | 68.7    | 61.1 | 76.5 | 62.7    | 51.5 | 74.4 |
| 2015 | 346     | 156 | 190 | 69.8    | 62.1 | 77.8 | 62.8    | 51.9 | 74.1 |
| 2016 | 363     | 166 | 197 | 70.8    | 63.8 | 77.9 | 62.9    | 52.2 | 74.0 |
| 2017 | 382     | 176 | 205 | 72.3    | 66.1 | 78.6 | 63.2    | 52.7 | 74.1 |
| 2018 | 379     | 172 | 208 | 69.8    | 62.7 | 77.0 | 63.1    | 52.9 | 73.7 |
| 2019 | 390     | 177 | 213 | 69.9    | 62.9 | 77.0 | 63.3    | 53.5 | 73.5 |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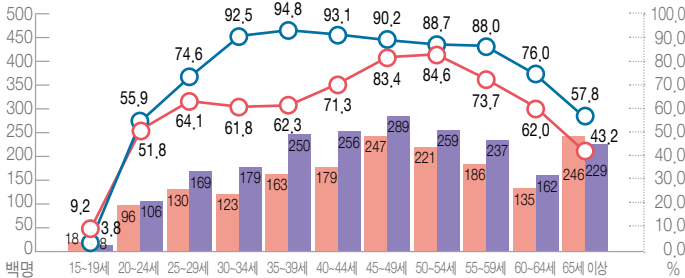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 고용률 격차 최대

## 남녀의 고용률 격차는 3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기준) 성별 고용률은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더 높음
-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고용률 최고점 역시 여성은 50~54세(84.6%)와 45~49세(83.4%)인 반면 남성은 35~39세(94.8%)와 40~44세(93.1%), 30~34세(92.5%)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지만 고용률은 14.7%p 더 낮아 65세 이상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여성) ■ 경제활동인구(남성) ○ 고용률(여성) ○ 고용률(남성)



(단위 : 백명, %)

| 구분     | 경제활동인구 |     | 고용률  |      |
|--------|--------|-----|------|------|
|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 15-19세 | 18     | 8   | 9.2  | 3.8  |
| 20-24세 | 96     | 106 | 51.8 | 55.9 |
| 25-29세 | 130    | 169 | 64.1 | 74.6 |
| 30-34세 | 123    | 179 | 61.8 | 92.5 |
| 35-39세 | 163    | 250 | 62.3 | 94.8 |
| 40-44세 | 179    | 256 | 71.3 | 93.1 |
| 45-49세 | 247    | 289 | 83.4 | 90.2 |
| 50-54세 | 221    | 259 | 84.6 | 88.7 |
| 55-59세 | 186    | 237 | 73.7 | 88.0 |
| 60-64세 | 135    | 162 | 62.0 | 76.0 |
| 65세 이상 | 246    | 229 | 43.2 | 57.8 |

# 01

## 경제활동 경제활동 인구

그림 3-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019

표 3-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201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 02

## 경제활동

### 경력단절 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11.3%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음

- (2019년 기준) 15~54세 기혼 여성은 11만5천명, 비취업 여성은 3만1천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1만3천명으로 15~54세 기혼 여성의 11.3%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15~54세 기혼 여성과 비취업 여성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1천명 증가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전년과 같은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3

경력단절 여성 규모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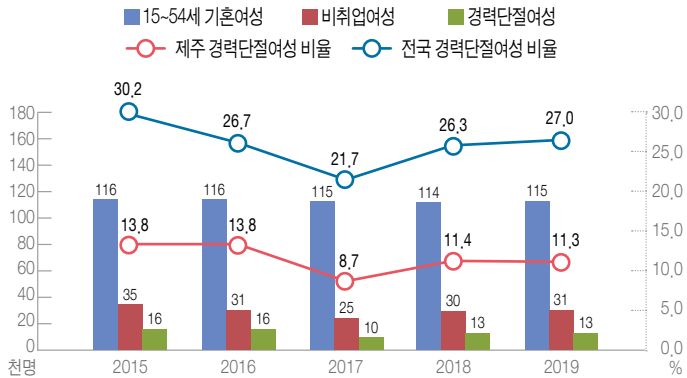


표 3-3

경력단절 여성 규모  
2015~2019

주

1)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여성 중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말함

2) 2015년 인구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변경됨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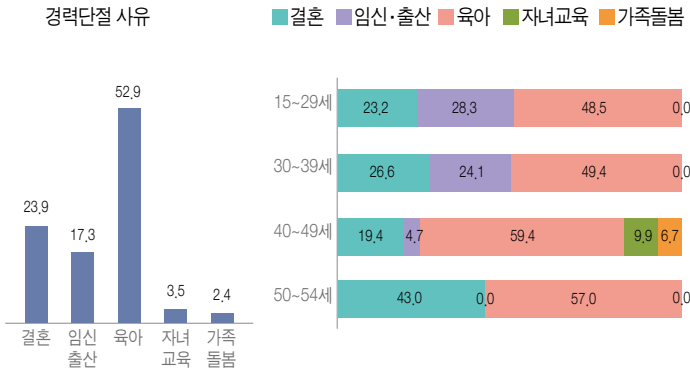
(단위: 천명, %)

| 구분   | 15 - 54세 기혼여성 |       |         | 제주 경력단절 여성 비율 | 전국 경력단절 여성 비율 |
|------|---------------|-------|---------|---------------|---------------|
|      | 기혼여성          | 비취업여성 | 경력단절 여성 |               |               |
| 2015 | 116           | 35    | 16      | 13,8          | 21,7          |
| 2016 | 116           | 31    | 16      | 13,8          | 20,5          |
| 2017 | 115           | 25    | 10      | 8,7           | 20,0          |
| 2018 | 114           | 30    | 13      | 11,4          | 26,3          |
| 2019 | 115           | 31    | 13      | 11,3          | 27,0          |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52.9%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52.9%)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기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52.9%, 결혼 23.9%, 임신·육아 17.3%, 자녀교육 3.5%, 가족돌봄 2.4% 순으로 나타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이 가장 큼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 구분     | 결혼   | 임신·출산 | 육아   | 자녀교육 | 가족돌봄 |
|--------|------|-------|------|------|------|
| 전체     | 23.9 | 17.3  | 52.9 | 3.5  | 2.4  |
| 15-29세 | 23.2 | 28.3  | 48.5 | -    | -    |
| 30-39세 | 26.6 | 24.1  | 49.4 | -    | -    |
| 40-49세 | 19.4 | 4.7   | 59.4 | 9.9  | 6.7  |
| 50-54세 | 43   | -     | 57   | -    | -    |

그림 3-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2019

표 3-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2019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원자료 분석)

# 03

## 경제활동

### 취업현황

## 40대 취업자 최다, 30대 성별격차 최대

취업자 수의 성별격차는 30대 > 40대 > 50대 > 20대 순이며, 30~40대 성별격차의 이유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파악됨

- (2019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는 37만8천명 중 여성은 16만9천명, 남성은 20만9천명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4만명 더 적음
- 취업자 수의 성별격차는 30대(1만5천명), 40대(1만1천명), 50대(8천명), 20대(5천명), 60대 이상(1천명) 순으로 남성이 더 많고, 20대 미만에서만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성별격차가 큰 이유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5

연령별 취업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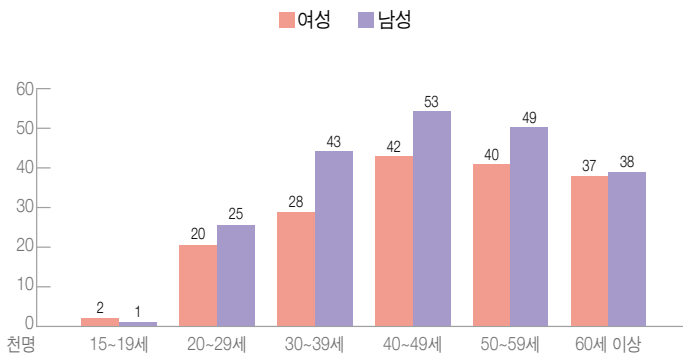


표 3-5

연령별 취업자  
2019

(단위 : 천명)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남성 |
|----------|-----|-----|-----|-------|
| 계        | 378 | 168 | 204 | -40   |
| 15 - 19세 | 2   | 2   | 1   | 1     |
| 20 - 29세 | 46  | 20  | 25  | -5    |
| 30 - 39세 | 71  | 28  | 43  | -15   |
| 40 - 49세 | 95  | 42  | 53  | -11   |
| 50 - 59세 | 89  | 40  | 49  | -8    |
| 60세 이상   | 76  | 37  | 38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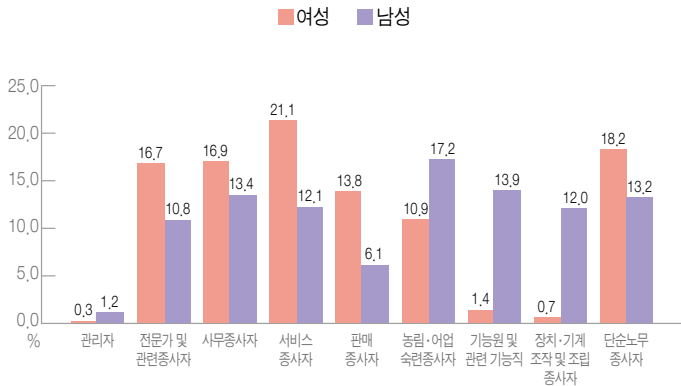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원자료 분석)

## 여성 취업자 중 서비스직 종사자 최다(21.1%)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 단순  
노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기준) 여성 취업자의 종사 직종은 서비스직 21.1%, 단순노무직 18.2%, 사무직 16.9%, 전문가 및 관련직 16.7%, 판매직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농림·어업 숙련직 17.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13.9%, 사무직 13.4%, 단순노무직 13.2%, 서비스직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러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은 남성의 종사비율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여성의 종사비율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남



(단위 : 백명, %)

| 구분                | 여성          | 남성          | 전체          |
|-------------------|-------------|-------------|-------------|
| 관리자               | 5 (0.3)     | 25 (1.2)    | 30 (0.8)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83 (16.7)  | 227 (10.8)  | 510 (13.5)  |
| 사무 종사자            | 286 (16.9)  | 279 (13.4)  | 565 (14.9)  |
| 서비스 종사자           | 357 (21.1)  | 253 (12.1)  | 610 (16.1)  |
| 판매 종사자            | 234 (13.8)  | 128 (6.1)   | 362 (9.6)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184 (10.9)  | 360 (17.2)  | 544 (14.4)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 24 (1.4)    | 291 (13.9)  | 315 (8.3)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13 (0.7)    | 252 (12)    | 264 (7.0)   |
| 단순노무 종사자          | 308 (18.2)  | 276 (13.2)  | 584 (15.4)  |
| 계                 | 1,693 (100) | 2,091 (100) | 3,784 (100) |

그림 3-6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  
2019 상반기

표 3-6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  
2019 상반기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9년 상반기  
C형 원자료 분석)

# 04

## 경제활동

###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03천원, 남성 2,825천원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7.4%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보다 낮음

- (2019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03천원, 남성 2,825천원으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7.4% 수준으로 남성보다 921천원 더 적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월평균임금은 2010년 보다 여성은 53만3천원, 남성은 72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2010년 대비 여성은 38.9%, 남성은 34.3% 증가함

그림 3-7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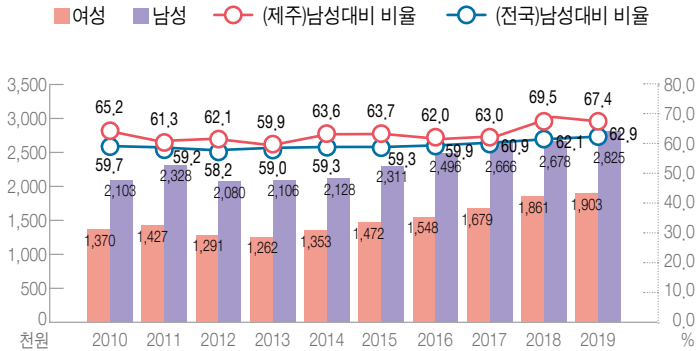


표 3-7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10~2019

주

조사 시점 기준 임금근로자가 지난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으로 세급 공제전 임금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0년 연간자료, 2011~2013년 3분기 A형), 2013~2019년 하반기 A형)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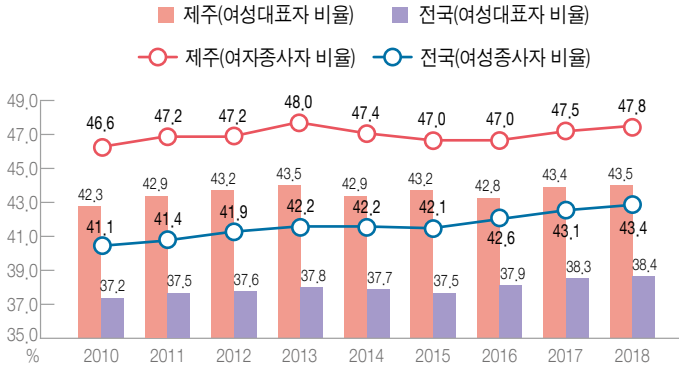
| 구분   | 제주    |       |       |      | 전국<br>남성대비 |
|------|-------|-------|-------|------|------------|
|      | 전체    | 여성    | 남성    | 남성대비 |            |
| 2010 | 1,773 | 1,370 | 2,103 | 65.2 | 59.7       |
| 2011 | 1,906 | 1,427 | 2,328 | 61.3 | 59.2       |
| 2012 | 1,698 | 1,291 | 2,080 | 62.1 | 58.2       |
| 2013 | 1,684 | 1,262 | 2,106 | 59.9 | 59.0       |
| 2014 | 1,763 | 1,353 | 2,128 | 63.6 | 59.3       |
| 2015 | 1,919 | 1,472 | 2,311 | 63.7 | 59.3       |
| 2016 | 2,017 | 1,548 | 2,496 | 62.0 | 59.9       |
| 2017 | 2,162 | 1,679 | 2,666 | 63.0 | 60.9       |
| 2018 | 2,280 | 1,861 | 2,678 | 69.5 | 62.1       |
| 2019 | 2,374 | 1,903 | 2,825 | 67.4 | 62.9       |



## 사업체 여성 대표자 비율 43.5%, 여성 종사자 비율 47.8%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대표자 사업체 비율은 43.5%, 여성 종사자 비율은 47.8%로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 수는 62,871개소 중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27,380개소로 43.5%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수준보다 5.1%p 더 높음. 제주도의 여성대표 사업체는 전년보다 1,335개소 증가함
-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276,942명이며 이 중 여성은 132,501명으로 47.8%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수준보다 4.5%p 더 높음. 여성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7,716명 더 증가함



(단위 : 개, 명, %)

| 구분   | 대표자 성별 사업체수 |        |       |           | 성별 종사자 수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전국        | 제주특별자치도  |         |       | 전국        |
|      | 전체 사업체      | 여성 대표자 | 여성 비율 | 여성 대표자 비율 | 전체 종사자   | 여성 종사자  | 여성 비율 | 여성 종사자 비율 |
| 2010 | 45,830      | 19,390 | 42.3  | 37.2      | 202,676  | 94,347  | 46.6  | 41.1      |
| 2011 | 47,144      | 20,241 | 42.9  | 37.5      | 203,757  | 96,223  | 47.2  | 41.4      |
| 2012 | 49,252      | 21,298 | 43.2  | 37.6      | 211,468  | 99,893  | 47.2  | 41.9      |
| 2013 | 51,727      | 22,478 | 43.5  | 37.8      | 226,734  | 108,751 | 48.0  | 42.2      |
| 2014 | 53,897      | 23,119 | 42.9  | 37.7      | 235,650  | 111,651 | 47.4  | 42.2      |
| 2015 | 55,155      | 23,836 | 43.2  | 37.5      | 250,000  | 117,611 | 47.0  | 42.1      |
| 2016 | 57,791      | 24,745 | 42.8  | 37.9      | 258,188  | 121,355 | 47.0  | 42.6      |
| 2017 | 60,063      | 26,045 | 43.4  | 38.3      | 262,747  | 124,785 | 47.5  | 43.1      |
| 2018 | 62,871      | 27,380 | 43.5  | 38.4      | 276,942  | 132,501 | 47.8  | 43.4      |

그림 3-8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  
2010~2018

표 3-8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  
2010~2018

주

2017년부터 10차 산업분류로 조사되어, 2016년 이전 자료에 변동이 있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05

## 경제활동

###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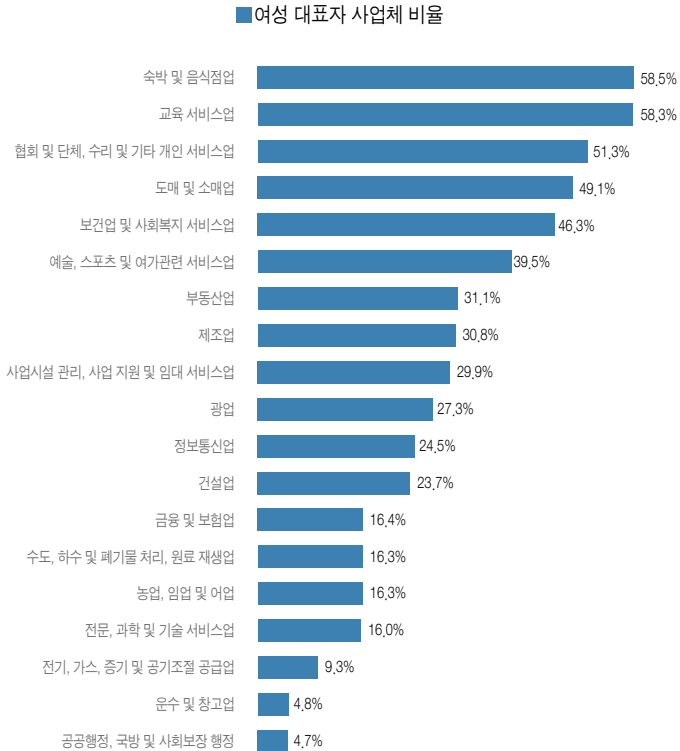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된 여성 대표자 사업체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58.5%), 교육서비스업(5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1.3%)임

-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58.5%, 교육 서비스업 58.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3%, 도매 및 소매업 4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3% 등의 순으로 여성대표자 비율이 더 높은 경우는 일부 산업에 편중됨

그림 3-9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 201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VI 건강과 복지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이

## 건강과 복지

### 건강상태

## 기대여명 여성 86.7세, 남성 78.7세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8세 더 많고, 기대여명의 성별 격차는 2014년보다 증가함

- (2017년 기준)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 86.7세, 남성 78.7세로 여성의 기대여명이 8.0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5년에 비해 여성은 3.6세, 남성은 4.3세 더 증가하여 남성의 기대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기대여명의 성별격차도 다소 감소함

그림 4-1

### 기대여명

2005~2017,  
3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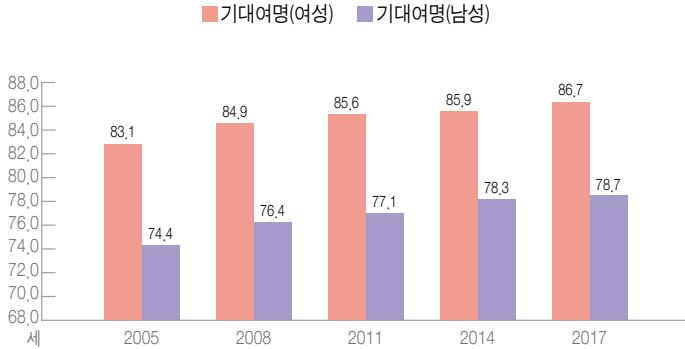


표 4-1

### 기대여명

2005~2017,  
3년 주기

(단위 : 세)

| 구분   | 기대여명 |      | 여성-남성 |
|------|------|------|-------|
|      | 여성   | 남성   |       |
| 2005 | 83.1 | 74.4 | 8.7   |
| 2008 | 84.9 | 76.4 | 8.5   |
| 2011 | 85.6 | 77.1 | 8.5   |
| 2014 | 85.9 | 78.3 | 7.6   |
| 2017 | 86.7 | 78.7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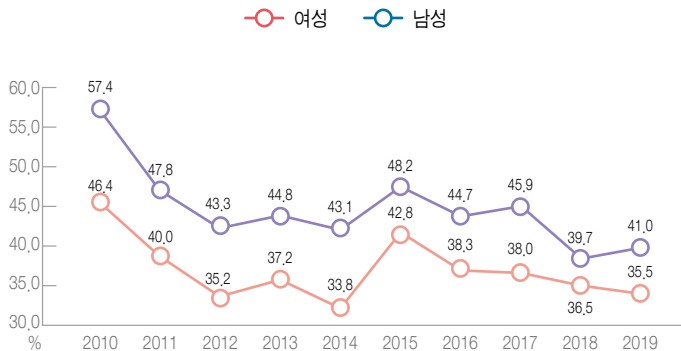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생명표」

## 주관적 건강인지율 여성 35.5%, 남성 41.0%

19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높고,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성별격차는 전년보다 증가함

-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35.5%, 남성 41.0%로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5.5%p 더 낮음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지속적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격차는 2018년보다 증가함



(단위 : %)

| 구분   | 주관적 건강인지율 |      |      | 여성-남성 |
|------|-----------|------|------|-------|
|      | 전체        | 여성   | 남성   |       |
| 2010 | 51.8      | 46.4 | 57.4 | -11   |
| 2011 | 43.8      | 40.0 | 47.8 | -7.8  |
| 2012 | 39.2      | 35.2 | 43.3 | -8.1  |
| 2013 | 41.0      | 37.2 | 44.8 | -7.6  |
| 2014 | 38.4      | 33.8 | 43.1 | -9.3  |
| 2015 | 45.5      | 42.8 | 48.2 | -5.4  |
| 2016 | 41.5      | 38.3 | 44.7 | -6.4  |
| 2017 | 42.0      | 38.0 | 45.9 | -7.9  |
| 2018 | 38.1      | 36.5 | 39.7 | -3.2  |
| 2019 | 38.3      | 35.5 | 41.0 | -5.5  |

# 01

## 건강과 복지 건강상태

그림 4-2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2019

표 4-2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2019

주

- 1) 19세 이상 대상임
- 2)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응답의 합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이 건강과 복지 건강상태

**질환의심 비율 여성 24.2%, 남성 38.2%**  
**유질환자 비율 여성 20.6%, 남성 24.6%**

남녀 모두 정상 비율은 낮아진 반면 유질환자의 비율은 전년보다 높아짐

- (2018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정상B(경계) 36.7%, 질환의심 24.2%, 유질환자 20.6%, 정상A 18.5%였으며, 남성은 질환의심 28.2%, 정상B(경계) 30.2%, 유질환자 24.6%, 정상A 6.9%로 나타남
- 여성은 정상B(경계) 비율이 가장 높는데 비해 남성은 질환의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1차 판정결과 중 정상A, 정상B(경계) 비율은 지속적으로 여성이 더 높는데 비해 질환의심과 유질환자 비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의 질병이환 가능성이 더 높음

그림 4-3

##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 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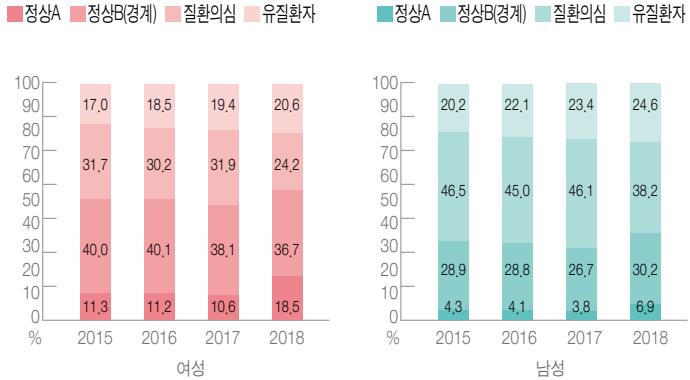


표 4-3

##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 2015~20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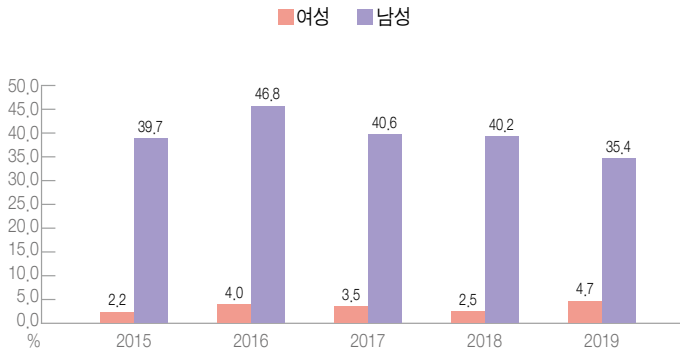
| 구분 | 1차 수<br>검진인원 | 판정결과   |        |      |        |      |        |      |        |      |
|----|--------------|--------|--------|------|--------|------|--------|------|--------|------|
|    |              | 정상A    | 비율     | 정상B  | 비율     | 질환의심 | 비율     | 유질환자 | 비율     |      |
| 여성 | 2015         | 69,396 | 7,853  | 11.3 | 27,739 | 40.0 | 21,994 | 31.7 | 11,810 | 17.0 |
|    | 2016         | 73,516 | 8,234  | 11.2 | 29,497 | 40.1 | 22,220 | 30.2 | 13,565 | 18.5 |
|    | 2017         | 76,143 | 8,109  | 10.6 | 28,979 | 38.1 | 24,296 | 31.9 | 14,759 | 19.4 |
|    | 2018         | 83,399 | 15,470 | 18.5 | 30,608 | 36.7 | 20,165 | 24.2 | 17,156 | 20.6 |
| 남성 | 2015         | 68,981 | 2,977  | 4.3  | 19,966 | 28.9 | 32,070 | 46.5 | 13,968 | 20.2 |
|    | 2016         | 73,370 | 3,017  | 4.1  | 21,113 | 28.8 | 32,999 | 45   | 16,241 | 22.1 |
|    | 2017         | 76,371 | 2,913  | 3.8  | 20,373 | 26.7 | 35,196 | 46.1 | 17,889 | 23.4 |
|    | 2018         | 87,010 | 6,043  | 6.9  | 26,243 | 30.2 | 33,277 | 38.2 | 21,447 | 2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

## 현재흡연율 여성 4.7%, 남성 35.4%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전년보다는 증가함

- (2019년 기준) 현재흡연율은 여성 4.7%, 남성 35.4%로 여성이 30.7%p 더 낮으며, 전년보다 여성은 2.2%p 증가하였고 남성은 4.8%p 감소함
-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다만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은 감소하던 현재흡연율이 2019년에 들어서는 전년보다 증가함



(단위 : %)

| 구분   | 현재흡연율 |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남성 |
| 2015 | 20.8  | 2.2 | 39.7 | -37.5 |
| 2016 | 25.3  | 4.0 | 46.8 | -42.8 |
| 2017 | 22.0  | 3.5 | 40.6 | -37.1 |
| 2018 | 21.3  | 2.5 | 40.2 | -37.7 |
| 2019 | 20.0  | 4.7 | 35.4 | -30.7 |

# 02

## 건강과 복지 건강행태

그림 4-4

현재흡연율  
2015~2019

표 4-4

현재흡연율  
2015~2019

**주**

현재흡연율은 19세 이상, 평생 5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02

## 건강과 복지

### 건강행태

**월간음주율 여성 39.4%, 남성 70.6%**  
**고위험음주율 여성 5.8%, 남성 20.6%**

여성의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낮음.  
 다만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2019년 기준) 월간음주율은 여성 37.4%, 남성 70.6%로 여성이 남성보다 31.2%p 더 낮고, 전년보다 여성은 1.3%p, 남성은 2.5%p 감소함
- (2019년 기준)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5.8%, 남성 20.6%로 여성이 남성보다 14.8%p 더 낮고, 전년보다 여성은 0.9%p 증가한 반면 남성은 4.1%p 감소함

그림 4-5

###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2015~2019

■ 고위험음주율 여성 ■ 고위험음주율 남성 ○ 월간음주율 여성 ○ 월간음주율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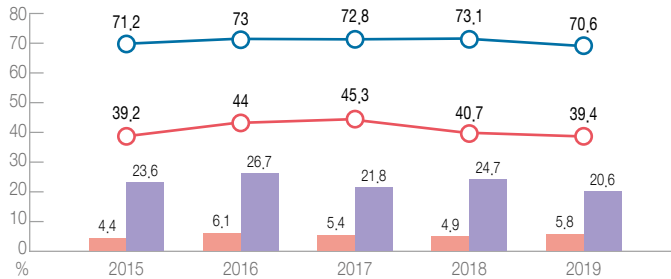


표 4-5

###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 2015~2019

(단위 : %)

| 구분   | 월간음주율 |      |      |       | 고위험음주율 |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남성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남성 |
| 2015 | 55    | 39,2 | 71,2 | -32   | 13,9   | 4,4 | 23,6 | -19,2 |
| 2016 | 58,4  | 44   | 73   | -29   | 16,4   | 6,1 | 26,7 | -20,6 |
| 2017 | 59    | 45,3 | 72,8 | -27,5 | 13,6   | 5,4 | 21,8 | -16,4 |
| 2018 | 56,9  | 40,7 | 73,1 | -32,4 | 14,8   | 4,9 | 24,7 | -19,8 |
| 2019 | 55    | 39,4 | 70,6 | -31,2 | 13,2   | 5,8 | 20,6 | -14,8 |

주

- 1) 월간음주율 :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한 달(30일)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 2) 고위험음주율 : 19세 이상,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성은 한 번에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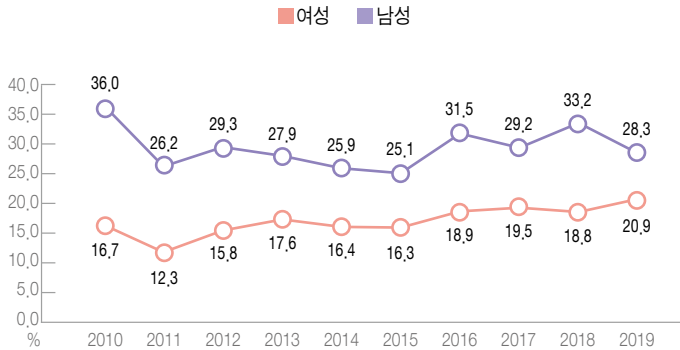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은 남성보다 높지만 전년대비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증가함

- (2019년 기준) 만 19세 이상 일반인의 건강생활실천율은 여성 28.3%, 남성 20.9%로 여성이 7.4%p 더 높게 나타났고, 전년대비 여성은 4.9%p 감소한 반면 남성은 2.1%p 증가함
-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지만 남성의 건강생활실천율에 비해 여성의 건강생활실천율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 전체   | 여성   | 남성   |
|------|------|------|------|
| 2010 | 26.4 | 36.0 | 16.7 |
| 2011 | 19.4 | 26.2 | 12.3 |
| 2012 | 22.6 | 29.3 | 15.8 |
| 2013 | 22.8 | 27.9 | 17.6 |
| 2014 | 21.2 | 25.9 | 16.4 |
| 2015 | 20.7 | 25.1 | 16.3 |
| 2016 | 25.2 | 31.5 | 18.9 |
| 2017 | 24.4 | 29.2 | 19.5 |
| 2018 | 26.0 | 33.2 | 18.8 |
| 2019 | 24.6 | 28.3 | 20.9 |

# 02

## 건강과 복지 건강행태

그림 4-6

건강생활실천율  
2010~2019

표 4-6

건강생활실천율  
2010~2019

**주**

건강생활실천율은 19세 이상,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03

## 건강과 복지

출산, 유병, 사망

### 저체중아 비율 여아 6.9%, 남아 4.9% 출생아 평균체중 여아 3.18kg, 남아 3.30kg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남·여아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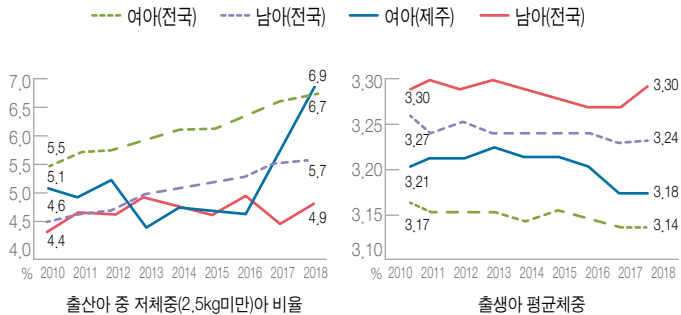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여아 6.9%, 남아 4.9%로 여아가 2.0%p 더 많고, 여아의 저체중아 비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체중아 비율은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8년 여아의 저체중아 비율이 전국수준보다 0.2%p 높아짐

여아의 평균체중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아의 평균체중은 다시 증가함.

- (2018년 기준) 출생아의 평균체중은 여아 3.18kg, 남아 3.30kg으로 여아가 더 작음
- 평균체중은 남·여아 모두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아의 평균체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아의 평균체중은 전년보다 0.02kg 증가함

그림 4-7

#### 저체중아 비율 2010~2018



(단위 : %, kg)

표 4-7

#### 저체중아 비율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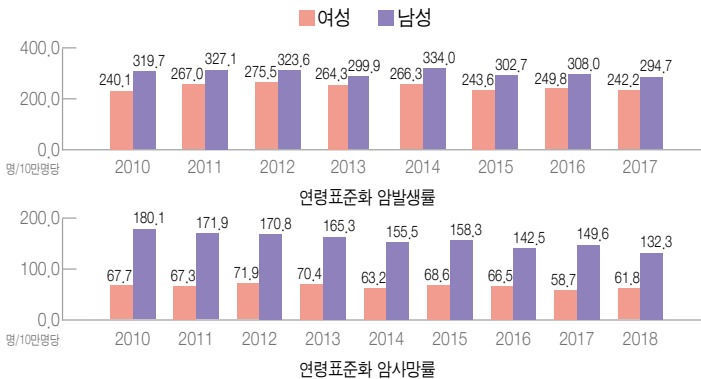
| 구분   | 출생아 중 저체중(2.5kg 미만)아율 |     |     |     | 출생아 평균체중 |      |      |      |
|------|-----------------------|-----|-----|-----|----------|------|------|------|
|      | 전국                    |     | 제주  |     | 전국       |      | 제주   |      |
|      | 여아                    | 남아  | 여아  | 남아  | 여아       | 남아   | 여아   | 남아   |
| 2010 | 5.5                   | 4.6 | 5.1 | 4.4 | 3.17     | 3.27 | 3.21 | 3.3  |
| 2011 | 5.7                   | 4.7 | 5.0 | 4.8 | 3.16     | 3.25 | 3.22 | 3.31 |
| 2012 | 5.9                   | 4.8 | 5.4 | 4.8 | 3.16     | 3.26 | 3.22 | 3.3  |
| 2013 | 6.0                   | 5.1 | 4.5 | 5.0 | 3.16     | 3.25 | 3.23 | 3.31 |
| 2014 | 6.2                   | 5.2 | 4.9 | 4.9 | 3.15     | 3.25 | 3.22 | 3.3  |
| 2015 | 6.2                   | 5.3 | 4.8 | 4.7 | 3.16     | 3.25 | 3.22 | 3.29 |
| 2016 | 6.4                   | 5.4 | 4.8 | 5.0 | 3.15     | 3.25 | 3.21 | 3.28 |
| 2017 | 6.7                   | 5.7 | 5.9 | 4.6 | 3.14     | 3.24 | 3.18 | 3.28 |
| 2018 | 6.9                   | 5.7 | 6.9 | 4.9 | 3.14     | 3.24 | 3.18 | 3.3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암발생률 인구 10만명당 여성 242.2명, 남성 297.4명 암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여성 61.8명, 남성 132.3명

암발생률과 암사망률은 여성이 더 낮음. 다만 2010년대비  
암발생률과 암사망률은 남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여성 242.2명, 남성 294.7명으로 남성이 52.5명 더 많고, 여성의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전년보다 7.6명 감소, 남성은 13.3명 감소함. 지난 2010년보다는 여성 2.1명 증가, 남성 25.0명 감소로 남성의 암발생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은 여성 61.8명, 남성 132.3명으로 남성이 70.5명 더 높게 나타났고, 전년보다 여성은 3.1명 증가, 남성은 17.3명 감소함. 또한 지난 2010년에 비해서는 여성은 5.9명, 남성은 47.8명 감소하여 남성의 암사망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단위 : 명/인구 10만명당)

| 구분   | 암발생률(연령표준화) |       |       | 암사망률(연령표준화)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계           | 여성   | 남성    |
| 2010 | 268.8       | 240.1 | 319.7 | 112.7       | 67.7 | 180.1 |
| 2011 | 285.9       | 267.0 | 327.1 | 109.3       | 67.3 | 171.9 |
| 2012 | 288.2       | 275.5 | 323.6 | 112.6       | 71.9 | 170.8 |
| 2013 | 271.8       | 264.3 | 299.9 | 107.4       | 70.4 | 165.3 |
| 2014 | 290.6       | 266.3 | 334.0 | 101.7       | 63.2 | 155.5 |
| 2015 | 264.8       | 243.6 | 302.7 | 105.2       | 68.6 | 158.3 |
| 2016 | 271.6       | 249.8 | 308.0 | 97.8        | 66.5 | 142.5 |
| 2017 | 261.4       | 242.2 | 294.7 | 98.6        | 58.7 | 149.6 |
| 2018 | -           | -     | -     | 91.3        | 61.8 | 132.3 |

# 03

## 건강과 복지 출산, 유병, 사망

그림 4-8

연령표준화  
암발생률과  
2010~2017  
암사망률  
2010~2018

표 4-8

연령표준화  
암발생률과  
2010~2017  
암사망률  
2010~2018

자료

- 1)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보건복지부, 각년도
- 2)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04

## 건강과 복지 건강증진서비스

### 요양기관 여성의료인력 의사 19.3%, 치과의사 15.4%, 한의사 13.5%, 약사 50.4%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사(50.4%)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함

- (2018년 기준)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의료인력은 의사 219명, 치과의사 42명, 한의사 30명, 약사 228명임
- 의료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사 50.4%, 의사 19.3%, 치과의사 15.4%, 한의사 13.5% 순으로 약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 미만으로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국보다도 낮은 수준임

그림 4-9

####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 2018

표 4-9

####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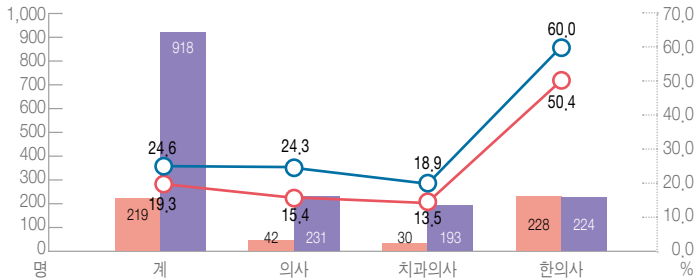
주

-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제주지역 소재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임
-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① 의원법, ②에 따라 등록된 의원, ③ 약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리요양원(센터), ④ 지역보건법, ⑤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⑥ 농어촌 등 보건요리를 위한 특별 조치법, ⑦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포함됨
-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상근자 기준임
- 4) 한의사 중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는 제주지역 해당 연한이 없어 제외됨
- 5) 간호사는 성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하는 조산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도 성별통계 부재로 제외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

■ 여성 ■ 남성 ○-○ 제주(여성비율) ○-○ 전국(여성비율)



(단위: 명, %)

| 구분              |      | 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
| 제주<br>특별<br>자치도 | 전체   | 2,728 | 1,137 | 273  | 223  | 452  |
|                 | 여성   | 833   | 219   | 42   | 30   | 228  |
|                 | 남성   | 1,895 | 918   | 231  | 193  | 224  |
|                 | 여성비율 | 30.5  | 19.3  | 15.4 | 13.5 | 50.4 |
| 전국 여성비율         |      | 37.8  | 24.6  | 24.3 | 18.9 | 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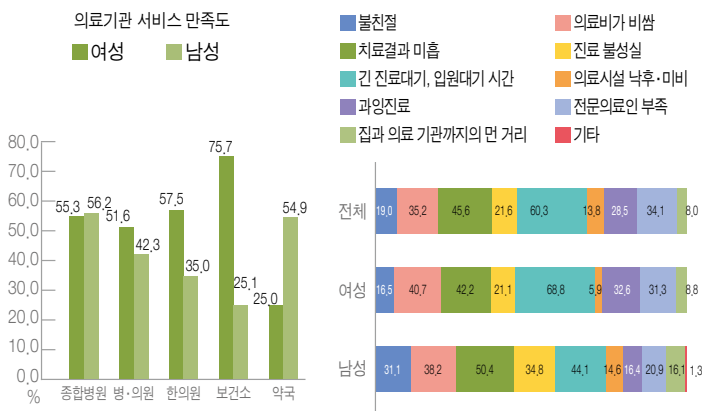
## 성별 만족도 격차가 큰 보건소 의료서비스,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과 미흡한 치료결과 불만족

### 의료서비스 만족도

- (2018년 기준) 여성의 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 75.7%, 한의원 57.5%, 종합병원 55.3%, 병·의원 51.6%, 약국 25.0% 순으로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약국이 가장 낮은 반면, 남성은 종합병원 56.2%, 약국 54.9%, 병·의원 42.3%, 한의원 35.0%, 보건소 25.1%로 순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건소가 가장 낮음. 특히 보건소는 성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여성은 입원·진료를 위한 긴 대기시간, 남성은 미흡한 치료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여성은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60.3%, 치료결과 미흡 42.2%, 비싼 의료비 40.7%, 전문의료인 부족 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치료결과 미흡 50.4%,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44.1%, 비싼 의료 38.2%, 진료 불성실 34.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대기시간을 이유로 한 불만족이 가장 많고, 남성은 치료결과 미흡으로 인한 불만족이 가장 많음



### 그림 4-10

###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2018

#### 주

1) 의료서비스 만족도 :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의 비율의 합계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

# 04

## 건강과 복지 건강증진서비스

표 4-10

###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2018

(단위 : %)

| 구분 | 종합병원 | 병·의원 | 한의원  | 보건소  | 약국   |
|----|------|------|------|------|------|
| 전체 | 55.7 | 47.1 | 47.4 | 67.4 | 36.9 |
| 여성 | 55.3 | 51.6 | 57.5 | 75.7 | 25.0 |
| 남성 | 56.2 | 42.3 | 35.0 | 25.1 | 54.9 |

| 구분 |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         |         |        |              |            |      |           |                 |     |
|----|--------------|---------|---------|--------|--------------|------------|------|-----------|-----------------|-----|
|    | 불친절          | 의료비가 비쌌 | 치료결과 미흡 | 진료 불성실 | 긴 진료·입원 대기시간 | 의료시설 낙후·미비 | 과잉진료 | 전문 의료인 부족 | 집과 의료기관까지의 먼 거리 | 기타  |
| 전체 | 19.0         | 35.2    | 45.6    | 21.6   | 60.3         | 13.8       | 28.5 | 34.1      | 8.0             | 0.0 |
| 여성 | 16.5         | 40.7    | 42.2    | 21.1   | 68.8         | 5.9        | 32.6 | 31.3      | 8.8             | 0.0 |
| 남성 | 31.1         | 38.2    | 50.4    | 34.8   | 44.1         | 14.6       | 16.4 | 20.9      | 16.1            | 1.3 |

주

1) 의료서비스 만족도 : 해당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의 분율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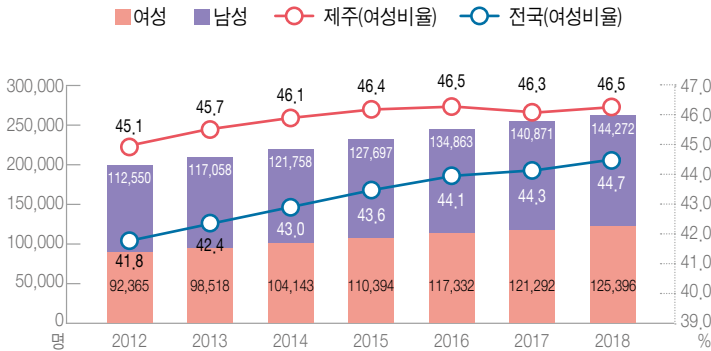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 46.5%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46.5%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18년 기준) 국민연금가입자는 총 269,66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25,396명으로 가입자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증가폭이 조금 더 큼. 여성 가입자의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조금 높은 4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명, %)

| 구분 |      | 총 가입자 수    |            |           | 여성비율 |
|----|------|------------|------------|-----------|------|
|    |      | 계          | 여성         | 남성        |      |
| 전국 | 2012 | 20,329,060 | 11,824,156 | 8,504,904 | 41.8 |
|    | 2013 | 20,744,780 | 11,947,691 | 8,797,089 | 42.4 |
|    | 2014 | 21,125,135 | 12,046,242 | 9,078,893 | 43.0 |
|    | 2015 | 21,568,354 | 12,158,087 | 9,410,267 | 43.6 |
|    | 2016 | 21,832,524 | 12,195,190 | 9,637,334 | 44.1 |
|    | 2017 | 21,824,172 | 12,145,339 | 9,678,833 | 44.3 |
|    | 2018 | 22,313,869 | 12,347,796 | 9,966,073 | 44.7 |
| 제주 | 2012 | 204,915    | 112,550    | 92,365    | 45.1 |
|    | 2013 | 215,576    | 117,058    | 98,518    | 45.7 |
|    | 2014 | 225,901    | 121,758    | 104,143   | 46.1 |
|    | 2015 | 238,091    | 127,697    | 110,394   | 46.4 |
|    | 2016 | 252,195    | 134,863    | 117,332   | 46.5 |
|    | 2017 | 262,163    | 140,871    | 121,292   | 46.3 |
|    | 2018 | 269,668    | 144,272    | 125,396   | 46.5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05

건강과 복지  
사회보험

그림 4-11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  
2012~2018

표 4-11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  
2012~2018

# 05

## 건강과 복지

### 사회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 비율은 46.7%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이후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 다시 증가함

- (2018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8,726명이며, 이 중 여성은 64,735명, 남성은 73,99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256명 더 적음. 2012년과 비교하여 여성은 24,430명, 남성은 25,266명이 증가함
- (2018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의 비율은 46.7%로 전국보다 4.1%p 높은 수준이며, 전년보다 0.6%p 증가함

그림 4-1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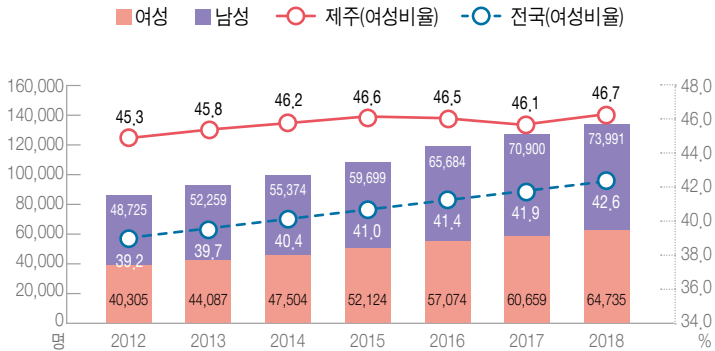


표 4-12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2012~2018

(단위: 명, %)

| 구분   | 전국         |           |           |      | 제주      |        |        |      |
|------|------------|-----------|-----------|------|---------|--------|--------|------|
|      | 계          | 여         | 남         | 여성비율 | 계       | 여      | 남      | 여성비율 |
| 2012 | 11,152,354 | 4,367,654 | 6,784,700 | 39.2 | 89,030  | 40,305 | 48,725 | 45.3 |
| 2013 | 11,571,213 | 4,599,514 | 6,971,699 | 39.7 | 96,346  | 44,087 | 52,259 | 45.8 |
| 2014 | 11,930,602 | 4,815,795 | 7,114,807 | 40.4 | 102,878 | 47,504 | 55,374 | 46.2 |
| 2015 | 12,363,063 | 5,064,769 | 7,298,294 | 41.0 | 111,823 | 52,124 | 59,699 | 46.6 |
| 2016 | 12,655,202 | 5,244,088 | 7,411,114 | 41.4 | 122,758 | 57,074 | 65,684 | 46.5 |
| 2017 | 12,958,825 | 5,431,205 | 7,527,620 | 41.9 | 131,559 | 60,659 | 70,900 | 46.1 |
| 2018 | 13,432,497 | 5,717,676 | 7,714,821 | 42.6 | 138,726 | 64,735 | 73,991 | 4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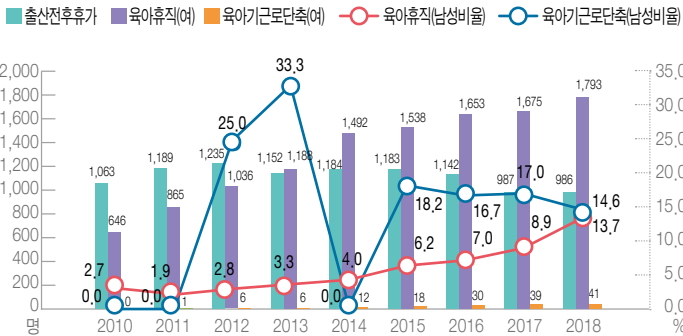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



## 출산전·후 휴가 986명, 육아휴직 1,793명, 육아기근로단축 41명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수급자와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전히 여성 수급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는 986명으로 전년보다 1명 감소함. 출산전·후 휴가 수급자는 2012년 1,235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여성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2010년 646명에서 2017년 1,793명으로 1,147명이 증가함. 육아휴직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0년 2.7%에서 2018년 13.7%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여성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2011년 1명에서 2018년 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임. 남성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14.6%로 전년보다 2.4%p 감소함



(단위: 명, %)

| 구분   | 출산 전·후 휴가 수급자 | 육아휴직 수급자 |             |           |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전체           | 여성(%)     | 남성(%)   |
| 2010 | 1,063         | 664      | 646(97.3)   | 18(2.7)   | 0            | 0-        | 0-      |
| 2011 | 1,189         | 882      | 865(98.1)   | 17(1.9)   | 1            | 1(100.0)  | 0(0.0)  |
| 2012 | 1,235         | 1,066    | 1,036(97.2) | 30(2.8)   | 8            | 6(75.0)   | 2(25.0) |
| 2013 | 1,152         | 1,229    | 1,188(96.7) | 41(3.3)   | 9            | 6(66.7)   | 3(33.3) |
| 2014 | 1,184         | 1,554    | 1,492(96.0) | 62(4.0)   | 12           | 12(100.0) | 0(0.0)  |
| 2015 | 1,183         | 1,640    | 1,538(93.8) | 102(6.2)  | 22           | 18(81.8)  | 4(18.2) |
| 2016 | 1,142         | 1,778    | 1,653(93.0) | 125(7.0)  | 36           | 30(83.3)  | 6(16.7) |
| 2017 | 987           | 1,838    | 1,675(91.1) | 163(8.9)  | 47           | 39(83.0)  | 8(17.0) |
| 2018 | 986           | 2,077    | 1,793(86.3) | 284(13.7) | 48           | 41(85.4)  | 7(14.6) |

# 05

## 건강과 복지 사회보험

### 그림 4-13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수급자 현황  
2010~2018

### 표 4-13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수급자 현황  
2010~20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06

## 건강과 복지 공공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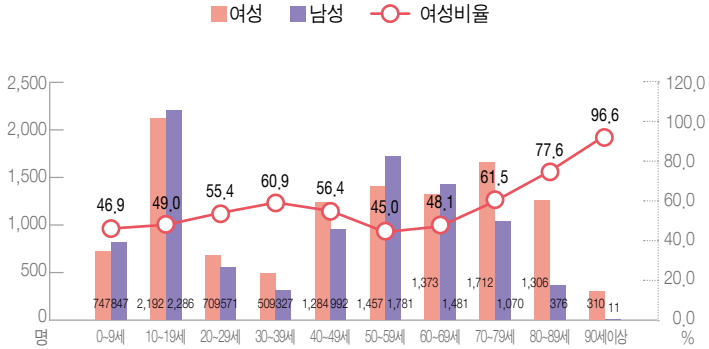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 비율 54.4% 10대 수급자 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성이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 수급자가 가장 많음. 60대 미만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부터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비율도 높아짐

- (2018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여성 11,599명, 남성 9,742명으로 총 21,341명이며,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54.4%로 남성보다 1,857명 더 많음
- 연령별 수급자는 1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60대, 7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세 미만과 50대 60대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60대 미만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후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도 높아짐

그림 4-14

연령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2018



(단위 : 명, %)

| 구분     | 계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
| 계      | 21,341 | 11,599 | 9,742 | 54.4 |
| 0-9세   | 1,594  | 747    | 847   | 46.9 |
| 10-19세 | 4,478  | 2,192  | 2,286 | 49.0 |
| 20-29세 | 1,280  | 709    | 571   | 55.4 |
| 30-39세 | 836    | 509    | 327   | 60.9 |
| 40-49세 | 2,276  | 1,284  | 992   | 56.4 |
| 50-59세 | 3,238  | 1,457  | 1,781 | 45.0 |
| 60-69세 | 2,854  | 1,373  | 1,481 | 48.1 |
| 70-79세 | 2,782  | 1,712  | 1,070 | 61.5 |
| 80-89세 | 1,682  | 1,306  | 376   | 77.6 |
| 90세 이상 | 321    | 310    | 11    | 96.6 |

표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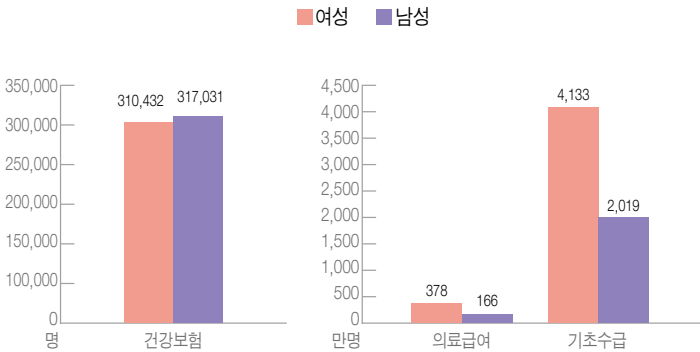
연령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  
201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65세 이상 의료급여자 여성 69.5%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여성 67.2%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인구 및 의료급여자, 기초수급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여성 51,362명, 남성 37,581명으로 총 88,943명이며, 여성의 건강보험적용인구는 남성보다 37,581명 더 많고, 65세 건강보험적용인구의 57.7%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의료급여자는 여성 378명, 남성 166명으로 총 544명이며, 여성 의료급여자는 남성보다 212명 더 많고, 의료급여자의 69.5%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기초수급자는 여성 4,133명, 남성 2,019명으로 총 6,152명이며, 여성 기초수급자는 남성보다 2,114명 더 많고, 기초수급자의 67.2%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명, %)

| 구분   | 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기초수급  |
|------|--------|--------|------|-------|
| 전체   | 95,639 | 88,943 | 544  | 6,152 |
| 여성   | 55,873 | 51,362 | 378  | 4,133 |
| 남성   | 39,766 | 37,581 | 166  | 2,019 |
| 여성비율 | 58.4   | 57.7   | 69.5 | 67.2  |

# 06

## 건강과 복지 공공부조

### 그림 4-15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2018

### 표 4-15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2018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통계」

# 07

## 건강과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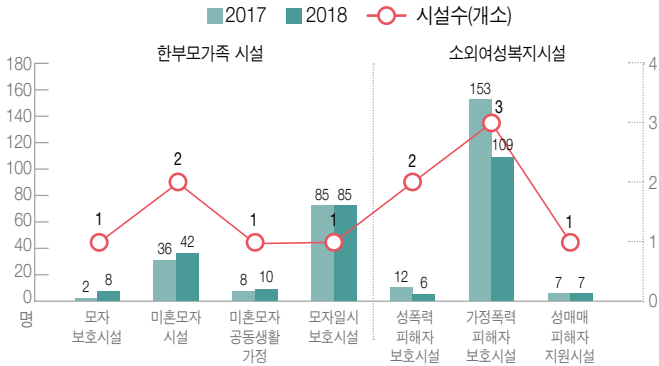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 시설 5개소(입소자 145명) 소외여성 복지시설 6개소(입소자 122명)

#### 한부모가족 시설 4개소와 소외여성 복지시설 6개소가 운영 중임

-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 시설은 총 5개소로 총 입소자는 145명임. 구체적으로는 모자보호 시설 1개소(입소자 8명), 미혼모자 시설 2개소(입소자 42명),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개소(입소자 10명), 모자일시 보호시설 1개소(입소자 85명)가 있음. 한부모가족 시설 수는 전년보다 1개소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입소자 수는 전년보다 총 14명 증가함
- (2018년 기준) 소외여성 복지시설은 총 6개소로 총 입소자는 122명임. 구체적으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입소자 6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입소자 109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입소자 7명)가 있음. 소외여성 복지시설은 2014년 1개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 추가되어 6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입소자 수는 전년보다 6명 감소함

그림 4-16

#### 여성복지시설 입소 인원 2017, 2018



(단위 : 개소, 명)

표 4-16

#### 여성 복지시설 수 및 입소인원 2011~2018

| 구분   | 한부모가족시설 |       |         |       |         |       |              |       |           |       | 소외여성 복지시설 |       |              |       |               |       |              |       |  |
|------|---------|-------|---------|-------|---------|-------|--------------|-------|-----------|-------|-----------|-------|--------------|-------|---------------|-------|--------------|-------|--|
|      | 계       |       | 모자 보호시설 |       | 미혼모자 시설 |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       | 모자일시 보호시설 |       | 계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       |  |
|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시설 수         | 입소자 수 |  |
| 2011 | 4       | 162   | 1       | 20    | 1       | 79    | 1            | 8     | 1         | 55    | 5         | 231   | 1            | 22    | 3             | 181   | 1            | 28    |  |
| 2012 | 4       | 192   | 1       | 17    | 1       | 69    | 1            | 4     | 1         | 102   | 5         | 161   | 1            | 17    | 3             | 126   | 1            | 18    |  |
| 2013 | 4       | 183   | 1       | 11    | 1       | 39    | 1            | 16    | 1         | 117   | 5         | 265   | 1            | 14    | 3             | 235   | 1            | 16    |  |
| 2014 | 4       | 155   | 1       | 13    | 1       | 52    | 1            | 8     | 1         | 82    | 6         | 243   | 2            | 12    | 3             | 217   | 1            | 14    |  |
| 2015 | 4       | 195   | 1       | 15    | 1       | 47    | 1            | 12    | 1         | 121   | 6         | 212   | 2            | 16    | 3             | 185   | 1            | 11    |  |
| 2016 | 4       | 106   | 1       | 2     | 1       | 30    | 1            | 8     | 1         | 66    | 6         | 185   | 2            | 10    | 3             | 164   | 1            | 11    |  |
| 2017 | 4       | 131   | 1       | 2     | 1       | 36    | 1            | 8     | 1         | 85    | 6         | 172   | 2            | 12    | 3             | 153   | 1            | 7     |  |
| 2018 | 5       | 145   | 1       | 8     | 2       | 42    | 1            | 10    | 1         | 85    | 6         | 122   | 2            | 6     | 3             | 109   | 1            | 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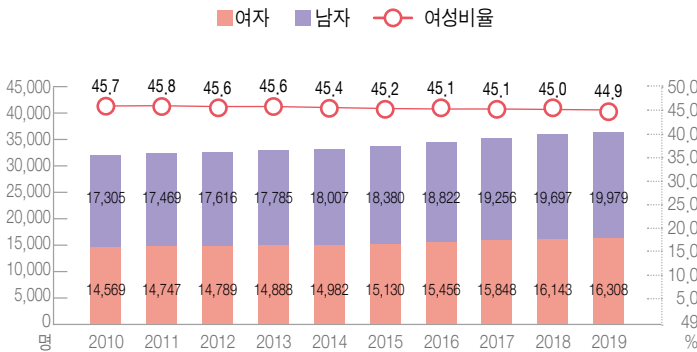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 등록장애인 여성 16,308명, 남성 19,979명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 수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증가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여성 16,308명, 남성 19,979명으로 총 36,287명이며, 등록장애인 중 여성은 남성보다 3,671명 더 적고, 등록장애인의 44.9%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 2010년 보다 4,413명(여성 1,739명, 남성 2,674명)이 증가함. 등록장애인의 수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는 더 커짐



(단위 : 명, %)

| 구분   | 계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
| 2010 | 31,874 | 14,569 | 17,305 | 45.7 |
| 2011 | 32,216 | 14,747 | 17,469 | 45.8 |
| 2012 | 32,405 | 14,789 | 17,616 | 45.6 |
| 2013 | 32,673 | 14,888 | 17,785 | 45.6 |
| 2014 | 32,989 | 14,982 | 18,007 | 45.4 |
| 2015 | 33,510 | 15,130 | 18,380 | 45.2 |
| 2016 | 34,278 | 15,456 | 18,822 | 45.1 |
| 2017 | 35,104 | 15,848 | 19,256 | 45.1 |
| 2018 | 35,840 | 16,143 | 19,697 | 45.0 |
| 2019 | 36,287 | 16,308 | 19,979 | 44.9 |

그림 4-17

등록 장애인 수  
2010~2019

표 4-17

등록 장애인 수  
2010~2019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V 사회참여와 문화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01

## 사회참여와 문화 정치참여

### 제19대 대통령선거 여성 투표율 7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투표율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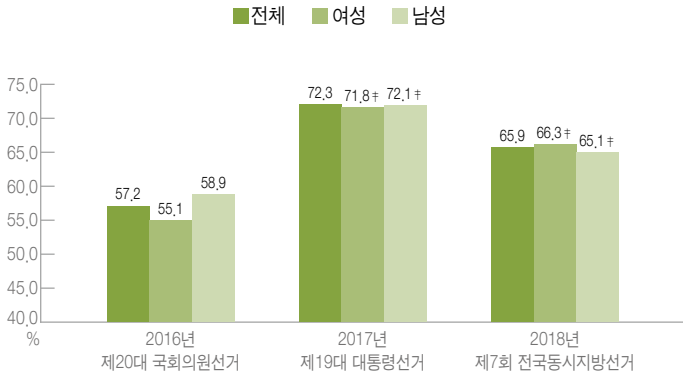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고, 남성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던 이전 선거와 달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투표율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여성 55.1%, 남성 58.9%로 나타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여성 71.8%, 남성 72.1%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낮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여성 66.3%, 남성 65.1%로 이전 선거에서와 달리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그림 5-1

#### 투표율

2016, 2017, 2018



(단위: 명, %)

#### 표 5-1

#### 투표율

2016, 2017, 2018

주

‡ 표본조사값임

자료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총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람」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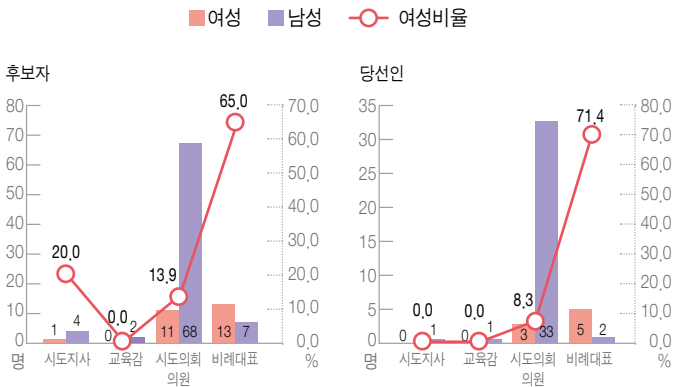
| 구분           | 선거인 구조  |               |             | 투표수     | 실제투표결과 |       |       |
|--------------|---------|---------------|-------------|---------|--------|-------|-------|
|              | 인수구     | 선거인 명부확정 선거인수 | 인구대비 선거인 비율 |         | 투표율    |       |       |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629,771 | 497,615       | 79.0        | 286,893 | 57.2   | 55.1  | 58.9  |
| 제19대 대통령 선거  | 645,341 | 514,264       | 79.7        | 374,459 | 72.3   | 71.8‡ | 72.1‡ |
| 제7회 지방동시 선거  | 663,249 | 532,515       | 80.3        | 350,943 | 65.9   | 66.3‡ | 65.1‡ |



##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시·도의회의원 여성당선인 3명(8.3%) 비례대표 여성당선인 5명(71.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지역 시·도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비율은 시·도의회의원 8.3%, 비례대표 71.4%임

-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지역 여성 입후보자는 시도지사 20.0%(1명), 시도회의의원 13.9%(11명), 비례대표 65.0%(13명)로 나타남
- 동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은 시도회의의원 3명(지역구 3명, 교육의원 0명)이 당선되어 시도회의의원 당선인 36명(지역구 31명, 교육의원 5명) 중 8.3%를 차지하였으며, 비례대표는 당선인 7명 중 5명이 여성으로 71.4%를 차지함



(단위 : 명, %)

| 구분      | 후보자 수 |    |    |       | 당선인 수 |    |    |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 비율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 비율 |     |
| 시도지사    | 5     | 1  | 4  | 20.0  | 1     | 0  | 1  | 0.0   |     |
| 교육감     | 2     | 0  | 2  | 0.0   | 1     | 0  | 1  | 0.0   |     |
| 시·도의회의원 | 79    | 11 | 68 | 13.9  | 36    | 3  | 33 | 8.3   |     |
|         | 지역구   | 73 | 11 | 62    | 15.1  | 31 | 3  | 28    | 9.7 |
|         | 교육의원  | 6  | 0  | 6     | 0.0   | 5  | 0  | 5     | 0.0 |
| 비례대표    | 20    | 13 | 7  | 65    | 7     | 5  | 2  | 71.4  |     |

01

사회참여와 문화  
정치참여

그림 5-2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  
2018

표 5-2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  
201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02

## 사회참여와 문화 행정참여

### 여성공무원 2,092명(34.7%) 2010년 대비 63.1%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은 여성 2,092명, 남성 3,931명으로 총 6,0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4.7%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지만, 2010년 대비 여성공무원의 수는 63.1% 증가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7.8% 증가하여 여성공무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5-3

공무원 현황  
2010,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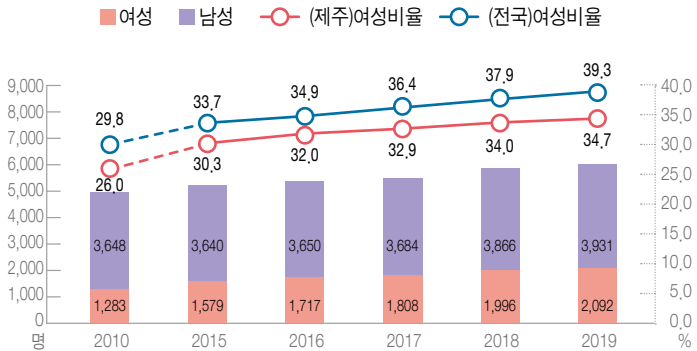


표 5-3

공무원 현황  
2010~20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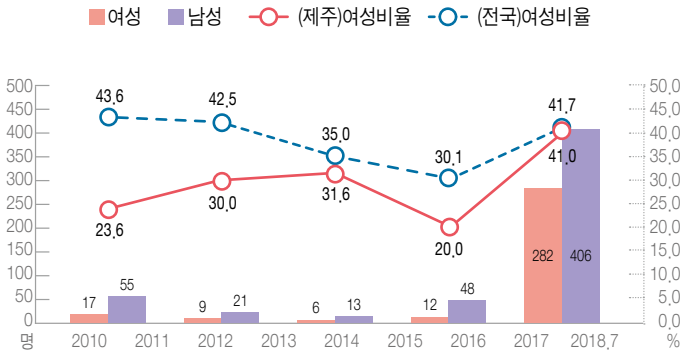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       |       |      | 전국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여성비율 |
| 2010 | 4,931   | 1,283 | 3,648 | 26.0 | 29.8 |
| 2011 | 4,978   | 1,314 | 3,664 | 26.4 | 30.0 |
| 2012 | 4,985   | 1,320 | 3,665 | 26.5 | 30.7 |
| 2013 | 5,006   | 1,355 | 3,651 | 27.1 | 31.3 |
| 2014 | 5,110   | 1,474 | 3,636 | 28.8 | 32.5 |
| 2015 | 5,219   | 1,579 | 3,640 | 30.3 | 33.7 |
| 2016 | 5,367   | 1,717 | 3,650 | 32.0 | 34.9 |
| 2017 | 5,492   | 1,808 | 3,684 | 32.9 | 36.4 |
| 2018 | 5,862   | 1,996 | 3,866 | 34.0 | 37.9 |
| 2019 | 6,023   | 2,092 | 3,931 | 34.7 | 39.3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326명(38.9%) 전국수준보다 낮은 주요부서의 여성 비율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으며, 주요부서 중 실·국주무과의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수는 326명으로 주요부서 공무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부서의 여성 비율은 40.8%인 전국수준보다 1.9%p 더 낮음
- 부서별로는 기획부서 17명(23.6%), 예산부서 9명(30.0%), 인사부서 6명(31.6%), 감사부서 12명(20.0%), 실·국 주무과 282명(41.0%)임.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주요부서는 실·국주무과이며, 전국과 비교하여 여성공무원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부서는 기획부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보다 20.0%p 더 낮음



(단위 : 명, %)

| 구분      | 계    | 기획부서 | 예산부서 | 인사부서 | 감사부서 | 실·국 주무과 |      |
|---------|------|------|------|------|------|---------|------|
|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 839  | 72   | 30   | 19   | 60      | 688  |
|         | 여성   | 326  | 17   | 9    | 6    | 12      | 282  |
|         | 남성   | 513  | 55   | 21   | 13   | 48      | 406  |
|         | 여성비율 | 38.9 | 23.6 | 30.0 | 31.6 | 20.0    | 41.0 |
| 전국      | 여성비율 | 40.8 | 43.6 | 42.5 | 35.0 | 30.1    | 41.7 |

## 02

### 사회참여와 문화 행정참여

그림 5-4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2019

표 5-4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201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02

## 사회참여와 문화 행정참여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16명(18.3%), 2010년 대비 132% 증가

제주특별자치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8.3%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5급 이상 공무원은 여성 116명, 남성 634명으로 총 627명이며, 이 중 여성은 16.6%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보다 0.5%p 더 높고, 2010년 대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는 132.0% 증가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7.5% 증가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

그림 5-5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2010,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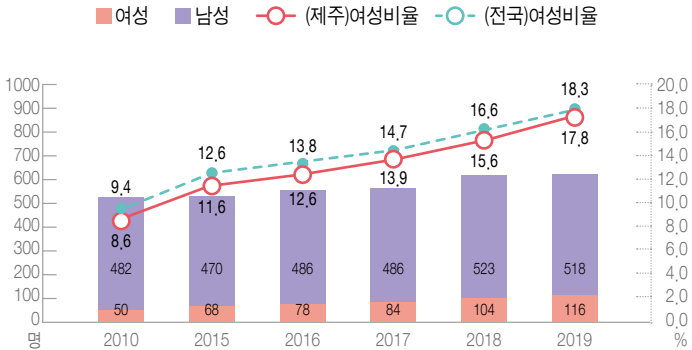


표 5-5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2010~2019

(단위: 명, %)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     |     |      | 전국   |  |
|------|---------|-----|-----|------|------|--|
|      | 전체      | 여성  | 남성  | 여성비율 | 여성비율 |  |
| 2010 | 532     | 50  | 482 | 9.4  | 8.6  |  |
| 2011 | 523     | 52  | 471 | 9.9  | 9.2  |  |
| 2012 | 529     | 56  | 473 | 10.6 | 9.9  |  |
| 2013 | 544     | 65  | 479 | 11.9 | 10.7 |  |
| 2014 | 543     | 63  | 480 | 11.6 | 11.6 |  |
| 2015 | 538     | 68  | 470 | 12.6 | 11.6 |  |
| 2016 | 564     | 78  | 486 | 13.8 | 12.6 |  |
| 2017 | 570     | 84  | 486 | 14.7 | 13.9 |  |
| 2018 | 627     | 104 | 523 | 16.6 | 15.6 |  |
| 2019 | 634     | 116 | 518 | 18.3 | 17.8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사회단체 참여율 여성 60.8%, 남성 64.8%

사회단체 참여율은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조금 낮으며, 주된 참여유형은 친목 및 사교단체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사회단체 참여율은 여성 60.8%, 남성 64.8%로 여성이 4.0%p 더 낮음
- (2019년 기준)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유형은 여성은 친목 및 사교단체 76.9%,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38.0%, 종교단체 33.1%, 지역사회 모임 25.0%, 시민단체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친목 사교단체 80.8%,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54.7%, 지역사회 모임 25.4%, 시민사회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여율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6.7%p 더 낮음. 성별격차 중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은 유형은 종교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4.3%p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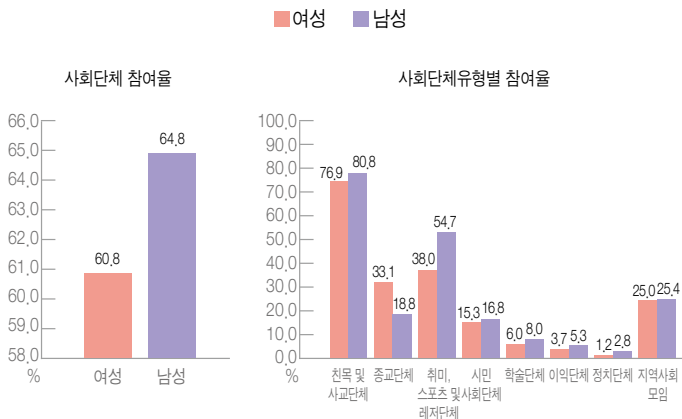


그림 5-6

###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9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  
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 03

## 사회참여와 문화

### 사회참여

표 5-6

####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1~2019, 2년 주기

(단위 : %)

| 시점   | 성별 | 참여자  | 친목 및 사교 단체 | 종교 단체 (%) |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 시민 사회 단체 | 학술 단체 | 이익 단체 | 정치 단체 | 지역 사회 모임 | 기타  |
|------|----|------|------------|-----------|-----------------|----------|-------|-------|-------|----------|-----|
| 2011 | 전체 | 49.5 | 76.8       | 21.3      | 32.5            | 12.8     | 5.5   | 2.4   | 0.2   | 16.8     | 0.7 |
|      | 여성 | 45.9 | 74.0       | 27.5      | 24.3            | 11.8     | 7.4   | 1.5   | 0.0   | 16.6     | 1.4 |
|      | 남성 | 53.2 | 79.3       | 15.7      | 39.9            | 13.8     | 3.8   | 3.3   | 0.4   | 16.9     | 0.0 |
| 2013 | 전체 | 44.8 | 72.9       | 19.7      | 33.5            | 13.0     | 4.1   | 2.4   | 1.1   | 15.6     | 0.5 |
|      | 여성 | 41.3 | 73.1       | 25.7      | 23.3            | 12.2     | 2.5   | 2.4   | 0.4   | 16.2     | 0.6 |
|      | 남성 | 48.4 | 72.8       | 14.4      | 42.5            | 13.6     | 5.5   | 2.3   | 1.7   | 15.1     | 0.5 |
| 2015 | 전체 | 46.1 | 73.3       | 23.9      | 35.7            | 14.9     | 7.2   | 2.4   | 0.7   | 17.2     | 0.2 |
|      | 여성 | 43.1 | 70.9       | 29.2      | 28.1            | 17.6     | 7.1   | 0.4   | 0.2   | 17.6     | 0.3 |
|      | 남성 | 49.2 | 75.5       | 19.1      | 42.7            | 12.4     | 7.3   | 4.2   | 1.1   | 16.9     | 0.1 |
| 2017 | 전체 | 47.0 | 76.8       | 22.8      | 43.9            | 15.0     | 5.8   | 4.2   | 1.0   | 22.8     | 0.0 |
|      | 여성 | 44.7 | 74.4       | 25.0      | 38.8            | 17.3     | 4.1   | 2.1   | 0.5   | 20.7     | 0.0 |
|      | 남성 | 49.3 | 78.9       | 20.6      | 48.6            | 12.9     | 7.3   | 6.1   | 1.5   | 24.7     | 0.0 |
| 2019 | 전체 | 62.8 | 78.9       | 25.7      | 46.6            | 16.1     | 7.0   | 4.5   | 2.0   | 25.2     | 0.0 |
|      | 여성 | 60.8 | 76.9       | 33.1      | 38.0            | 15.3     | 6.0   | 3.7   | 1.2   | 25       | 0.0 |
|      | 남성 | 64.8 | 80.8       | 18.8      | 54.7            | 16.8     | 8.0   | 5.3   | 2.8   | 25.4     | 0.0 |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여성 18.4%, 남성 18.7%

자원봉사단체참여율은 남녀 모두 18%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대상 봉사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은 여성 18.4%, 남성 18.7%로 유사한 수준임
- (2019년 기준) 참여율이 가장 높은 봉사단체 유형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대상 봉사단체(여성 63.7%, 남성 49.8%)이며, 여성의 참여율이 13.9%p 더 높음
- 참여율의 성별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봉사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4.8%p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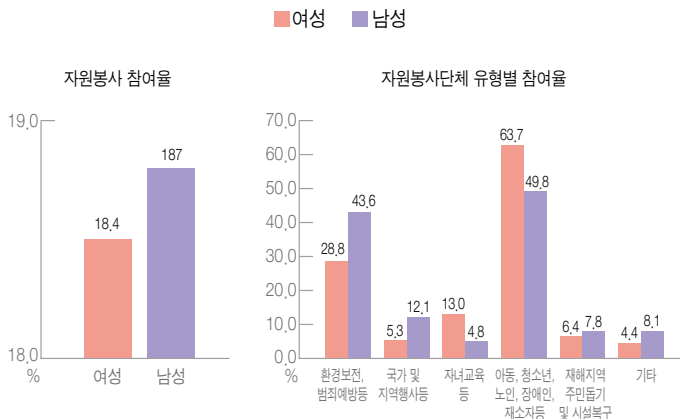


그림 5-7

### 분야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2019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  
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평등」

# 03

## 사회참여와 문화 사회참여

표 5-7

### 자원봉사단체 참여율 2019

(단위 : %)

| 시점   | 성별 | 참여율  | 환경보전, 범죄예방 | 국가 및 지역행사 | 자녀교육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 기타   |
|------|----|------|------------|-----------|------|-----------------------|------------------|------|
| 2011 | 전체 | 21.2 | 22.6       | 8.1       | 7.0  | 57.7                  | 3.2              | 13.3 |
|      | 여성 | 22.8 | 13.9       | 5.5       | 10.9 | 66.8                  | 2.0              | 7.3  |
|      | 남성 | 19.6 | 33.2       | 11.3      | 2.4  | 46.6                  | 4.7              | 20.6 |
| 2013 | 전체 | 21.5 | 20.0       | 5.7       | 5.8  | 68.5                  | 4.6              | 7.7  |
|      | 여성 | 22.4 | 15.8       | 5.4       | 9.2  | 70.4                  | 2.9              | 8.4  |
|      | 남성 | 20.6 | 24.7       | 6.0       | 1.9  | 66.4                  | 6.6              | 6.9  |
| 2015 | 전체 | 22.6 | 21.4       | 10.1      | 8.7  | 66.4                  | 2.8              | 4.6  |
|      | 여성 | 21.8 | 16.4       | 8.5       | 10.9 | 72.8                  | 1.6              | 3.2  |
|      | 남성 | 23.5 | 26.1       | 11.6      | 6.7  | 60.3                  | 4.1              | 5.8  |
| 2017 | 전체 | 23.8 | 22.9       | 14.1      | 10.5 | 49.4                  | 4.1              | 14.7 |
|      | 여성 | 25.9 | 17.6       | 10.8      | 15.6 | 50.9                  | 3.4              | 15.5 |
|      | 남성 | 21.7 | 29.3       | 18.2      | 4.2  | 47.5                  | 4.8              | 13.8 |
| 2019 | 전체 | 18.5 | 36.3       | 8.7       | 8.9  | 56.7                  | 7.1              | 6.3  |
|      | 여성 | 18.4 | 28.8       | 5.3       | 13.0 | 63.7                  | 6.4              | 4.4  |
|      | 남성 | 18.7 | 43.6       | 12.1      | 4.8  | 49.8                  | 7.8              | 8.1  |

주

15세 이상 인구대상, 2019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대상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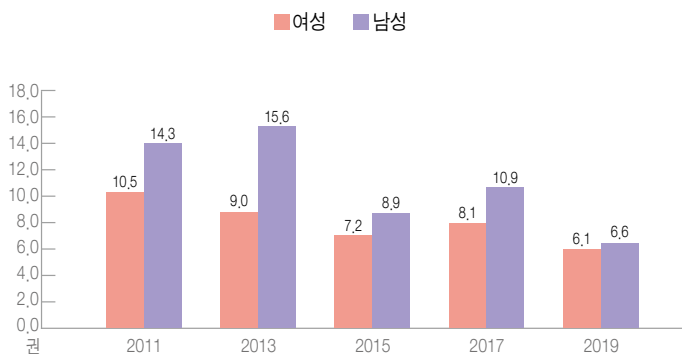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 지난 1년 간 1인당 독서량은 여성 6.1권, 남성 6.6권

지난 1년 간 1인당 독서량은 약 6권 가량으로 전년보다 감소함

- (2019년 기준) 지난 1년 간 1인당 독서량은 대량 6권 정도로 여성 6.1권, 남성 6.6권으로 여성이 0.5권 더 적으며, 지난 2017년 보다 여성은 2.0권, 남성은 4.3권 감소함
- 1인당 독서량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특히 여성의 1인당 독서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단위 : 권)

| 구분   | 전국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 2011 | 11.3 | 14.4 | 10.5    | 14.3 |
| 2013 | 9.6  | 12.7 | 9.0     | 15.6 |
| 2015 | 8.2  | 10.4 | 7.2     | 8.9  |
| 2017 | 8.5  | 10.5 | 8.1     | 10.9 |
| 2019 | 6.9  | 7.7  | 6.1     | 6.6  |

그림 5-8

1인당 평균 독서량  
2011~2019,  
2년 주기

표 5-8

인구 연간 1인당  
평균 독서량  
2011~2019,  
2년 주기

주

13세 이상 인구 대상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04

## 사회참여와 문화

###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성 64.2%, 남성 64.1%**  
**국내관광여행 경험 여성 57.5%, 남성 55.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과 국내관광여행 경험은 여성이 조금 더 높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여성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남성은 소폭 증가함

- (2019년 기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여성 64.2%, 남성 64.1%로 여성이 0.1%p 더 높고 여성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반면 남성은 1.0%p 증가함
- (2019년 기준) 국내관광여행 경험은 여성 57.5%, 남성 55.0%로 여성이 2.5%p 더 높고 여성은 전년보다 0.7%p 감소한 반면 남성은 1.6%p 증가함

그림 5-9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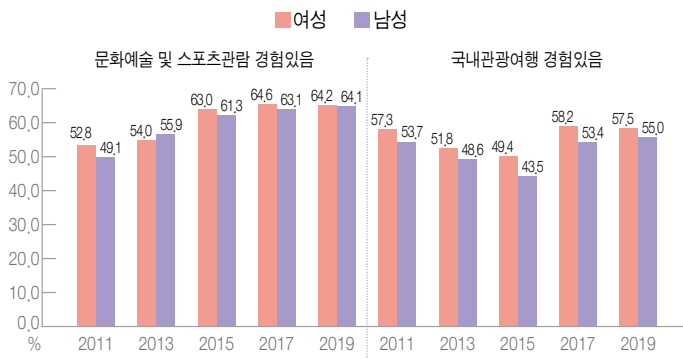


표 5-9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 2019

(단위 : %)

| 구분   |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      |      | 국내관광여행 |      |      |
|------|--------------|------|------|--------|------|------|
|      | 계            | 여성   | 남성   | 계      | 여성   | 남성   |
| 2011 | 51.0         | 52.8 | 49.1 | 55.5   | 57.3 | 53.7 |
| 2013 | 54.9         | 54.0 | 55.9 | 50.2   | 51.8 | 48.6 |
| 2015 | 62.2         | 63.0 | 61.3 | 46.5   | 49.4 | 43.5 |
| 2017 | 63.9         | 64.6 | 63.1 | 55.8   | 58.2 | 53.4 |
| 2019 | 64.1         | 64.2 | 64.1 | 56.3   | 57.5 | 55.0 |

주

- 1) 13세 이상 인구 대상임
- 2) 문화·스포츠·관광 경험은 지난 1년간 해당 경험을 한 사람들의 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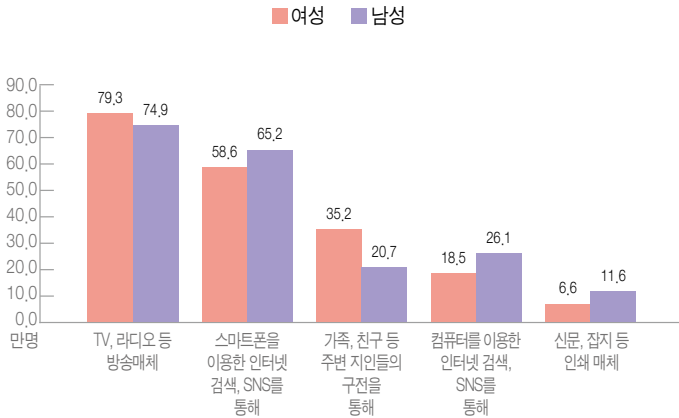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주된 정보습득 경로는 방송매체 (여성 79.3%, 남성 74.9)

가장 주된 정보습득 경로는 방송매체이며, 다음으로 스마트폰이 주된 경로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여성의 정보습득 경로는 방송매체 79.3%, 스마트폰 58.6%, 지인 35.2%, 컴퓨터 18.5%, 인쇄매체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방송매체 74.9%, 스마트폰 65.2%, 컴퓨터 26.1%, 지인 20.7%, 인쇄매체 11.6% 순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가장 주된 정보습득 경로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과 SNS로 나타남



(단위 : 명, %)

| 구분   |    | 1순위+2순위        |                           |                          |                         |               |
|------|----|----------------|---------------------------|--------------------------|-------------------------|---------------|
|      |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SNS를 통해 |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의 구전을 통해 |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
| 2016 | 전체 | 76.0           | 54.9                      | 24.8                     | 26.2                    | 16.2          |
|      | 여성 | 78.5           | 52.0                      | 29.8                     | 23.0                    | 14.4          |
|      | 남성 | 73.4           | 57.7                      | 19.6                     | 29.3                    | 17.9          |
| 2018 | 전체 | 77.1           | 61.9                      | 28.0                     | 22.3                    | 9.1           |
|      | 여성 | 79.3           | 58.6                      | 35.2                     | 18.5                    | 6.6           |
|      | 남성 | 74.9           | 65.2                      | 20.7                     | 26.1                    | 11.6          |

# 05

## 사회참여와 문화 정보화

그림 5-10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  
2018

표 5-10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  
2016, 201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05

## 사회참여와 문화 정보화

### 가장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 여성 16.9%, 남성 24.5%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순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제외한 나머지 SNS 유형은 여성의 선호율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여성 16.9%, 남성 24.5%), 밴드(여성 14.8%, 남성 14.7%), 카카오토리(여성 13.8, 남성 12.2%), 인스타그램(여성 13.3%, 남성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SNS 중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남성의 선호율이 더 높았고, 밴드,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카페는 여성의 선호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5-11

선호하는 SNS 종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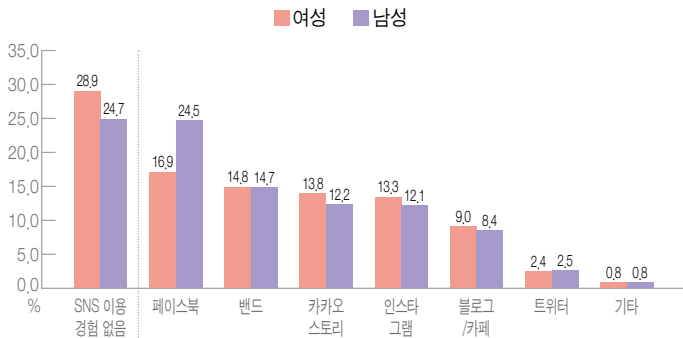


표 5-9

선호하는 SNS 종류  
2018

(단위 : %)

| 구분 | SNS 이용 경험 없음 | 페이스북 | 밴드   | 카카오토리 | 인스타그램 | 블로그/카페 | 트위터 |
|----|--------------|------|------|-------|-------|--------|-----|
| 계  | 26.8         | 20.7 | 14.7 | 13.0  | 12.7  | 8.7    | 2.5 |
| 여성 | 28.9         | 16.9 | 14.8 | 13.8  | 13.3  | 9.0    | 2.4 |
| 남성 | 24.7         | 24.5 | 14.7 | 12.2  | 12.1  | 8.4    |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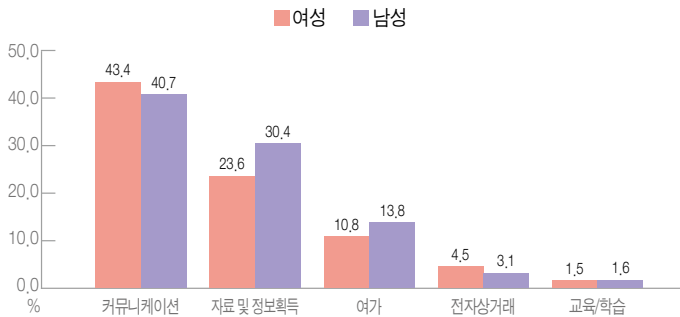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모바일기기의 주된 용도 커뮤니케이션 (여성 43.4%, 남성 40.7%)

모바일기기의 주된 용도는 커뮤니케이션, 정보획득, 여가 등의 순이었으며, 용도별로는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상거래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스마트기기의 활용 용도는 커뮤니케이션(여성 43.4%, 남성 40.7%), 자료 및 정보획득(여성 23.6%, 남성 30.4%), 여가(여성 10.8%, 남성은 13.8%) 등의 순으로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상거래 용도는 여성의 활용률이 더 높았고,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 교육 및 학습 용도는 남성의 활용률 더 높게 나타남



(단위 : 명, %)

| 구분 | 커뮤니케이션 | 자료 및 정보획득 | 여가   | 전자상거래 | 교육/학습 | 모바일 기기 없음 |
|----|--------|-----------|------|-------|-------|-----------|
| 전체 | 42.1   | 27.0      | 12.3 | 3.8   | 1.5   | 13.3      |
| 여성 | 43.4   | 23.6      | 10.8 | 4.5   | 1.5   | 16.2      |
| 남성 | 40.7   | 30.4      | 13.8 | 3.1   | 1.6   | 10.4      |

# 05

사회참여와  
문화  
정보화

그림 5-12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  
2018

표 5-12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  
2018

주

1) 2018년 7월 31일 기준이며, 외국인 포함 인구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VI 안전과 환경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이

## 안전과 환경

### 안전인식

##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 여성 58.1%, 남성 48.1%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보다는 '불안' 인식이 더 높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불안 인식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안전 9.5%, 보통 32.5%, 불안 58.1%였으며, 남성의 인식은 안전 19.2%, 보통 32.7%, 불안 48.1%로 남녀 모두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 인식은 지난 2016년보다 여성은 18.9%p 감소하였고, 남성은 12.2%p 감소하여 여성의 불안인식이 조금 더 많이 감소함.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불안인식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6-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  
2010~2018,  
2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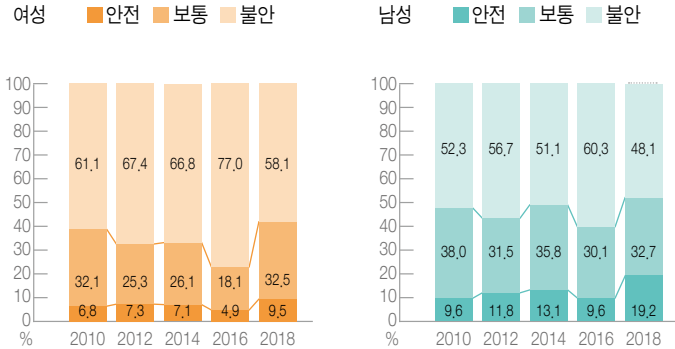


표 6-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  
2010~2018,  
2년 주기

주  
13세 이상 인구대상  
(단, 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 대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단위 : %)

| 구분   | 여성  |     |      |      | 남성  |      |      |      |
|------|-----|-----|------|------|-----|------|------|------|
|      | 계   | 안전  | 보통   | 불안   | 계   | 안전   | 보통   | 불안   |
| 2010 | 100 | 6.8 | 32.1 | 61.1 | 100 | 9.6  | 38   | 52.3 |
| 2012 | 100 | 7.3 | 25.3 | 67.4 | 100 | 11.8 | 31.5 | 56.7 |
| 2014 | 100 | 7.1 | 26.1 | 66.8 | 100 | 13.1 | 35.8 | 51.1 |
| 2016 | 100 | 4.9 | 18.1 | 77.0 | 100 | 9.6  | 30.1 | 60.3 |
| 2018 | 100 | 9.5 | 32.5 | 58.1 | 100 | 19.2 | 32.7 | 48.1 |



## 밤에 혼자 걷기 두렵다 여성 52.2%, 남성 29.4%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남녀 모두 인적이 드문 곳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었다)은 여성 50.5%, 남성 28.1%로 여성의 두려움 인식이 22.4%p 더 높게 나타남. 지난 2010년 이후 여성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여성 44.3%, 남성 55.4%), 가로 등이 없어서(여성 37.3%, 남성 37.6%), CCTV가 없어서(여성 16.4%, 남성 20.1%) 등의 순으로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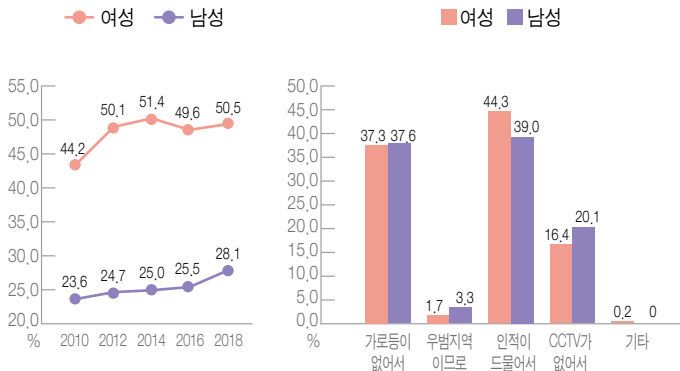


그림 6-2

###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2010~2018, 2년 주기

주

- 1)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었다는 사람들의 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02

## 안전과 환경

### 안전인식

표 6-2

####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2010~2018,  
2년 주기

(단위 : %)

| 구분   | 전체 | 두려운 곳이 있다 |         |          |           |      |     |
|------|----|-----------|---------|----------|-----------|------|-----|
|      |    | 가로등이 없어서  | 우범지역이므로 | 인적이 드물어서 | CCTV가 없어서 | 기타   |     |
| 2010 | 전체 | 34,1      | 39,2    | 4,6      | 55,9      | -    | 0,3 |
|      | 여성 | 44,2      | 36,5    | 5,5      | 57,6      | -    | 0,4 |
|      | 남성 | 23,6      | 44,5    | 2,9      | 52,7      | -    | 0,0 |
| 2012 | 전체 | 37,8      | 38,8    | 5,1      | 54,2      | -    | 1,8 |
|      | 여성 | 50,1      | 33,0    | 5,3      | 60,1      | -    | 1,5 |
|      | 남성 | 24,7      | 51,5    | 4,7      | 41,3      | -    | 2,5 |
| 2014 | 전체 | 38,5      | 38,5    | 6,7      | 54,8      | -    | 0,0 |
|      | 여성 | 51,4      | 34,9    | 8,0      | 57,1      | -    | 0,0 |
|      | 남성 | 25,0      | 46,3    | 3,9      | 49,8      | -    | 0,0 |
| 2016 | 전체 | 37,5      | 40,4    | 8,0      | 51,5      | -    | 0,1 |
|      | 여성 | 49,6      | 35,4    | 8,3      | 56,3      | -    | 0,0 |
|      | 남성 | 25,5      | 50,1    | 7,5      | 42,1      | -    | 0,3 |
| 2018 | 전체 | 39,4      | 37,4    | 2,3      | 42,4      | 17,8 | 0,1 |
|      | 여성 | 50,5      | 37,3    | 1,7      | 44,3      | 16,4 | 0,2 |
|      | 남성 | 28,1      | 37,6    | 3,3      | 39,0      | 20,1 | 0,0 |

주

- 1) 15세 이상 인구 대상임
- 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집 근처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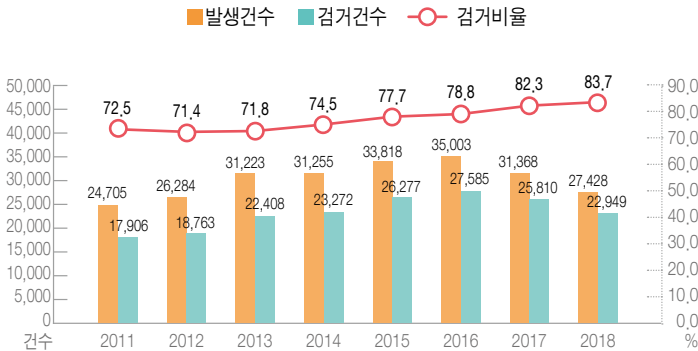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범죄 발생건수 27,428건, 검거건수 22,949건

2016년까지 증가하던 범죄 발생건수가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검거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범죄 발생건수는 27,428건, 검거건수는 22,949건으로 전년 보다 발생건수는 3,940건, 검거건수는 2,861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년까지 증가하던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검거비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건수)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발생건수(A) | 24,705 | 26,284 | 31,223 | 31,255 | 33,818 | 35,003 | 31,368 | 31,376 |
| 검거건수(B) | 17,906 | 18,763 | 22,408 | 23,272 | 26,277 | 27,585 | 25,810 | 26,571 |
| A/B(%)  | 72.5   | 71.4   | 71.8   | 74.5   | 77.7   | 78.8   | 82.3   | 84.7   |

그림 6-3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2011~2018

표 6-3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2011~201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

# 02

## 안전과 환경

### 안전실태

##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 86.4%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86.4%로 여성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함

- (2018년 기준) 강력범죄 피해자 535명 중 여성이 462명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91.4%, 강도 50.0%, 살인 26.7%, 방화 28.6% 순으로 나타나 강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

그림 6-4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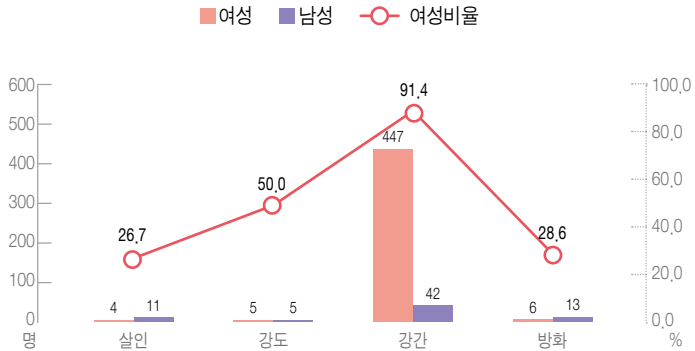


표 6-4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 2018

(단위: 명, %)

| 구분   | 계    | 살인   | 강도   | 강간   | 방화   |
|------|------|------|------|------|------|
| 전체   | 535  | 15   | 10   | 489  | 21   |
| 여성   | 462  | 4    | 5    | 447  | 6    |
| 남성   | 71   | 11   | 5    | 42   | 13   |
| 불상   | 2    | 0    | 0    | 0    | 2    |
| 여성비율 | 86.4 | 26.7 | 50.0 | 91.4 | 2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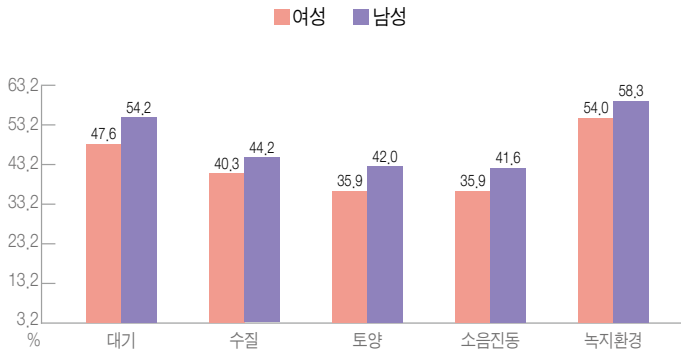
자료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 소음·진동 만족수준 38.7% (여성 35.9%, 남성 41.6%)

현재 체감하는 환경만족 수준은 녹지환경이 가장 높고, 소음·진동이 가장 낮음

- (2018년 기준) 현재 체감하는 환경만족 수준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5개 영역에서 모두 여성이 더 낮음
- 가장 만족수준이 높은 영역은 남녀 모두 녹지환경으로 나타남.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과반수에 그침
-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은 남녀 모두 소음·진동으로 나타남. 다른 영역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불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는 토양에 대한 만족수준이 35.9%로 소음·진동과 함께 낮은 수준임



(단위: 명, %)

| 구분 | 대기   | 수질   | 토양   | 소음,진동 | 녹지환경 |
|----|------|------|------|-------|------|
| 계  | 50.9 | 42.2 | 38.9 | 38.7  | 56.1 |
| 여성 | 47.6 | 40.3 | 35.9 | 35.9  | 54.0 |
| 남성 | 54.2 | 44.2 | 42.0 | 41.6  | 58.3 |

그림 6-5

환경체감 만족도  
2018

표 6-5

환경체감 만족도  
2018

주

- 1) 13세 이상 인구대상 조사 자료임
- 2) 환경체감 만족도는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03

## 안전과 환경

### 환경

## 재활용품 분리 배출 93.2% (여성 95.1%, 남성 91.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93.2%(여성 95.1%, 남성 9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와 친환경제품의 구입 및 사용은 하위 순위로 실천 노력이 더 필요한 분야로 나타남
-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6

환경오염 방지 노력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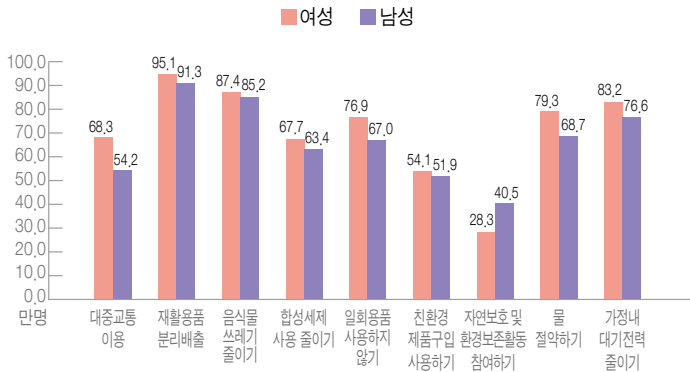


표 6-6

환경오염 방지 노력  
2018

(단위 : %)

| 구분 | 대중교통 이용 | 재활용품 분리배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친환경 제품구입 사용하기 |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하기 | 물 절약하기 |
|----|---------|-----------|-------------|-------------|--------------|---------------|--------------------|--------|
| 계  | 61.2    | 93.2      | 86.3        | 65.6        | 71.9         | 53.0          | 39.6               | 74.0   |
| 남자 | 68.3    | 95.1      | 87.4        | 67.7        | 76.9         | 54.1          | 28.3               | 79.3   |
| 여자 | 54.2    | 91.3      | 85.2        | 63.4        | 67.0         | 51.9          | 40.5               | 68.7   |

주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매우 노력한다'와 '약간 노력한다'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으로 찾아보기

|                                      |     |  |     |
|--------------------------------------|-----|--|-----|
| 1인 가구의 성별 구성(2010, 2015~2018)        | 24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8)                  | 74  |
| 1인당 평균 독서량(2011~2019, 2년 주기)         | 89  | 연령별 인구(2020, 6)                            | 14  |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2010, 2015~2019) | 84  | 연령별 취업자(2019)                              | 54  |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2018)              | 75  |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0~2017) 암사망률(2010~2018)      | 67  |
| 가구주 가구(2010, 2015~2018)              | 22  | 영유아(0-5세) 인구(2010, 2015~2020, 6)           | 36  |
| 가족형태별 가구(2010, 2015~2018)            | 23  | 외국인 인구(2010, 2015~ 2020, 5)                | 12  |
|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2018)                | 100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0~2019)                 | 28  |
| 건강강생활실천율(2010~2019)                  | 65  |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18)                         | 68  |
| 결혼가처분 비교(2018)                       | 31  | 요일평균 가사노동시간(1999~2019, 5년 주기)              | 29  |
|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5~2019)                | 52  |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5~2019)                  | 64  |
| 경제활동참가율(2010~2019)                   | 50  |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2018)                   | 33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2012~2018)              | 72  |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2~2018 2년 주기)              | 39  |
| 공무원 현황(2010, 2015~2019)              | 82  | 이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0~2019)                    | 27  |
|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0~2018, 2년 주기)     | 46  |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 2025~2045)      | 9   |
| 교육효과 인식(2010, 2018)                  | 47  |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2015~2018)                | 62  |
|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2012~2018)    | 71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0~2019)                   | 56  |
| 기대여명(2005~2017, 3년 주기)               | 60  | 저체중아 비율(2010~2018)                         | 66  |
| 농가 및 어가 인구(2010~2019)                | 13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0, 2018)                    | 48  |
| 대학교 진학률(2015~2019)                   | 43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2010, 2018)                   | 30  |
| 등록 장애인 수(2010~2019)                  | 77  |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2018)                   | 31  |
|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0~2018)                | 19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2018)            | 81  |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향(2019)          | 90  | 제주형돌봄 공동체 현황(2016~2019)                    | 39  |
|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2011~2018)               | 99  | 주관적 건강인식율(2010~2019)                       | 61  |
|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0~2018, 2년 주기)     | 96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2019)                        | 83  |
| 보육료 지원 현황(2015~2019)                 | 40  |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5, 2018~2019)          | 42  |
|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0~2020, 6)            | 16  | 초·중·고등학교의 직업별 여성교원 비율(2019)                | 45  |
|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2~2018 2년 주기)         | 34  | 총인구(2010, 2015~2020, 5)                    | 8   |
| 분야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2019)                 | 87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현황(2010~2018) | 73  |
|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2010~2018)   | 57  | 출생과 사망(2010~2019)                          | 17  |
|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2018)              | 58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0~2018)                   | 18  |
| 선호하는 SNS 종류(2018)                    | 92  |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2019 상반기)                    | 55  |
| 살림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19)                  | 37  | 투표율(2016, 2017, 2018)                      | 80  |
|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2019)                    | 85  |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19)                         | 38  |
| 순이동 인구(2010~2019)                    | 20  | 평균 교육년수(2000~2015, 5년 주기)                  | 41  |
|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 93  | 평균 조혼연령(2010~2019)                         | 26  |
|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2010~2018, 2년 주기)       | 97  | 행정시별 총인구(2020, 5)                          | 11  |
|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5~2019)          | 44  | 현재출연율(2015~2019)                           | 63  |
| 여성복지시설 임시 인원(2017, 2018)             | 76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0~2019)                     | 25  |
|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19)                    | 53  | 환경영향 방지 노력(2018)                           | 102 |
| 연령 3계층별 비율(2010, 2020, 6)            | 15  | 환경제감 만족도(2018)                             | 101 |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19)               | 51  |  |     |



|  |     |  |     |
|--|-----|--|-----|
| 1인 가구의 성별 구성(2010, 2015~2018)          | 24  | 연령별 취업자(2019)                              | 54  |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2010~2019)         | 84  |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0~2017) 암사망률(2010~2018)      | 67  |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2018)                | 75  | 영유아(0~5세) 인구(2010, 2015~2020.6)            | 36  |
| 가구주 가구(2010, 2015~2018)                | 22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0~2019)                 | 28  |
| 가족형태별 가구(2010, 2015~2018)              | 23  |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18)                         | 68  |
|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2018)                  | 100 | 요일평균 기사노동시간(1999~2019, 5년 주기)              | 29  |
| 건강생활실천율(2010~2019)                     | 65  |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5~2019)                  | 64  |
| 결혼가처분 변화(2010~2018, 2년 주기)             | 32  |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2018)                   | 70  |
|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5~2019)                  | 52  |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2~2018 2년 주기)              | 33  |
| 경제활동참가율(2010~2019)                     | 50  | 이혼인건수 및 초혼인율(2010~2019)                    | 27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2012~2018)                | 72  | 인구성장률 + 과 성비 + (2010~2020, 2025~2045)      | 9   |
| 공무원 현황(2010~2019)                      | 82  | 인구 연간 1인당 평균 독서량(2011~2019, 2년 주기)         | 89  |
|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0~2018, 2년 주기)       | 46  | 일반건강 검진 1차 판정 결과(2015~2018)                | 62  |
| 교육효과 인식(2010~2018, 2년 주기)              | 47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0~2019)                   | 56  |
|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2012~2018)      | 71  | 자원봉사단체 참여율(2019)                           | 88  |
| 기대여명(2005~2017, 3년 주기)                 | 60  | 저체중아 비율(2010~2018)                         | 66  |
| 농가 및 어가 인구(2010~2019)                  | 13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0~2018, 2년 주기)              | 48  |
| 대학교 진학률(2015~2019)                     | 43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2010~2018, 2년 주기)             | 30  |
| 등록 장애인 수(2010~2019)                    | 77  | 정보 습득 경로 - 1순위+2순위(2016, 2018)             | 91  |
|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0~2018)                  | 19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자 및 당선인 현황(2018)            | 81  |
| 문화예술/스포츠허브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2019)          | 90  | 제주형돌봄 공동체 현황(2016~2019)                    | 39  |
|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2011~2018)                 | 99  | 주관적 건강인식율(2010~2019)                       | 61  |
|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0~2018, 2년 주기)       | 96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2019)                        | 83  |
| 보육료 지원 현황(2015~2019)                   | 40  |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5~2019)                | 42  |
|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2~2018 2년 주기)           | 34  | 초·중·고등학교의 직업별 여성교원 비율(2019)                | 45  |
| 분야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율(2019)                   | 88  | 총인구(2010, 2015~2020. 5)                    | 8   |
|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2010~2018)     | 57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현황(2010~2018) | 73  |
| 선호하는 SNS 종류(2018)                      | 92  | 출생과 사망(2010~2019)                          | 17  |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19)                    | 37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0~2018)                   | 18  |
|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2011~2019, 2년 주기)          | 86  | 취업자의 직업별 종사비율(2019 상반기)                    | 55  |
| 순이동 인구(2010~2019)                      | 20  | 투표율(2016, 2017, 2018)                      | 80  |
|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 93  |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19)                         | 38  |
| 아간보행에 대한 두려움(2010~2018, 2년 주기)         | 98  | 평균 교육년수(2000~2015, 5년 주기)                  | 41  |
|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5~2019)            | 44  | 평균 초혼연령(2010~2019)                         | 26  |
| 여성복지시설 입소 인원(2011~2018)                | 76  | 행정시별 총인구(2020, 5)                          | 11  |
|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19)                      | 53  | 현재출연율(2015~2019)                           | 63  |
| 연령 3계층별 인구비율,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0~2020.6) | 16  | 혼인건수 및 초혼인율(2010~2019)                     | 25  |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19)                 | 51  | 환경오염 방지 노력(2018)                           | 102 |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8)              | 74  | 환경제감 만족도(2018)                             | 101 |
| 연령별 인구(2020. 6)                        | 14  |  |     |

연 구 기 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책임자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Jeju Women & Family Life

발행일 2020년 7월 31일  
발행인 민무숙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el. 064)720-4922 | Fax. 064)711-2349  
www.jewfri.kr  
인쇄처 참디자인  
ISBN 979-11-87026-53-2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